

시로 읽는 성보순례
솔바람에 나부끼는 석탑
국보 제35호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칼을 갈 땐 숫돌을 쓰고
나무를 다룰 땐 도끼를 쓰고
자신을 다룰 땐 지혜를 써라. 〈잡아함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윤 3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888 호 2012년 5월 16일 수요일

아쇼까 4사자상 한국탑에 첫 출현

5일, 삼천사 '세존 진신사리 9층 불탑' 봉찬 법회
불사리 7과… 〈금강경〉 사경 600부 봉안

인도 아쇼까 석주의 '4사자상'이 한국의 석탑에 최초로 나투어 시선을 끌고 있다. 삼각산 삼천사(주지 성운)는 5월 5일 오색 영롱한 부처님 진신사리 7과를 봉안한 '세존 진신 사리 9층 불탑' 봉찬 법회를 봉행했다.

오대산 월정사 8각 9층탑(국보 제48호)과 초전 법륜지인 인도 사르나트 아쇼까 석주 4두 사자상을 원형 그대로 접목한 탑신 15m의 이탑은 한국 석탑의 새로운 양식으로, 초기 불교와 대승보살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상륜부의 4사자상은 8정도의 가르침이 담긴 법륜에 안치 됐다. 9류 중생의 안녕과, 보살이 화엄 10지에 이른후 정토세계의 9품 연대에 오르기를 발원하는 보리심이 9층탑에 그대로 묘사 됐다. 기단과 탑신부에는 석굴암 8부 신장과 사천왕상, 8보살상과 8여래불이 양각으로 조각됐다.

불탑 복장에는 주양자 박사(前 보건복지부 장관) 내외가 미얀마 대승정으로부터 전수받은 세존사리 7과와 높이 16.5㎝의 작은 금동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상, 대장경 1질, 금강경 사경 600부, 순금 108염주와 거북이, 열쇠, 은, 호박, 칠보, 수정, 다이아몬드 결혼반지 등 불자들의 정성어린 공양물이 봉안됐다.

특히 금강경 사경에는 부처님께 올리는 발원문과 함께 참회와 감사의 편지를 담아 자기 성찰과 함께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공교롭게도 사경책이 600부여서 불자들은 반야 600부를 상징하게 됐다며 환희심을 냈다. '아쇼까왕의 복지사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비실천이 불교의 좌표임을 역설해온 성운 스님은 평화 · 생명존중을 천명한 아쇼까왕의 '담마칙령' 정신을 탑에 새기기 위해 아쇼까왕의 상징인 4사자상을 상륜부에 올렸다.

은은한 범종 소리에 이어 개탑이 선언되자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지면서 법신 여래 '세존 진신사리 9층 불탑'이 사바세계에 나투었다. 이날 봉찬 법회에는 주양자 박사 내외와 이재오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김우영 은평구청장, 인근 군부대 부대장 등 지역인사들과 1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성운 스님은 법어에서 한글로 사성제 게송을 대중이 합송하도록 이끈 후 "오늘의 불탑은 금강경을 사경한 600명의 서원이 응집돼 법신사리로 나투신 것"이라며 "감사하는 생활은 늘 새로운 시작을 열어준다"고 설했다.

봉찬법회는 고보현행 총신도회장의 발원문 봉독, 육법공양, 김우영 은평구청장의 봉탑사, 내빈 축사, 삼천사 후임 주지로 내정된 동출 스님의 축원 순으로 진행됐다.

마애석불(보물 제657호), 종형사리탑(세존사리 3과 봉안)과 함께 기도도량으로 알려진 삼천사는 이날 9층 불탑 봉찬으로 또 하나의 적멸보궁이 됐다. 불탑 봉찬에 이어 선망호국 충혼과 부모형제, 애혼 고혼을 위한 윤3월 천도대재를 거행, 법계의 안녕을 축원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삼각산에 나툰 아쇼까의 발원 삼각산 삼천사(주지 성운)는 5월 5일 '세존 진신사리 9층 불탑 봉찬법회'를 봉행했다. 높이 15m의 이 석탑은 한국 최초로 시도한 양식의 석탑으로서 월정사 9층탑 모형에 기원전 3세기 인도의 아쇼카왕이 불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웠던 석주의 4사자상 원형을 그대로 접목했다. 탑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7과를 봉안했으며, 대장경 1질, 금강경 사경 600부, 순금 108염주 등 불자들의 공양물을 함께 봉안했다. 제막식과 봉찬법회를 마친 불자들이 탑돌이를 하며 아쇼까왕의 평화와 생명존중사상을 기리고 보살의 자비실천을 다짐했다.

도박 사태에 고개 숙인 조계종

종정 · 총무원장 · 백양사 스님 국민께 참회

조계종 종정 스님도,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백양사 대중도 최근 불거진 도박 사태에 대해 참회했다.

자승 스님은 5월 11일 '국민과 불자 여러분께 참회드립니다'는 제하의 참회문을 발표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벌, 종단 자숙과 참회 입장을 표명했다.

자승 스님은 "인천의 스승이 돼야 할 수행자들이 최근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행위를 해 불교를 아끼는 국민과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종단 책임자로서 부처님 전에 엎드려 참회한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15일부터 100일 동안 108배 참회 정진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했으며, 주요 지도자들의 연속 간담회 등을 개최해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종정 진제 스님도 9, 10일 양일간 열린 봉축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일은 습기를 좇아 못난 짓을 한 것"이라며 "내가 대신 참회한다"고 머리

총무원 부실장 일괄 사표 제출
부처님오신날 봉축 분위기 찬물

를 숙였다. 또, 도박을 한 이들에게는 "시주밥을 먹을 자격도, 먹물옷을 입을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해당 사찰인 백양사 대중도 10일 발표한 참회문에서 "이번 사태로 종단과 사부대중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깊이 엎드려 참회한다"고 밝혔다.

백양사 사태는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의 일괄 사퇴로까지 번졌다. 부실장 스님들은 10일 자승스님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총무원의 한 부장 스님은 "중앙에서부터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벌어진 도박 사태로 봉축 분위기에 찬물이 뿌려졌다. 총무원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 마음이 착잡하다. 도박을 한 쪽도 이를 녹화해 고발한 쪽도 모두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사찰 관계자는 "불자들의 최대 축제인 봉축 행사에 영향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끄러운 한국불교의 자화상

방장 49재 참석 스님 8명 '밤샘 도박' 물의

미리 몰카 설치한 듯
성호스님 검찰에 고발

청정승가를 자부했던 조계종이 도박 사건으로 크게 휘둘리고 있다.

문제의 진원은 입적한 백양사 방장 수산스님의 49재가 열린 4월 23일부터 24일 백양사 인근 호텔에서 8명의 스님들이 도박판을 벌인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이 모습은 누군가 가구 안에 광각렌즈가 장착된 폐쇄회로 TV에 기록됐다. 위치 역시 도박하는 모습을 담기에 최적이어서 의도된 설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사태를 보고받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즉각 호법부에 사실 관계 파악 후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그간 자승 스님 등의 비위 문제를 거론하며 1인 시위를 펼쳤던 성호 스님의 검찰 고발은 사태를 더욱 불거지게 했다. 성호 스님은 5월 9일 도박 사건에 연루된 A, B스님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성호 스님은 고발장에서 "A스님과 법명 미상의 스님들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밤새 소위 포커 도박을 했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위반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님은 폐쇄회로 TV 기록과 관련 증거물도 제출했다.

신중일 기자

노동문제 해결, 불교계가 나선다

조계종, 노동위 설치 · 운영령 입법예고

사회 양극화로 첨예해지고 있는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선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9일 '조계종 노동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총무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 10명과 사회부장이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열린다.

노동위원회는 △종단 대사회 노동 관련 종책 자문 △노동 현안에 대한 화해와 조정 △노동 분야 종단 내 교육에 관한 자문 △노동 피해자 긴급 구호 자문 △노동관련 시민 단체와의 연대 및 후원 △노동관련 연구 사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신중일 기자

※다음주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호(제889호, 5월 23일자)는 연등축제 보도 관계로 평소보다 늦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템플스테이 새로운 10년 준비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0주년 기념사업 '다채'

세미나, 전시회 통해 회고·전망
통합 브랜드 구축으로 내실 다져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템플스테이가 '템플스테이,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을 슬로건으로 새 10년을 시작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 이하 문화사업단)은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사업단이 기획한 10주년 사업은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회고와 전망' △세계가 참여하는 '세상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국민과 함께하는 '10주년 기념 축제' 등 세 영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회고와 전망에서는 지난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역사 기록집 발간과 전시회를 개최하며 '템플스테이 10년,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도 6월 12일 열린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 제시와 제도화를 위한 통합 브랜드 구축도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기획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는 '세상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사업은 청소년, 외국인, 이주노동자, 장애인, 실직자, 해직자 등 사회 통합과 치유를 위한 기획 템플스테이부터 멘토링, 명상 브런치 등 특별 이벤트 사업으로 꾸며진다.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템플스테이문화축제는 오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며, 10월 1일 열릴 템플스테이 콘서트에서는 템플스테이 10년의 미래 선언, 브랜드 포트폴리오 선포식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888호 CONTENTS

종단 2
진제 스님 봉축 인터뷰
교황청 봉축메시지

종합 3
서울 봉축장엄 등 점등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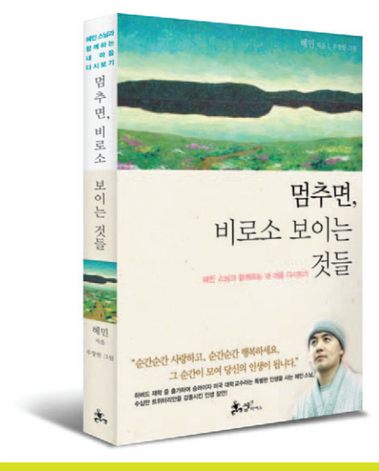
시방세계 5
강남 자비나눔 대법회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5월, 선물하기 좋은 책 1위!

"아름다운 마음보시, 책으로 나누세요."



내가 먼저 읽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책!

- 진로를 고민하는 고3 딸에게 선물했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이 엄마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하네요~ — 교보문고 독자(jinh***)
- 책 전체가 스님이 저를 응원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트위터(eun_n***)
- 부모님께 선물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밑줄까지 그으며 편안하게 읽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 알라딘 독자(711166***)

〈월스트리트저널〉이 극찬한 '영혼의 멘토'!
'차세대 리더 300인'으로 선정된 혜민스님의 인생 잠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지음 | 우창헌 그림 | 값 14,000원

한국출판인회의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
예스24 베스트셀러 1위
인터파크 베스트셀러 1위
알라딘 베스트셀러 1위



하버드, 프린스턴을 나와 현재 미국 햄프셔대 교수로 재직 중인 혜민 스님.
가장 영향력 있는 트위터리안으로 손꼽히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영혼의 멘토'로 자리잡았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2 신원빌딩 2층 | 전화 02-3140-4621~3 | 쌤앤파커스의 책들은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쌤앤파커스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35호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솔바람에 나부끼는 석탑

윤 강 로

구비 구비 먼 길 아쩌 돌아
숨가쁘지 않게 찾아가니
두류산이라 했던가
청량산이라 불렀던가
무어라 불러도 지리산은 영산
천축에서 화엄경 품고 온 연기조사가
산기슭에 세운 절 화엄사 있고
절 서북쪽 높은 터 솔향기 자욱한 곳에
석등 마주한 석탑 있으니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탑신에 양각으로 새긴 불심 어린 조각들
시공에 숨쉬는 꽃 청아한 악기 소리.
춤이 있고, 이렇듯 아름다운 것을 바치는 천인상
노 비구에게 올리는 작설차 향기로운 효심
또한 그윽하니
기둥인 듯 탑을 떠받친 네 사자의 어금니와 눈매
용심이 어찌 삼엄함뿐이랴

평평한 경사의 지붕 부드러운 처마의 선
탑머리 장식의 경쾌미

자랑스러워라
내 나라 국보 석탑의 자태
그 경지
신라의 아이처럼 속기를 떨치고 본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윤강로 시인은… 1976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 〈불꽃놀이〉, 〈사람마다 가슴에 바람이 분다〉 등

"우리는 부처님 처럼 살아야 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부처님 오신날 봉축인터뷰

오매불망 화두 쫓아야 '眞我' 찾아
'간화선 세계화' 위해 마지막 원력
도박사태 "수행자 자격 없다" 경책

"우리 중생은 어둡습니다. 중생이 어두운 이유는 고(苦),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에 뿌리는 나라는 허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신 뜻은 중생이 어두운 세계를 벗어나 밝은 지혜를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가장 먼저 부처님이 오신 뜻을 상기시키며 말머리를 풀었다. 5월 9일 종정 취임 후 교계언론과 가진 첫 공개 인터뷰. 스님은 긴장감 없이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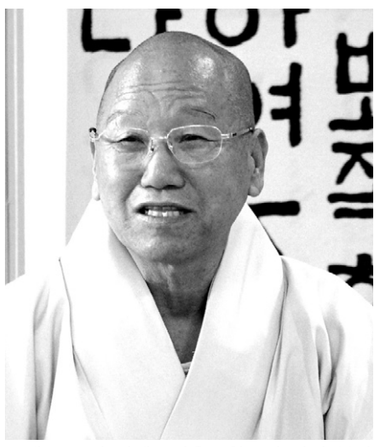
평소에 간화선의 수승함을 강조했던 만큼 스님은 모든 국민들이 간절한 화두를 들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온 국민이 부처님 같이 생활해야 고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오매불망 간절히 화두를 들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을 알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나아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처럼 살아야합니다."

최근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참석이 좌절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념과 사상을 떠나 어려우면 서로 상부상조해야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조그마한 땅 덩어리에서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분단된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밝은 미래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통일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와야 합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서는 간화선이 세계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진제스님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국을 오가며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은 5월 9일 열린 불기 2556년 봉축 공개 인터뷰에서 수행을 통해 참나를 찾고,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당부했다.

"지난해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교회에서 지식인과 이웃종교인들에게 한국불교의 간화선을 소개하는 법회를 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관법이 유행하고 있는데, 당시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이 설법을 듣고 새로운 감화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 수승한 수행법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다면 미국이든 어디든 갈 것입니다."

종단 현실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나왔다. 먼저 최근 벌어진 스님들의 도박 사태에 대해서는 "시주밥을 먹을 자격도, 먹물옷을 입을 자격도 없다"고 강한 경책을 내렸다. 삭발염의한 수행납자로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이다.

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는 '부처님 법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온 종도가 매일 하루를 일념 삼매로 원을 세우면 구습은 사라지고 자성과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당부도 함께 내놨다. 종단 화합을 위한 멸빈자 대사면도 원로회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스님은 밝혔다.

진제 스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자비의 마음을 잊지 않길 당부했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혜는 마음을 닦아야 이룰 수 있고, 복은 선행을 할 때 옵니다. 부처님도 전생을 거치면서 많은 선행을 한 뒤 부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찾고, 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대구 동화사= 신중일 기자

"용산 구속자 사면 · 가석방 재차 촉구"

자승 스님, 용산 참사 유가족 예방서 밝혀

유가족들 '답답한 정부' 성토

"용산참사 수감자들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사면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위원회와 법무부에 재차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0일 용산 참사 관련 구속 수감자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용산참사 관련 수감자들의 사면 다시 한번 촉구할 것을 밝혔다.

이날 자승 스님은 "좋은 결과를 못 드려 마음이 답답하다"며 "종단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유가족들은 "종단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성탄절 사면만 있고 부처님오신날 사면이 없다니 정말 답답한 정부다"라며 "대부분의 수감들의 형기가 2/3를 지났다. 사면이 어렵다면 가석방이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자승 스님은 5월 1일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 구속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지난 2월에도 용산참사 구속자 특별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부처님오신날 사면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 성탄절 사면만 2번 이뤄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면 기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용산 참사 유가족의 예방을 받고 수감자 사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종교가 정의와 평화 이끌자"

교황청종교간대화평의회, 봉축메시지 전달

교황청종교간대화평의회(의장 장 루이 토랑)는 5월 4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올해에도 부처님 오신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전 세계 불자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온이 깃들기를 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황청종교간대화평의회 봉축메시지에는 미래세대를 올바른 길로 함께 선도하길 바란다는 기원이 함께 담겼다. 교황청종교간대화평의회는 "불교와 기독교가 마음을 모아 젊은이들이 정의와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함께 이끌자"며 미래세대 교육에 대한 무한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갈 것을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외부업체와 협약 잇달아

NH농협 사찰 대출 일원화
NEPA 문화재 보호사업도

조계종이 외부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사찰 행정과 문화재 보호 사업 등을 진행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10일 NH농협금융지주회사(회장 신충식)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종단 소속 사찰 기채승인 관련 대출을 NH농협종로지점으로 일원화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사찰 신용도가 낮게 평가돼 제대로 불사를 못하거나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의 이자를 부담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종단승인을 받은 기채승인은 저리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아웃도어 브랜드 NEPA(평안L&C 주식회사)와 사찰 문화재보호 및 사회공헌 활동을 주요 골자로 한 업무제휴협약을 5월 9일 체결했다.

NEPA는 교구본사와 문화재 사찰 72곳에 종무원을 위한 근무복을 지급했으며, 향후 사찰문화재 안내판 설치 등 추가적인 문화재 보호 활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公告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총무원 부원장 및 임직원 전원

위 스님들은 **본 종 종헌 제1조(종명) 1항 종명을 변경할 경우, 본 종단 재적장로(원로) 전원, 재적중앙종회의원 전원, 재적종무위원 전원 그리고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이 참석하는 합동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종단의 상위기구인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재단이사회의 동의 없이 종헌종법에 위배되는 종명을 2012년 4월 16일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2012년 4월 25일자 현대불교, 법보신문에 공고문을 내고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으로 변경하는 명칭변경 신청서를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제출한 것은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은 물론이고 이는 해종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위해제함을 공고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의 종단업무는 2011년 3월 21일 재단중심체제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재단이사회와 총무원장(화엄), 원로스님들의 합의하에 발족된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중심체제 개혁위원회 중심으로 창종주이신 일붕존자님의 유지와 법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종도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애종심으로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6(2012)년 5월 11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구종(求宗)하는 종도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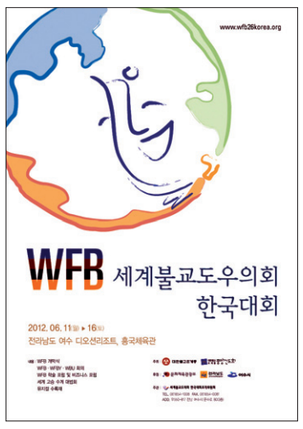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중심체제 개혁위원장 경원, 원로스님 다수 (3세종정 무찰, 7대 총무원장이자 현 원로의장 지공, 원로의원 수암, 원로의원 원각, 원로 도기, 원로 혜천, 6대 총무원장 동봉, 전부원장 법선, 법성),교구종무원장 다수(7명), 종회의원 다수(14명), 재단법인이사회 임원 전원)〉

세계 불교, 한자리서 미래 모색

'2012 WFB 한국대회' 6월 11~16일 여수 일원서

40여 개국에서 참여하는 세계 불교인의 축제 '2012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가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와 흥국체육관 일대를 중심으로 포럼, 세계고승 수계법회, 문화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에 조계종은 5월 8일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일정과 기획 취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WFB 한국대회 집행위원장 진옥 스님(석천사 주지), WFB염정호 사무총장, 조계종 사회국장 묘장 스님 등이 참석했다.



생태 환경 이슈로 포럼 개최
1천명 참가 전국불교합창제도

▷다양한 주제로 불교 미래 전망

이번 대회에서는 불교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포럼이 진행된다. 6월 13일 열리는 WFB Academic 포럼은 21세기 불교 생태 환경 사상과 수행을 주제로 한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 종교 철학 등 불교 수행의 사상 전파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조명한다. 6월 11일 열리는 WFBY(세계불교청년우의회)포럼 역시 환경 생명의 실천적 방향을 고찰하는 자리다. 김종인 교수, 도법스님, 푼타리비바트, 크리스티 창 등이 참석해 환경의 실천적 방향을 논한다. 이밖에도, 6월 14일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불교비즈니스의 관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각국 고승이 내리는 수계

6월13일 흥국체육관에서는 열리는 행사는 한국 및 세계 각 국의 고승을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진제 조계종 종정 스님, 법전 前 종정 스님 등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인류평화와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수계법회를 갖는다. 또한 현장 수계는 물론 인터넷으로도 수계를 진행해 대중들의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작품성 높은 공연 '눈길'

함께 열리는 '팔만대장경'과 '소리수행-범패콘체르토', 창작 뮤지컬 '카르마의 노래'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주목할 만하다.

창작뮤지컬 '카르마의 노래'는 수륙재를 모티브로 인간과 도깨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육계와 색계 비색계의 3가지 공간으로 나뉘어 표현한다.

'팔만대장경'은 기록문화의 보고인 대장경 속에 담긴 이야기를 무용과 국악 교성곡, 피아노협주곡, 판소리합창 등으로 풀어낸다. 범패콘체르토에서는 솔리스트 정율스님의 공연, 태고종 범패, 승무와 바라춤 등이 선보인다.

또한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영애)는 6월 12일 열리는 세계불교도우의회 식전 오프닝 행사로 '전국불교연합회합창제'를 개최한다. 이번 합창제에는 전국 각 지역 10개 합창단이 참가하며, 1000여명이 무대에 오른다.

이밖에도 대회 기간 중에는 WFB 대표자 회의, 참가자 한국 사찰순례 및 문화 순례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6월 15일 폐회식에는 WFB 한국 선언서가 채택 발표될 예정이다.

WFB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세계 불교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슈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평화 · 화합燈 불 밝혔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봉축 장엄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조계종총무원장), 태고종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총무원장 대행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를 비롯 박원순 서울시장 등 사부대중 2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부처님 오신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서울광장을 밝히는 장엄등은 국보 제35인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을 원형으로, 좌대 2.7m, 총 높이 18m 규모로 제작됐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 찾는게 우선?

소유권 정부 기증식 논란, 복장유물 가능성에도 협의 없어

국보급 '훈민정음 해례본'(이하 상주본)을 찾기 위해 정부가 출처와 소유에 대한 사실규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증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5월 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증식은 상주 훈민정음 해례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조용훈 씨(67)가 권리를 국가에 기증하며 이뤄졌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동기와 사용법을 설명한 책으로 세종 28년(1446) 훈민정음 반포와 동시에 출간된 목판본이다. 감정가로만 1조원에 달한다.

해례본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최초 해례본의 존재를 알린 배 씨(49)는 조 씨 소유의 해례본을 훔쳤다는 재판 결과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으로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형사재판 1심에서 안동 광흥사의 복장유물일 가능성이 대두됐음에도 기증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소유의 가능성이 있는 광흥사나 조계종과 일체의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조계종과 광흥사는 해례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 해례본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이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은 "종단과 일체 설명이나 협의 자체가 없었던 것이 매우 아쉽지만 정부와 문화재청 문화재 찾기의 큰 뜻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도 "문화재 회수에 주력하고 소유 문제는 회수 이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장물취득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문화재청이 악용될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작 심경변화를 기대한 배 씨는 10일 심리에서 국가 기증 소식을 듣고 은닉장소 공개의사에 대해 응답 하지 않았다. 노덕현 기자



5월 7일 열린 해례본 기증식. 출처불명의 문화재를 협의 없이 기증했다는데 비판여론이 일고있다.

여수 EXPO는 한국불교와 함께

템플스테이로 숙박 · 문화 체험
엑스포타운 內 불교관도 개관

전 세계 105개국이 참여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5월 11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12일까지 대장정에 나섰다. 불교계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동안 내 · 외국인 관람객에게 한국전통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인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6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대화는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중요한 행사이다. WFB 한국대회 집행위는 현재 불교 미래를 전망하는 포럼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다.

한국불교 대표 관광자원인 템플스테이도 대회 기간 동안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지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도 다도, 사찰음식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박람회와 세계불교도대회에 참석하는 내 ·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정수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측도 여수 흥국사, 향일암, 순천 송광사 등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과 지역주변관광지와 먹거리, 문화체험, 숙박시설 등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 특히 휴가철 관광객들에게 부족한 지역 숙박시설 대신 2시간 이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들을 이용하길 권유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템플스테이는 저렴한 요금으로 한국불교 전통문화체험과 숙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진옥)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관광객들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5월 10일 여수 엑스포 타운 내 불교관을 개관했다. 엑스포 타운 3층에 마련된 불교관은 43m²(13평) 규모로 법당, 차방 등이 마련돼 있다. 엑스포타운에는 박람회 기간동안 외국인 2천 5백여 명을 포함해 최대 8천여 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해 각종 포교행사 및 정기법회를 엑스포 타운 불교관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진옥 스님은 "불교관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 가교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한국불교를 경험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여수 세계박람회 인근 템플스테이 사찰

사찰	프로그램	연락처
광주 무각사	발우공양, 참선, 108배, 예불, 사경 및 참선	(062)383-0107~8
남해 용문사	예불, 발우공양, 다도, 참선, 울력	(055)862-4425
여수 흥국사	참선, 발우공양, 108배, 예불	(061)685-5633
하동 쌍계사	차만들기, 예불, 참선, 다도, 울력	(055)883-1901
남원 실상사	울력, 산책, 기도, 예불	(063)636-3191
구례 천은사	선방체험, 예불, 산책	(061)781-4800
보성 대원사	유언장 작성하기, 저승체험, 산사체험, 명상	(061)852-1755
곡성 도림사	암자 오르기, 타종 체험, 발우공양, 달맞이	(061)362-2727
순천 선암사	명상, 수행, 전통생태체험, 발우공양	(061)754-6250
순천 송광사	암자 순례, 경전 읽기, 108배	(061)755-0107
화순 쌍봉사	단청그리기, 반야신경 일자일배	(061)373-9041
화순 유마사	차담, 예불, 108배 참선	(061)374-0050
구례 화엄사	다도, 예불, 발우공양, 숲산책	(061)782-7600


여수불교사암연합회는 5월 10일 관광객들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여수 엑스포 타운 3층에 불교관을 개관했다. 사진 맨 왼쪽은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불기 2556(2012)년 봉축 특별 할인 판매

> 연꽃 차걸이 특별판매 <

봉축을 맞아 불자님들 선물용으로 더욱 좋습니다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3층 목각탑
높이 85cm
가로,세로 35cm
가격 5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세로 20cm
가격 35만원



침향 大



침향 小

▣ 침향(沈香) (원산지 : 라오스)
세계 3대향의 향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침향은 공기를 정화시키고 정신을 맑게해 집중력을 좋게 해 줍니다.
• 침향 小 50,000원
• 침향 大 100,000원




■ 연꽃 차걸이1 / 가격 3,000원
100개 이상 구매시
특별 할인합니다.


■ 오색 매듭팔찌 / 가격 2,500원
운달이 드는 해에 다섯가지 실로 매듭한 팔찌를 합장하고 다니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 연꽃 차걸이2 (4색)
가격 2,500원

주문 문의
고 전 상 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일 주 문



제25회 청소년예술경연대회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6월 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 25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를 펼친다. (02)733-5138



통도사 자비실천 철야정진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5월 19~20일 제12회 국경없는 자비실천 철야정진을 연다.



수덕사 · 홍성경찰서 업무 협약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5월 3일 홍성경찰서와 학교폭력 예방과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동국대 정각원, 5천원 연등달기
동국대 정각원 원장 법타 스님은 5월 25일까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봉축 연등달기' 행사를 진행한다. 연등 공양금은 '연등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토론회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5월 16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2차 공론의 장'을 개최한다.



진각종, 대종조 탄생 법회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5월 10일 '진각성존 회당종조 탄생110주년 기념불사'를 열고 회당대종사 탄생 110주년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능인선원 부산본원 개원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은 5월 10일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내 센텀타워 메디컬에서 능인선원 본원 개원법회를 했다.



조계종 복지재단, 3천배 철야정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5월 12일 조계사에서 '국내 · 외 난치병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을 했다.



용문사, 군과 양해각서 체결
양평 용문사 주지 호산 스님은 5월 10일 양평군과 친환경농업박물관 위탁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고침〉 885호 4면에 보도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 기사 중 30개 대학에 1500만원 지원을, 43개 대학에 3000만원 지원으로 정정합니다.

"철저한 교육 인재 양성 지름길"

옥천범음대학 제 5대 학장 취임한 원허 스님



"옥천범음대는 영산재보존회 부설대학으로 한국불교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불교전통의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2007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해 학문적으로도 터전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있다면 학사를 마련해 정규 문화예술대학으로 승격시키는 일입니다."

최근 제 5대 옥천범음대 학장으로 취임한 원허 스님은 새롭게 맡은 중책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피력했다.

"현재 재원 마련이 어려워 편안하게 학생들이 공부하고 실습할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단기 형식의 영산재 템플스테이를 마련해 대중화에 나서려고 해도 마땅한 전승관이 없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지요."

시설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지만 옥천범음대학은 그만의 큰 강점이 있다. 바로 유능한 교수진과 효율적인 커리큘럼이다. 국내외 우수 어산 스님을 초빙해 전수자, 이수자 재교육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다. 과정도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기초부터 철저히 교육시켜야 전통을 이을 수 있다는 건학이념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상주권공1년(1학년), 각배1년(2학년), 영산(3학년), 불교의식 실기 1년(4학년) 등 총 4년에 걸쳐 정규 일반 대학처럼 학사를 철저히 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의식교육의 정통 맞춤 인재를 양성 한다는 게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각 과정을 완벽히 익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게 교육과정을 구성해 졸업생들은 자부심이 강합니다. 요즘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3개월~6개월이나, 1년~ 2년 과정 등 단기 속성과정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 학교는 예전 선배 스님들이 배우던 것처럼 정확하고 꼼꼼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4년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영산재는 특히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모두 배워 놓는 게 중요하지요"

불교의식 만큼은 한 번 배울 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확히 배워야 한다는 원허 스님은 "불교 의식을 할 때면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단기과정으로 의식을 배우면 기초에 문제가 생겨 소리를 겉만 배우는 형국이 됩니다. 옥천범음대학에서 또 하나 장점으로 꼽는 것이 재학생들 교육이 졸업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생들은 자동으로 영산재보존회 회원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연계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옥천범음대에 입학하게 되면 10년 이상 교육을 받는 셈이지요."

옥천범음대 1회 졸업생이기도 한 원허 스님은 세계에서도 그 예술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영산재를 어떻게 하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감동에 젖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원허 스님은 앞으로 △영산재 브랜드화 및 인프라 체계적 강화 △해외교민 불자회 주축으로 한 해외 공연 활성화 △일반인과 외국인들의 체험 공간 마련 등에도 진력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심으로 런던올림픽 선전 노력"

체육인불자연합회, 제3대 이경훈 회장 선출



"밝음 마음, 밝은 말, 밝은 몸으로 세상을 대하며 체육보살이 되고자 서원합니다. 체육을 통한 포교의 서원이 바다처럼 물결치게 되길 빕니다."

7월 열리는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체육인불자연합회(회장 이경훈)가 제3대 회장에 이경훈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회장을 선출했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5월 4일 오전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경훈 회장을 선출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경훈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해 체육인불자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일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이번 회장직을 맡으면서 그동안 열심히 하지 못했던 몫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체육인불자연합회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국장 남전 스님, 태릉선수촌법당 주지 퇴휴 스님과 지도법사 스님들을 비롯해 100여 체육인불자연합회 선수단들이 참석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제3회 원효학술상 발표

한자경 · 권서용 · 이상엽 · 문광 스님도 수상자로



한자경 교수



권서용 강사



이상엽 씨



문광 스님

대한불교진흥원이 주최하는 제3회 원효학술상 우수상에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가 선정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5월 7일 제3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로 우수상의 한자경 교수 외 대상 권서용 강사(부산대 철학과), 은상 이상엽 씨(서울대 대학원 철학과 재학), 동상 문광 스님(국사편찬위원회 사료연수과정 재학) 등 4명을 선정했다.

진흥원은 한자경 교수는 저서 〈불교철학과 현대 윤리의 만남〉을 펴내 현대를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각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우수상 선정 사유를 밝혔다. 상금은 700만원이다.

대상(상금 500만원)은 부산대 강사 권서용 씨의〈다르마키르티와 불교인식론〉, 은상(250만 원)의 이상엽 서울대 대학원생의 '〈범망경〉보살계와 유식학파 보살계의 비교 연구', 동상(200만 원)은 문광 스님(국사편찬위원회 사료연수과정)의 '한중 선사들의 유가 중화설(中和說)에 대한 담론 비교 연구에 돌아갔다.

노덕현 기자

전국비구니회관 10주년 기념법회

명우 스님 "비구니 역량 모을 것"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는 5월 4일 회관 내 법룡사에서 '전국비구니회관 개관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비구니 승가의 수행 전법 도량으로 발전시키길 기원했다.

이날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선배 스님들의 원력으로 전국비구니회관이 건립됐고, 이제 10주년을 맞았다"며 "이를 계기로 비구니 스님들의 역량을 한 데로 모을 수 있는 도량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비구니 승가의 원력이 모인 이 도량이 수행과 포교의 모델로 자리매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전국비구니회 발전에 기여한 6,7대 회장 광우 스님, 한마음선원 회주 대행 스님, 석불사 법운 스님, 진관사 진관 스님 등 원로 비구니 스님들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진관 스님의 공로패는 현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이, 대행스님의 공로패는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이 대신해 수상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5월 4일 법룡사에서 열린 전국 비구니회관 10주년 기념법회 모습

KCRP 이웃종교 화합 주간 개막식

7대 수장 핸드프린팅 등 행사 이어져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7대 종단 수장들이 세계 평화와 화합을 다짐했다. KCRP는 '2012년 이웃종교 화합 주간' 개막식을 광화문 광장서 열고 종교간 화합과 상생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중 대주교(천주교, KCRP대표의장), 자승 스님(불교), 김영주 총무(기독교), 김주원 교정원장(원불교), 최근덕 성균관장(유교), 임운길 도령(천도교), 한양원 회장(민족종교) 등 7대종교 대표가 참석했다. 내빈으로 김용환 문화체육부관광부 차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동성 스님 몽골 불교대 명예 박사학위

선서화로 한국불교문화 알려



선화가 동성 스님(창원 봉국사 주지 · 사진 좌측)이 5월 6일 몽골불교대(총장 D.체데브)에서 불교철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이와 함께 5월 5일~9일까지 몽골에서 달마도 등을 전시한 선서화 초대전 '둥글고 밝은 빛' 전을 열었다.

정혜숙 기자





5월 10일 서울 봉은사 앞마당에 모인 강남지역사암연합회 4000여 불자들은 문화공연을 보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들은 즐거운 마음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십시일반의 자비심도 더했다.

‘사회의 빛 시대의 빛’ 서원… 강남을 수놓다

5월 10일, 강남지역 자비나눔 첫 대법회 4000여 불자 결집

“이 곳이 불국토의 한 곳이라는 자부심으로 정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 바람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불교, 시대의 빛이 되는 불교가 될 것을 서원합니다.”

햇살과 꽃내음에 봄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진 5월 10일, 자비나눔정신을 실천하고자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서울 강남의 봉은사 도량을 가득 메웠다.

이날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 사찰연합인 강남지역사암연합회(회장 정우)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자비나눔을 위한 강남지역 불자대법회’를 봉행한 날, 대법회에 참가한 4000여 불자들은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합송하며 자비심을 내는 것으로 법회의 문을 열었다. 행사는 1부 법회와 2부 문화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본격적인 법회에 앞서 진행된 강남지역 사찰의 연합합창단과 봉은사 풍물패의 식전공연은 대중의 환희심을 북돋기에 충분했다.

“오늘 이 자리는 소외된 이웃과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듯함을 나누고자 하는 법석입니다. 더 나아가 자비나눔으로 동행하는 승가공동체가 돼 새로운 전법의 길을 열고자 함입니다.”

강남지역사암연합회 회장 정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강남지역 불자들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무대석이 아닌 도량 곳곳에 자리한 대중들 때문일까. 정우 스님은 “지금 앉은 좌석이 많이 비었네요, 자리 하나 당 5000원인데 말이죠”라며 대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정우 스님은 강남지역 사찰에서 모은 자비나눔 기금 5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에게 전달했다.

강남 불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조계종 차원의 격려사도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강남은 우리나라 중심 지역이지만 아쉽게 불교인구가 가장 취약한 곳이기도 하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이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더 깊이 전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법회에서 법사로 나선 前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중생은 모두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그 마음을 별로 쓰고 있지 못하다. 자비심을 일으키면 그 것이 바로 발심 수행으로 바라는 마음 없는 원력으로 자비정신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대중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2부 문화공연은 前환경부장관 손숙 씨의 사회로 배우 박칼린 씨와 배우 최재림 씨와의 노래, 국악고 2학년 이수현 학생의 판소리, 진도 무형문화재 5명의 민요사철가 · 진도북춤 · 지전춤, 김성녀 국립창극단 단장의 찬불가 합창이 진행됐다.

박칼린 씨는 “정우 스님과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불자님들이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달려오겠다”고 말했다.

뮤지컬 배우 최재림 씨도 “사회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취지가 너무나 좋다”며 “무대에 서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남지역에서 각자의 포교활동에 전념했던 사찰들의 연계활동에 대한 다짐도 이어졌다.

서울 불광사 주지 지홍 스님은 “그동안 강남의 중요성에도 정작 이 지역 사찰들의 교류가 부족했다”며 “향후 연대를 강화해 불교정신을 이 지역에 활발히 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제에 맞춰 나눔 마당 곳곳에 펼쳐져

무대가 진행되는 동안 자비나눔을 주제에 맞춰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나눔마당이 펼쳐졌다. 경제 · 문화 · 교육의 중심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의 왁자지껄한 문화공연은 오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도 남았다. 이에 맞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동행은 오후 2시 행사 전부터 길거리 연꽃모금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거리 모금을 진행했다. 연꽃모금함은 201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도입될 예정인 거리모금함이다.

인근 직장에 다니는 김현철 씨(34)는 “업무 차 길을 지나가다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기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수줍게 웃었다.

법회에 맞춰 특별캠페인을 진행한 아름다운가게 봉은사점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협약에 따라 봉은사점 판매수익금의 30%는 사회복지법인 봉은에 돌아가 의미를 더했다. 아름다운가게에서는 법복(1000원)이 가장 인기였다.

박찬정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은 “오늘 봉은사에서 불전함 등에 수금된 보시금까지 모두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하기로 했다”며 “단위사찰에서 이런 동참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입적한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치아사리 친견 법회도 함께 열려 평소 나눔을 강조한 큰 스님의 뜻을 기렸다. 또 문화재 보수 등에 도움이 필요한 북한전통사찰 사진전도 열렸다.

봉은사 신도 혜진 안진숙 씨(63)는 “북한에도 사찰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북한에는 불자들이 있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며 북한동포돕기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후 5시, 찬불가 합송과 함께 법회는 막을 내렸다. 참석한 4000여 불자들은 각자의 집과 사찰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앞마당을 가득 채웠던 자비심은 떠날 줄을 몰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5천만원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
향후 지역사찰 연대활동 기대
“정법 기치들고 전법의 길 열자”


박칼린씨와 최재림씨가 듀엣곡을 부르고 있다.



강남지역사암연 회장 정우 스님은 아름다운 동행에 5천만원을 전달했다.


아름다운가게에는 수많은 불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행사에 참여한 불자들이 북한 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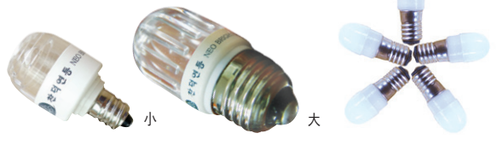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불교계 여성교육 대중화 나서다

명상심리치료 · 리더십 · 젊은 여성불자 교육에 주력

불교계에도 여성 불자들을 위한 교육 열풍이 거세다. 사찰과 교육단체 등에서 불교 기초교리, 심리상담,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성 불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국제선센터는 매달 둘째 주 금요일마다 재가여성을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되돌아보는 '오늘의 여성' 포럼을 진행한다. 5월 18일에는 홍성란 포교사가 강연에 나서 탈북자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국제선센터는 또 명상과 상담을 주제로 '명상과 불교 상담의 기초'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장이 진행하는 강의는 여성들이 마음에너지 활용법을 통해 원활한 대인관계를 맺고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불교상담기초과정으로, 6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마다 진행된다. (02)2650-2214

이밖에도 사회적으로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을 위한 심리상담교육도 늘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명상과 참선 등을 활용한 마음치유프로그램과 상담교육이 늘어나면서 여성불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편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특히 매 학기마다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불교상담심리사 사이버과정 등을 통해 불교상담심리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또 7월까지 불교상담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개설해 전문 불교상담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02)737-7378

황수경 명상리더십 센터장은 "일과 양육 모두를 수행해야하는 여성들이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건강히 하기 위해 명상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승연 불교상담개발원 교육주임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90%이상이 여성 불자이다"라며 "참여자 대부분은 심리상담 교육을 통해 사찰과 학교, 가정 등에서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프로그램 참가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평화재단은 6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서초구 평화재단 강당에서 여성리더십아카데미를 진행하며 이시대 필요한 여성정신에 대해 강의한다. 강연에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윤여준 평화교육원 원장, 진중권 동양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서, 경제 문화 복지 언론 환경 평화 여성 등을 주제로 특강한다. (02)6925-0522

이밖에 불교여성개발원은 차세대 글로벌 여성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7월 22까지 'GEP(The Way to Be a Global Buddhist Leade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불교에 관심있는 여학생들이 모여 자기계발, 리더십, 여성에 관한 영어 논설을 읽고 토론하는 형식이다. 프로그램 수료자는 2013년 1월에 열리는 제13차 Sakyadhita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가해 통번역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불교계가 기초교리, 심리상담, 리더십 등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주최한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여성이 함께 진행한 GEP 프로그램 입재식 장면

프로그램에는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국제선센터 국제부 국장 명법 스님, 최요원 서울대 행복연구소 선임연구원, 크리스티 챵 세계여성불자연합 회장 등이 강사로 나서 불교교리, 여성의 수행, 리더십에 관해 강연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또 여성불자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상시적으로 승만경 강좌를 진행하며, 승만경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02)722-2101

조은수 불교여성연구소 소장은 "단순히 복을 구하기 위해 기도만 하던 여성불자들이 수년 전부터 직접 불교교리를 알아가고 수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변화가 양산되고 있다. 소외돼 있던 여성들이 점차 자신들의 역량을 두각 시키면서 여성교육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세계적으로 전문여성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육문화가 더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소장은 "앞으로 젊은 불자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운영기관	프로그램	일 정	장 소	연락처	수강료
국제선센터	오늘의 여성 포럼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오후 7~9시	국제선센터	(02)2650-2214	무료
	불교상담기초과정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낮 12시(6월 15일까지)	국제선센터		15만원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상담대학대학원, 사이버 교육	매 학기 진행(매주 화,목)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02)737-7378	문의
	불교상담프로그램 개발과정	7월 까지(매주 목요일 오후3~5시)	불교상담개발원 교육실		2개월 10만원
평화재단	여성리더십아카데미	6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평화재단 강당	(02)2695-0522	40만원
불교여성개발원	GEP 프로그램	7월 22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2~5시	국제선센터	(02)722-2101	무료

"불교계가 '느린 도시' 만들면 예산 따라와"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미래복지포럼서 정부예산 방침 설명



"불교계가 도시민들에게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는 느린도시 방향으로 갈 때 정부예산 뿐만 아니라 사회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장(사진)은 5월 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개최한 5월 미래복지포럼에서 정부예산에 대한 불교계 활용 자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 고경환 연구실장은 "불교색채를 반영해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는 '느린도시'(slow city) 컨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실장이 주장한 '느린도시'는 경쟁사회의 이면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자연생태 △전통문화 △슬로푸드 △공예품 △지역소통의 관점에서 마음의 고향을 제공한다는 공동체 운동이다. 이미 전남 신안 · 완도 · 장흥 · 담양 4개 군이 '느린도시'를 도입 중이다.

고 연구실장은 "이런 사업의 성공은 불교계가 가진 자원을 외부자원과 어떻게 결합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며 "2012여수엑스포,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불교계가 휴식과 전통, 역사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연구실장은 △보육 · 가족 △아동 ·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자리 △소득보장 △복지전달체계 △민간자원 △교육복지 △근로자복지 △주거복지 △에너지 △문화체육복지 △농어촌복지 등 13개 분야에 걸친 정부 담당부처의 방침과 예산 책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고 연구실장은 "실례로 저소득층에 관련해 문광부에서 스포츠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교복지기관 등이 저소득층 보살핌에 정부의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불교계 수탁운영 기관 및 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해 정부 방침 및 예산 배정에 대한 열띤 관심을 보였다.

노덕현 기자

젊은 불자양성에 힘 쏟겠다

대불총, 5월 12~13일 봄철수련대회에서 3대 사업발표

대불련총동문회(회장 윤제철)가 불교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불자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대불총은 5월 12~13일 봄철수련대회를 맞아 젊은 불자육성을 위해 ▷장학지원사업 ▷군포교 지원사업 ▷불교체험 지원사업 등 3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불총은 앞으로 불심이 깊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1명을 선정해 대학졸업까지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졸업을 앞둔 대불련 학생들에게 진로상담과 취업알선 등 후견사업을 전개한다.

군포교 지원사업은 매년 1~2개 개축불사를 비롯해 군법회 행사 지원, 시설 지원, 군장병 교육 및 상담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불교체험 지원사업을 통해 중 · 고등학교 학생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불총은 인송중학교, 인천기계공고 등 5개 학교 학생들에게 템플스테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불총은 장학사업단장에 전명철 한국자동차산업교육원 대표이사, 군포교지원사업단 단장에 유선재 알엔씨 사업본부장, 불교체험지원사업단에 한기성 인천기계공고 교장을 임명했다.

이은정 기자

노인영화감독에 300만원 지원

2012 서울노인영화제 영상공모 및 제작지원사업 밝혀

노인감독들이 활발한 영상제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적 · 인적 자원이 지원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은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2012 서울노인영화제' 사업설명회를 열고 "노인영화를 제작하는 60세 이상 노인감독에게 영상제작전문가를 연결하는 멘토링 지원과 제작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상금규모도 7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액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KB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영화 연출 경험이 있는 노인감독들을 대상으로 영화제작의 각 단계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작품제작의 성공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감독은 최대 300만원까지 제작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영상제작전문가의 멘토링 지원을 비롯해 촬영 장비에 대한 물품 지원 및 편집, 녹음, 자막 등을 위한 물품지원을 받게 된다.

영상제작활동의 물적 · 인적자원을 지원받기 희망하는 감독은 영화제작계획서를 작성해 제작지원신청서(http://sistiff.tstory.com)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력서 등과 함께 8월 1~14일 기간에 제출하면 된다. (02) 6911-9551

이나은 기자

예비 예술인을 위한 축제의 장

5월 18일 제36회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

미래 예술가들의 문화축제가 선운사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선운사(주지 법만)는 '제36회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를 5월 18일 선운사 경내에서 펼친다.

이번 행사는 유치부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며, 문화예술부문과 민속체험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문화예술부문에는 백일장, 미술, 만담설화, 타악, 무용 등이 진행되며, 민속체험부분에는 제기차기, 투호, 긴줄넘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학부모 윷놀이, 탁본, 향토문화알기, 도예(자기 만들기), 전통매듭 만들기, 호패 만들기, 가훈쓰기 등이 펼쳐진다.

송영래 고창문화원장은 "이번 행사는 나라의 꽃이요 희망인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민속문화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예술을 익히게 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는 1977년 예비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500여 명이 참가해 지역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참 회 문

백양사는 일찍이 만암 대종사께서 고불총림의 깃발(1947년)을 내건 도량입니다. 이처럼 청정한 승풍을 진작시키고 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이어온 백양사에 금기하여야 할 뜻밖의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백양사 일부 재적승들이 방장스님의 49재를 앞두고 종단과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를 깊이 엎드려 참회합니다.

그동안 백양사는 대중이 화합하지 못하고 총림구성원들 간에 심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또 다시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 무어라 참회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참담한 심정 금할길 없습니다. 산중불화의 이면에는 몇몇 승려들이 백양사를 장악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입적을 눈앞에 둔 수산 방장스님 명의 문서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방장스님이 남기신 것처럼 조작 날조한 문서는 일찍이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으로 종도들의 귀와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에 앞서 지난 2010년에는 백양사 고불총림 해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야기한 고불총림 해체사건은 백양사 위상추락과 불화와 비법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일련들의 사건들을 참회하면서 화합하고 백양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총림의 위상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정상화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작 날조된 문서파동에 무관한 산중대중과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림대중들은 수행과 전법등 본분사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기가 태산을 짊어지는 감이 없지 않으나 불은 · 법은 · 사은(佛恩 · 法恩 · 寺恩)이 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염두에 새겨지고 피부 껍질에 침투되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한다고 어찌 만분의 일인들 보답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백양사 총림대중은 각자 처해진 자리에서 주체적으로 모두가 화합 협심하여 총림의 승풍 승행을 바로 세워 나가면서 총림대중 모두가 저 백공천창(百孔千瘡)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백양사 현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불교와 승단의 흥망성쇠에 관해 설시한 7불쇠퇴법(七不衰退法)을 상기하게 합니다. 동법 제1 · 2를 요약하면, "자주 모여서 의논하되 화합해서 모이고 화합해서 행동하면 승단(교단)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안 쇠망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동 3 · 4에서는, "새로운 것을 제정하지 말고 이미 제정된 것을 버리지 말 것이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장로를 승단의 아버지와 스승같이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따른다면 불교와 승단은 쇠망하지 않는다."고 교계하셨습니다.

백양사 총림대중들이 부처님의 이상과 같은 유훈과 산중장로들의 뜻을 받들어 수행과 전법등 수행자의 본분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화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벌어진 사건을 백양사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다짐합니다.

불기 2556년 5월 10일

고불총림 백양사 대중 일동 · 고불총림 원로회의 위원 일동 · 고불총림 백양사 말사주지 일동

“사회융합의 연등회 기능 강화돼야”

연등회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세미나서 한목소리

등 공양 · 자비 화합 정신살린 문화축제로
계층 차별없이 어울린 한국전통 불교문화
‘부처님 오신날’ 지구촌 축제장으로 가꾸자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제는 현대사회에 연등회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그 기능을 확산시켜나갈 때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연등회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에서 연등회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조계종과 한국민속학회(회장 홍윤식)가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연등회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기념세미나에서 홍윤식 한국민속학회 회장은 사회융합의 연등회 기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이날 ‘연등회 무형문화재 지정의 의의’ 기조발제에서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연등회에서는 나라의 번영과 개인의 행운을 기원하였는데 상하계층과 승속이 어울리도록 하는 점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연등회는 등공양의 불교전통문화와 함께 전 국민, 더 나아가 세계인들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는 한국전통문화”라며 “조선시대 국가적 행사에서 민간행사로 바뀐 연등회가 다시금 국가차원에서 관심받는 것은 사회갈등을 융합하는 연등회의 선기능이 주목받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011년 연등회 연등축제 대동한마당에서 한마음으로 어우러진 세계인들이 환히 웃고 있다.


홍윤식 회장

홍 회장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축제의 문화가 없었다. 한국 대표축제로 연등회를 육성해야 한다”며 연등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홍 회장은 끝으로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참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자비문화와 융화 · 소통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보다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우리 사회는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다”며 “오늘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연등회가 지닌 자비 · 화합의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형우 안양대 교수도 이어 진행된 ‘연등회의역사적 전개와 전통’ 발표에서 홍윤식 회장의 주장에 동조했다.

김 교수는 “신라 · 고려시대 연등회는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종합적 종교행사이자 거대한 문화축제였다”며 “개인적인 환희심을 내게 하는 종교행사 기능, 참여대중에게 일체감을 부여하는 국가행사 기능, 춤과 노래 공연의 지속이란 전통문화 계승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등회는 한 사회가 안정적 분위기 속에서 전통문화를 지켜나가게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사회발전의 저해요소에 대한 유용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 현대의 과제”라고 밝혔다.

제2발제 ‘근대 이후 연등회’ 발표에서 박진태 대구대 교수는 “연등회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본 초파일 축제 영향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다.

박 교수는 “20세기에 들어서서 민간관등놀이가 위축되며 사찰의 ‘연등-시련-관불’이 사찰 밖으로 나와 대중과 소통하게 됐다”며 “전통적인 승려의 시련에 학생의 제등행렬이 결합되고, 이러한 전통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연등회 근대사를 살폈다.

박 교수는 “관불식의 장소도 1928년부터 사찰을 벗어나 공공장소로 바뀌어 민간축제로 변모했다. 수많은 변화에도 연등회의 본 성격은 ‘연등공양과 관등’으로 이는 국가기관이나 일본의 강제동원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일각의 일본 초파일축제인 ‘화제’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며 “1928년 일본인 화제와 연합되기 이전인 1924년 지방사찰연등회에서 학생의 제등행렬이 행해졌으며, 1909년까지도 제등행렬의 기원을 소급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제 이후 최인학 인하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임장혁 중앙대 교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 전경욱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성질 급한 리더들 달마를 따르라”

김보경 경북대 교수, 밝은사람들硏 워크샵서 주장 눈길

달마 대사는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에서 보원행(報怨行; 과보를 푸는 행), 수연행(隨緣行; 인연에 따르는 행), 무소구행(無所求行; 구하는 바가 없는 행), 칭법행(稱法行; 법에 계합된 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설명했다. 달마 대사의 이입사행론을 행동치유법에 적용한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과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가 5월 11~12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자비원에서 공동개최한 불교상담워크숍에서는 김보경 경북대 명예교수가 이입사행론을 상담심리학 관점에서 연구 개발한 ‘성질 급한 Type A CEO를 위한 달마훈련’ 프로그램이 강의와 함께 시연됐다.

김 교수는 “전문직이나 관리직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행동특성인 ‘Type A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동맥경화증과 같은 순환기계통장애에 취약하다”며 치유방법으로 달마 스님의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을 수행할 것을 권했다.

김 교수가 구분한 ‘Type A 행동’은 강력한 성취욕에 의해 항상 시간과 경쟁하고 남을 믿지 못하고 쉽게 분노와 적대감을 나타내는 행동을 뜻한다.

김 교수는 “이입(理入)으로서의 벽관(壁觀)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Type A 행동에서 오게 되는 스트레스와 긴장 그리고 불안감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며 “아울러 집중력과 창의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정심’이라고 말했다. “억지로는 먹을 수도 없고, 억지로는 잠을 잘 수도 없다. 공부를 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조율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Type A 행동을 가진 리더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주의집중에 직결된 ‘정’과 ‘혜’”라며 “일의 결과에 관심을 두기보다 과정 자체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불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인간의 운명을 인간의 손 안에 맡겨두고 있다는 점”이라며 “행동이론과 불교교리의 만남이 현대인이 처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덕현 기자

달마 이입사행론 → 타입A 치유

1. 오리엔테이션 (스트레스 일지 활용)
2. 수식관 훈련 (고른숨쉬기)
3. 벽관훈련 (이완과 스트레스 통제)
4. 인지 재구조화 (내적대화로 생리반응 제어)
5. 평상심 통한 자기 치유

학술 · 문화재소식

학술원 우수도서에 불서 10종 선정

인문학 분야 8종… 한국학 분야 2종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상주)이 선정한 2012년도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에 불교관련 학술서적 10종이 포함됐다.

선정목록에 따르면 인문학 분야는 △중론주석서 쁘라산나빠다 1~4 (찬드라키르티 저, 김정근 역, 푸른가람) △불교미술사상사론 (자현 스님 저, 도서출판 운주사) △선불교에 대한 철학적 명상 (데일라이트 저, 윤원철 역, 도서출판 지식과 교양) △승랑-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김성철 저, (주)지식산업사) △대혜보각선사어록 1~6, (대혜종고 저, 김태완 역, 소명출판) △보성론 (견해보살 저, 안성두 역, 소명출판) △추파집 추파수간 (추파홍유 저, 하혜정 역, 동국대출판부) △동아시아 불교교류사 연구 (조영록 저, 동국대출판부) 등 8종이다. 또 한국학 분야는 △고려의 불교와 상도 개경 (김창현 저, (주)신서원) △몽산법어언해 (장윤희 저, 채륜) 등 2종이다.

한편, 대한민국학술원이 선정한 2012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는 총 302종(인문학 85종, 사회과학 110종, 한국학 50종, 자연과학 57종)이며 선정된 도서들은 각각 1500만원 규모로 대학도서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 임종의례’ 학술대상 차지

박혜원 연구사, 제6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국립중앙박물관회(회장 김정태)가 5월 8일 주최한 제6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고려시대 아미타내영도와 임종의례의 관련성 시론’ 논문을 발표한 박혜원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대상(천마상, 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이 밖에 금관상(상금 500만원)에 ‘백제정림사식가람배치의 전개와 일본의 초기사원 역사’ 논문을 발표한 이병호 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과 ‘백제 은화관식의 제작방식에 대한 일검토 보존’ 논문을 발표한 최기은 공주박물관 별정7급 연구원을 선정했다.

은관상(상금 200만원)은 ‘선리 명문와 고찰’ 논문의 김규동 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 성재현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문효세자보양청계병-1784년 문효’의 민길홍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에게 돌아갔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수원 화성 규제완화 제동

수원 용주사(주지 정호) 등이 반대하는 수원 화성 일원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수원시가 지난 3월 요청한 화성 일원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요청을,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5월 9일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보완제출 결정으로 수원시 규제완화 요청 건은 4월 18일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수원시가 수원화성 일원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이에 필요한 논리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특히 시뮬레이션 자료의 일부만 등고선으로 표시되는 등 자료전체가 부실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 “세계문화유산이 지정된 곳 가운데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요구한 곳은 수원 밖에 없다”며 “세계문화유산지구에서의 건축물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3월 수원화성 주변 건축물의 현상변경 허용기준(높이)을 현행 12개 구역 8~47m에서 9개 구역 9~80m로 완화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수원화성의 길이가 5.7㎞에 달해 구도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건축물 높이제한은 수원화성 500m 이내에서 적용되고 있다. 시는 상업지역은 40~80m, 주거지역은 4층(제1종 주거지역)과 18층(제2종 주거지역)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 용주사와 수원지역 환경 · 문화단체들은 2007년부터 수원 화성 일대에서 시작된 LH공사 융건릉 아파트 건축을 비롯한 재개발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6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6월 5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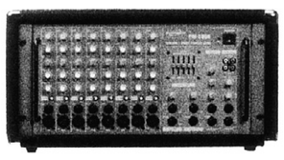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일반형)
◇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사회봉사와 조직 정비에 앞장설터

제주 분다클럽, 5월 10일 창립20주년 기원법회

"스님만의 고정적인 관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사불자이며, 이것이 곧 분다클럽입니다."

제주지역 재가불자모임인 분다클럽(총회장 송원식)이 지난 5월 10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창립20주년 기념 나라와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성효 스님(제주 관음사 주지), 법담 스님(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혜공스님(성거사 주지), 우근민 제주지사, 오충진 의장(제주의회), 송원식 총회장과 역대 총회장을 비롯해 500여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올해의 분다대상, 신입회원패 전달식 등을 봉행했다.

분다클럽은 제주지역의 사회지도층 거사불자 108명을 시작으로 지난 1991년 창립해, 사찰직능별로 7개 자회(백록, 영주, 한라, 천지, 탐라, 반야, 정방)를 거느리고, 전체회원 700여 명(거사회원 350명, 부인회원 35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주지역 최대의 신행조직이다.

성효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제주도의 세계화로 모든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김없이 치유되고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하다"고 말했다.

법어에 앞서 송원식 총회장은 봉행사를 통해 "나라와 도민의 안녕이 곧 자신의 행복이고 나를 존재하게 한다"며, 최근 인터넷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에 대

1991년 사회지도층 108명이 창립
7개 자회에 회원수 7백명 급 성장

해 "바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터넷 공간을 지혜로운 열린 소통 공간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20회 분다 대상 수상자는 ▷돌하르방 물허벅 여인상을 만드는 제주민예품 명장 장공익 옹 ▷어려운 환경에서도 치매 노부모를 지극히 봉양한 안정례 불자 ▷자비나눔 봉사활동을 펼친 해륜사바라밀봉사단에게 주어졌다. 이어 20여 명의 신입회원에게 배지와 신입회원패를 전달했다.


분다클럽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5월 10일 제주그랜드호텔서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분다클럽 회원들이 불교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한편 분다클럽은 매년 분다 대상 수여 외에도 ▷자원봉사 센터 협약 봉사 ▷매월 아라복지회관 점심공양봉사 ▷군장병 위문행사 ▷자회교류법회 ▷한마음가족체육대회 ▷분다동산 가꾸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7개 자회 또한 사회봉사활동과 조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분다클럽 관계자는 "향후 노인불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단순히 요양원 수준이 아니라, 사후 장례와 49재, 묘지안장까지 할 수 있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팔작 전통지붕 대웅전 건립

여수 향일암 낙성식 봉행



지난 2009년 화재로 소실된 전남 여수 향일암이 새롭게 복원됐다.

향일암(주지 원문)은 지난 5월 6일 대웅전 낙성식을 갖고 화재로 소실되었던 대웅전과 삼존불상, 종각 등 복원불사를 완료했다. 이날 낙성식으로 2012여수엑스포에 맞춰 많은 관람객들이 향일암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공된 대웅전은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외5포 내7포의 팔작지붕 전통양식으로 건립했다. 건물 외포에 십이지신과 거북이 모양 조각이 이채롭다.

한편 이날 대웅전 외에도 종각과 여수박람회 템플스테이로 활용할 96.12㎡ 규모의 수행관도 준공됐다.

원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향일암을 전국 제일기도도량으로 만들어나가겠다"며,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 한국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적은 서로 달라도 우리는 한마음

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주노동자 어울림한마당 개최

전국 스리랑카 이주민 불자들이 광주에 모였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대표 이주성)는 5월 6일 광주 광산구 평동공원에서 '전국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스리랑카 이주민 노동자 1000여명이 참가했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각지에서 모인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이날 광주지역 불교계가 마련한 선물과 놀이한마당을 즐겼다.


'전국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어울림 한마당'에 참가한 1000여 이주민 노동자들은 다채로운 경기와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오전 9시 스리랑카 전통의식에 이어 1부 어울림 경기(크리켓, 코끼리 게임 등), 2부 기념행사, 3부 어울림 경기(구기종목, 스리랑카 전래놀이), 4부 스리랑카 가수 초청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4월이면 스리랑카에서는 전통 설날인 '알룻아루르뜨' 축제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스리랑카의 설날을 맞아 고따부르(명절에 배개로 노는 전래놀이)를 비롯한 20여 가지의 스리랑카 전래놀이가 이어져, 고국에서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이주성 대표는 "우리도 힘든 시기에 타국에 나가 돈을 벌어야하는 시기가 있었다. 지금 이주노동자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형제들이며,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는 것이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자비의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불교승보회, 광주광역시, 비전사, 광주전남전법단의 후원과 광주불교NGO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힘을 보탰다.

스리랑카 출신 수따마 스님(광주 길상사)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스리랑카 식구들에게 큰 희망과 즐거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서툰 한국말로 전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과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가스렌지, 전자렌지, 밥솥, 믹서기 등 중요한 생활용품이 지급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출입국에 대한 상담과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 마련한 컵 연꽃등 만들기, 이·미용 봉사,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홍보, 건강검진 등 다양한 부스에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 중흥에 범어사가 앞장설 터

5월 7일 수불 스님 취임

범어사 주지 진산식(晉山式·취임법회)이 5월 7일 대웅전 앞에서 봉행됐다. 지난달 신임 주지로 선출된 수불 스님의 진산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인 정관 스님, 명선 스님, 인환 스님, 지성 스님 등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범어사 전계대화상 흥교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등 각계 인사와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 및 신도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한 수불 스님이 범어사 주지로 취임하게 된 것은 경허 스님과 동산 스님의 수행을 가풍으로 삼아 모범을 세워온 선찰대본산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라는 시대적 요구"라며 "앞으로 범어사가 부산 불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은 취임사에서 "범어사는 근대 한국 불교의 부침의 본향이며, 한국 최대 불교도시의 중심부"라며 "범어사가 부산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루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지역소식

대구 대불청 찬불가 경연 대회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제2회 어린이 찬불율동·찬불가 경연대회가 5월 6일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2회째 열렸다.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지구장 권미아)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12개팀이 참가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대구경북전법단장 허주 스님, 한국불교대 대관음사 주지 밀허 스님, 법화종 대구교구 총무국장 일우스님, 대구시의회 정순천 건설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 대상은 보성선원(주지 한북스님) 어린이 법회팀이, 최우수상은 은적사 룸비니유치원 팀이 각각 차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국대 경주캠퍼스 점등식 봉행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5월 4일 교내 녹야원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직원과 학생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종 동국대경주캠퍼스 총장은 "연등의 불을 밝히는 것은 안으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밖으로는 고난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며 "어리석음과 고난을 타파해 행복한 부처님의 나라로 나아가자"라며 봉축사를 전했다. 한편, 경주 동국대는 5월 24일 '형산강 연등축제' 5월 28일에는 정각원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불총, 봉축 탑 점등식 개최

대구불교총연합회(회장 성문, 이하 대불총)는 5월 5일 중구 국채보상공원에서 달구벌 삼층 관등탑 점등식을 갖고 부처님 오신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봉축탑은 가로 세로 각각 6m와 높이 12m 크기로 전체가 한지로 제작됐다. 대불총 회장 성문 스님(동화사 주지)은 "우리 모두가 개인의 욕망과 성취가 아닌 중생과 사회의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자비의 연등을 밝히자"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대구종무원장 청운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혜명정사, 대구시 단체장 등 사부대중 5백 여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매주 두차례 무료급식 운영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가 5월 2일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을 개원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법혜스님과 이재근 선재마을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테이프컷팅-현판식-후원약정식 순으로 개원법회를 봉행됐다.

5억 6천만원 규모로 조성된 자비의 집은 자원봉사자 11개 팀 150명이 참여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조계종 통합 종단 50년 내일을 위한 핵심과제 7

〈5〉종무행정

교구 자치제 찬반… "시대 흐름" "혼란 우려"

모든 사회는 유사 이래 행정이라는 체재 아래에서 발전해왔다. 조계종 역시 일제와 근대기를 거쳐 1962년 통합종단까지 다양한 행정 체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지금도 이러한 행정적 변화는 논의 중이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7가지 핵심과제 가운데 종무행정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자신의 책 〈종무행정론〉에서 종무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을 이 같이 정의한다.

'종무행정은 일반 행정과 같은 한정된 조직구분에 의한 편협한 목적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불법(佛法)으로 제도해 본래 모습을 깨닫도록 하는 차별 없는 중생제도를 위한 방편이다.' 중생제도를 위해 종무 행정의 효율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와 주장들은 조계종 내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행정 조직체계에 대한 논의는 조금씩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0월 포교원과 승가교육진흥위원회에서 수도권 포교와 지역교구 활성화에 대한 논의다. 올해 4월 25일에 열린 통합종단 50주년 기념세미나에서도 사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교구제도의 변화를 통한 사찰 관리체계 개선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조계종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시대가 변화하면 제도도 변해야 한다"며 먼저, 현행 교구의 문제점으로 △각 교구본사의 관할 구역 불균형 △관할범위 불분명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구종회 △주지 인선에서의 불협화음 △잦은 종무원 교체 등을 꼽았다.

스님은 "특히 교구 종회는 종법기구임에도 법적 정원조차 선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구 종회의 위상과 역할이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룡 교수는 "현재 조계종 종무행정의 많은 부분은 분권화가 됐다"며 "하지만 일제 강점기 31본산 이후 24교구본사 정비가 되면서 역사성 · 사세의 기준 없이 재편됐다.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구본사별 재정 격차와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하고 이는 교구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현재의 교구본사제도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출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영담스님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구 자치가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시대의 흐름은 지방화, 분권화가 대세이고 조계종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재산처분권을 포함한 중앙종무기관의 권한을 대폭 교구본사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구제와 사찰관리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중앙종무기관 권한 위임을 논하지 않는 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심 교수도 "조계종은 교구본사제로 발전해왔다. 앞으로는 '불교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교구제도 혁신이 이뤄져야한다"고 공감을 표하며 "중앙과 단위사찰 및 신도 간의 촉매제로서의 '교구거버넌스' 구축과 교구관할구역이 재확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행도량으로서의 본사와 종무행정서비스 업무를 책임하는 교구청으로 분리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지방분권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교수는 "재정권을 포함한 교구자치는 한국불교가 가져가야 할 장기적 과제"라면서도 "과연 '교구본사 자체 자정 능력이 있거나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의문이 든다. 중앙종무기관이든, 교구본사든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관리 감독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구 자치는 시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구를 분화시키는 것보다 행정 · 사세 등의 기준을 정해 통합 · 재편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 확보도 향후 조계종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 조계종은 2010년부터 상조, 생수 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적인 경영을 위해 주무부서도 총무원 재무부에서 (주)조계종출판사로 이첩됐다. 현재 (주)조계종출판사는 최근 법우당과 총판 업무제휴 협약을 맺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수익사업에 대해 조 교수는 "조계종이 수익사업을 하기 전 과연 이것이 불교의 이념과 맞는지 고찰해야 한다"며 "현재는 너무 기업체 방식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익금 역시 종단 목적사업만이 아닌 사회에 회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담스님은 "수익사업의 성과는 최소 3년 정도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밝히면서도 "종단 수익사업은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특히 조계종출판사는 좋은 불서를 발간해 문서포교를 하는 곳이지 달력이나 인쇄물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보시라는 아름다운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수익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신도들이 사찰과 종단을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게 하는 문화 조성도 필요하다. 재무구조가 변해야 종무행정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자질이 우수한 종무원도 선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수 종무원 양성도 종무 행정이 발전하기 위한 한 축이다. 종무원법은 종무원을 교역직과 일반직, 특수직, 잡무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무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어떤 복지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화는 아직 없다. 지난 11월 중앙종회에서도 사찰 종무원의 안정성과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당시 총무부는 "교구본사 행정직 종무원부터 4대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신분상의 안정성도 확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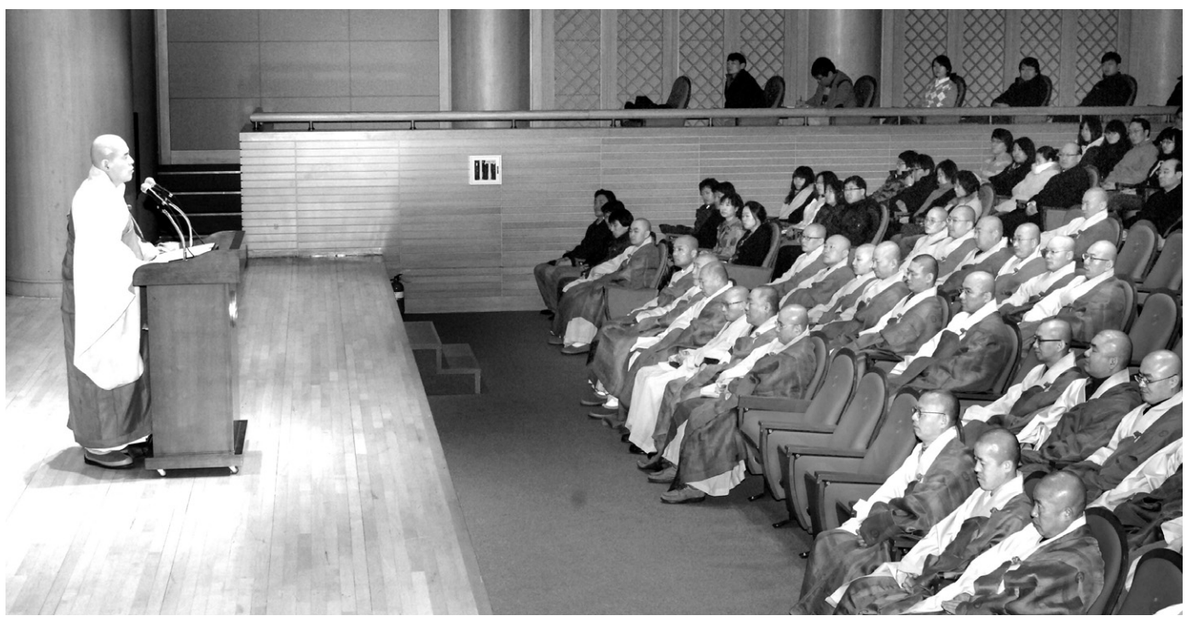
영담스님은 "우수 종무원 선발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문제는 재원이다. 결국 종무행정은 조직, 행정, 인사가 한 바퀴처럼 돌아가야 원할히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비구스님들이 바뀌어야 한다"며 "당대에 성과를 가지려 하지 말고 다음 세대가 그 성과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자질 있는 승려 양성을 주문했다. 우수한 스님들을 배출하면 자연적으로 포교가 되고 이는 재정 확충으로 이어진다. 재정 확대는 우수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승가교육 과정에 종무행정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이 거의 없다"며 "이론을 바탕으로 종무행정을 할 수 있어야 사찰을 여법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구조 변해야 종무 안정
기업체 방식 수익 사업 재고
교구 재편 논의도 필요
승가 종무행정 교육 해야



2010년 열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전체 회의 모습. 원할한 종무행정을 위해서는 조직 · 재무 · 인사의 삼박자가 함께 해야 한다.



영담 스님



심익섭 교수



조기룡 교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5회 불교도서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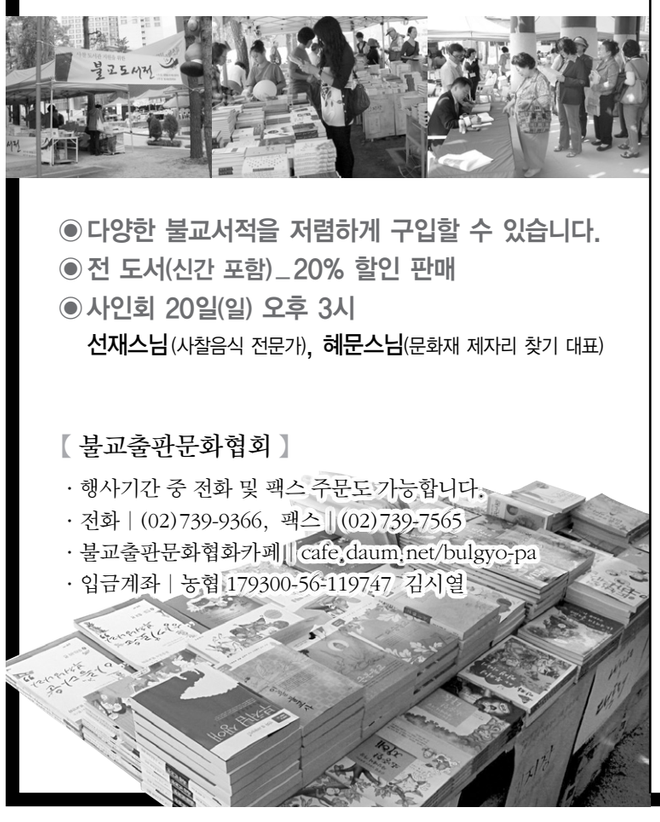
사찰도서관 지원을 위한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옆
날짜 | 5월 16일(수)~5월 20일(일) 5일간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주관 | 불교출판문화협회
후원 | 월간「불광」, 불교신문사,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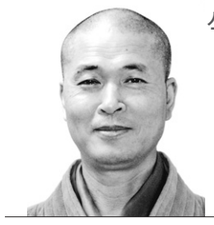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다양한 불교서적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 도서(신간 포함)_20% 할인 판매
◉사인회 20일(일) 오후 3시
선재스님(사찰음식 전문가), 혜문스님(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 불교출판문화협회 】
· 행사기간 중 전화 및 팩스 주문도 가능합니다.
· 전화 | (02)739-9366, 팩스 | (02)739-7565
· 불교출판문화협회카페 | cafe.daum.net/bulgyo-pa
· 입금계좌 | 농협 179300-56-119747 김시열



도서명 / 가격 / 저자 / 출판사

10분 해탈 / 12,000 / 정다스님 / 불광출판사
6 Ways to the Heart / 20,000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불광출판사
Diary of a Korean Zen Monk(선방일기 영문판) / 12,000 / 지허스님 / 불광출판사
GUIDE to korea buddhist TEMPLES / 7,000 / 편집부 / 조계종출판사
Korean Buddhism / 25,000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불광출판사
LA에서 온 편지 / 12,000 / 이원익 / 참글세상
Lotus Lantern Festival / 15,000 / 대한불교조계종행사기획단 / 불광출판사
가시채 금강경 / 5,000 / 무비 · 조현춘 / 운주사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대) / 7,500 / 석지현 / 민족사
가이산 호랑이를 만나다 / 9,800 / 법전외벽음 · 김양수그림 / 아름다운인연
가족 / 3,0000 / 법륜스님 / 정토출판
간경 수행 입문 / 9,000 / 조계종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간화선 입문 / 8,000 / 조계종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간화참선 / 20,000 / 월암 / 클리어마인드
감꽃마을 / 7,000 / 김정빈 / 동쪽나라
감성사전 / 9,000 / 이외수 / 민족사
갈림길이 삶게나 물처럼 바람처럼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게송으로 공부하는 재미있는 화엄경 / 14,000 / 반산 / 부다가야
결혼 뭐하러 하노? / 3,0000 / 법륜스님 / 정토출판
경전술길 / 24,000 / 정운련역 / 조계종출판사
계율과 불교윤리 / 15,000 / 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 10,000 / 이미령 / 불교시대사
고추참자리 / 6,000 / 편집부역음 / 조계종출판사
공감 / 12,000 / 스루디오돌지음 / 솔바람
공양 올리는 마음 / 13,000 / 혜총스님 / 불광출판사
과거현재인과경(큰 경전 9) / 10,000 / 혜원 / 민족사
관세음보살(내마음의작은책) / 6,500 / 김호성 / 민족사
관음경 사경 / 6,000 / 윤석우 붓글씨 / 운주사
광대와 화가 / 9,000 / 최거만글 · 박지배그림 / 조계종출판사
그대 품안에 있는 아셔 도둑부터 잡으시게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그대 살이 경전이다 / 15,000 / 무각스님 / 불광출판사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그대가 보살입니다 / 9,500 / 석암스님 / 우리출판사
그물코인생 그물코 사랑 / 15,000 / 도법스님 / 불광출판사
극락도 지옥도 마음속에 있다네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근본불교 / 9,600 / 김정빈글 최병용그림 / 솔바람
금강경 / 15,000 / 정화 / 법공양
금강경 사경 / 6,000 / 윤석우붓글씨 / 운주사
금강경 산상사설 / 10,000 / 우승택 / 장승
금강경 이야기(상) / 9,5000 / 법륜스님 / 정토출판
금강경(작은경전 8) / 4,000 / 정호영 / 민족사
금강경(큰 경전 4) / 7,000 / 정호영 / 민족사
금강경, 문수보살이 묻고 부처님이 답하시다 / 9,000 / 이수덕역 / 운주사
금강반야바라밀경 / 10,000 / 원순 / 법공양
금강반야바라밀경 사경(한문) / 2,500 / 편집부 / 정우서적
금강반야바라밀경잔론 / 18,000 / 강만성 · 장상욱 / 부다가야
기도·내려놓기 / 8,5000 / 법륜스님 / 정토출판
기도하는 즐거움 / 13,000 / 보경스님 / 불교시대사
기암집(한국불교전서 조선5) / 18,000 / 이상현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기억에 남는 명법문 / 12,000 / 성수스님외 / 불광출판사
김영로의 행복수업 / 13,800 / 김영로 / 불광출판사
깨달음 / 12,0000 / 법륜스님 / 정토출판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 12,000 / 최일스님 / 민족사
꽃의 웃음처럼 새의 눈물처럼 / 18,000 / 명성스님 / 불광출판사
꽃향기도 홀치지 말라 / 13,000 / 혜남스님 / 불광출판사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다 / 12,000 / 정학스님 / 불광출판사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만화) / 10,000 / 정수일 / 운주사
나를 알게주는 계율이야기 / 12,000 / 이자랑 / 불교시대사
나를 찾아가는 길 / 10,000 / 청운스님 / 불교시대사
나를 치유하는 마음여행 / 12,000 / 서광스님 / 불광출판사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 15,000 / 승한스님 / 불광출판사
나의 참존은 꽃잎계 죽는다 / 8,000 / 동국시인선 / 동국대학교출판부
날줄 원각경 / 13,800 / 우승택 / 불광출판사
남 절되게 하기 / 10,000 / 오심 / 부다가야
내 영혼의 소리 어버지 / 13,000 / 김윤옥 / 참글세상
내 인생의 멘토 붓다 / 18,000 / 이중석 / 불광출판사
내마음속대통령 / 15,000 / 노무현재단기록위원회 / 한겁음다
내안으로 떠나는 행복여행 / 12,000 / 대화스님 / 참글세상
노자 도덕경 그 선의 향기 / 15,000 / 심재원역주 / 정우서적
녹차와 채식 / 15,000 / 홍승스님 / 우리출판사
눈으로 먹는 절 음식 / 15,000 / 김연식 / 우리출판사
늘깨어있는삶을위하여 / 9,000 / 혜학 / 부다가야
능가경 역주 / 30,000 / 박건주 / 운주사
능가사자기 / 15,000 / 박건주 / 운주사
능엄경(큰 경전 5) / 12,000 / 김두재 / 민족사
다도의 철학 / 12,000 / 김수인 / 동국대학교출판부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 8,000 / 석법성 / 운주사
단팥하면 물어라 / 9,0000 / 법륜스님 / 정토출판
담엄소 / 13,000 / 문은정 / 한겁음다
당신은 부처님 / 9,000 / 무비스님 / 불광출판사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 12,000 / 월호스님 / 불광출판사
대반열반경(작은경전 10) / 4,500 / 강기희 / 민족사
대반열반경(큰 경전 12) / 8,500 / 강기희 / 민족사
대승기신론-1 / 22,000 / 정화 / 법공양
대승기신론-2 / 22,000 / 정화 / 법공양
대승기신론내의약입기(한국불교전서 신라3) / 15,000 / 박인석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대승불교 / 9,600 / 김정빈글최병용그림 / 솔바람
대장경, 천 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 20,000 / 오윤희 / 불광출판사
도 물을 것 없네 복밭이나 가꾸게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 12,000 / 양리브뷔넬지음 · 임희근옮김 / 솔바람
도정신치료입문 / 38,000 / 이동식 / 불광출판사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만해 한용운(만화) / 12,000 / 정수일 / 운주사
독송용 한문 법화경 / 18,000 / · / 운주사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 15,000 / 데이비드로이 / 불광출판사
돈오입도요문론 / 15,000 / 원순 / 법공양
돌장승이 허허웃게 웃누나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동아시아 선의 르네상스를 찾아서 / 18,000 / 정순 / 클리어마인드
되찾은 조선의 보물, 의궤 / 12,000 / 혜은스님 / 동국대학교출판부
두 번째 출가 / 10,000 / 현진스님 / 클리어마인드
들을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 / 13,000 / 목경찬글,사진 / 조계종출판사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 12,000 / 금강스님 / 불광출판사
레디컬 어센탄스 / 20,000 / 타라브랙 / 불광출판사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 20,000 / 미산외 / 운주사
마음공부 첫걸음 / 9,000 / 김명우 / 민족사
마음속 부처찾기 / 18,000 / 추정지음 · 지안감설 / 조계종출판사
마음에 타는 불 무엇으로 끄려는고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마음으로 듣는 부처님 말씀 / 11,800 / 홍사성 / 장승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 / 10,000 / 방경일글 · 김장열그림 / 솔바람
마음을 비우시게 온갖 근심 사라지네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마음을 주는 손 / 13,000 / 금담정관스님 / 우리출판사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 12,000 / 광덕스님 / 불광출판사
마음챙김 명상맨토링 / 15,000 / 김정호 / 불광출판사
마음치료 이야기 / 13,800 / 전현수 / 불광출판사
마음vs뇌 / 13,800 / 정현감 / 불광출판사
마지막 입는 옷에 주머니가 없네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만화 백유경 / 10,000 / 김정열 / 솔바람
망설일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 13,800 / 도법스님 / 불광출판사
맨발로 오신 부처님 / 12,000 / 임효림 / 조계종출판사
명쾌한 깨달음 / 15,000 / 백창우 / 운주사
모두가 지켜야 할 계율이야기 / 10,000 / 철우지음 / 조계종출판사
묘법연화경(법화경) / 15,000 / 이준석 / 동국역경원
묘법연화경(상)(작은경전 6) / 4,500 / 현해 / 민족사
묘법연화경(큰 경전 3) / 13,000 / 현해 / 민족사
묘법연화경(하)(작은경전 7) / 4,500 / 현해 / 민족사
무문관 / 12,000 / 조오현 / 불교시대사
무문관참구 / 22,000 / 장휘옥외 / 민족사
무비 스님의 신심명 강의 / 9,000 / 무비지음 / 조계종출판사
무비스님과 함께 불교공부 / 10,000 / 무비 / 민족사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 7,000 / 무비지음 / 조계종출판사
무비스님의 예불문 / 6,000 / 무비지음 / 조계종출판사
무비스님의 천수경 / 8,000 / 무비지음 / 조계종출판사
무상 / 8,000 / 계리스니어디 / 한민사
묵묵경전(작은경전 13) / 4,000 / 이중익외 / 민족사
묵묵경전(큰 경전 21) / 7,000 / 이중익 / 민족사
밀린다왕문경 1(큰 경전 17) / 12,000 / 동봉 / 민족사
밀린다왕문경 2(큰 경전 18) / 12,000 / 이미령 / 민족사
밀린다왕문경(하)(작은경전 14) / 4,000 / 서경수 / 민족사
바구니에 물을 담고 달려 가누나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바람이 지은 집 / 12,000 / 윤제학 / 우리출판사
반야심경 이야기 / 7,0000 / 법륜스님 / 정토출판
반야심경: 대승불교의 정수 / 13,000 / 현봉스님 / 불광출판사
발우에 핀 꽃 / 14,000 / 법정스님 / 동쪽나라
발원문108선집(개정증보) / 8,000 / 덕진 / 부다가야
백년도 못사는데 무얼 그리 탐내는가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백련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 15,000 / 선오 / 운주사
백장정토찬(한국불교전서 조선5) / 9,000 / 김종진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백유경(작은경전 9) / 4,000 / 현각 / 민족사
백유경(큰 경전 10) / 8,000 / 현각 / 민족사
백팔문답요전, 불교란 무엇인가 / 15,000 / 노우 / 운주사
버리고 사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일세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번뇌 리셋 / 13,800 / 코이케류노스케 / 불광출판사
범망경술기(한국불교전서 신라1) / 28,000 / 한명숙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범망경지장경(큰 경전 8) / 8,000 / 일지 / 민족사
법구경(작은경전 1) / 4,000 / 석지현 / 민족사
법구경(큰 경전 15) / 9,000 / 석지현 / 민족사
법성게 / 12,000 / 정화 / 법공양
법정, 나를 물들이다 / 15,000 / 변택주 / 불광출판사
법화경 상, 하 / 10,000 / 무비스님 / 불광출판사
법화삼부경(한글) / 20,000 / 성훈스님 / 우리출판사
벼슬도 재물도 물일에 이슬일세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벽암록 / 10,000 / 조오현 / 불교시대사
보현행원품강설 / 12,000 / 덕림 / 부다가야
본생경 1(큰 경전 19) / 12,000 / 이미령 / 민족사
본생경 2(큰 경전 20) / 9,500 / 이미령 / 민족사
본생경(작은경전 12) / 4,500 / 이미령 / 민족사
부도탑 기행(감성으로 가는) / 15,800 / 임연태 / 클리어마인드
부모은중경판음경외(큰 경전 11) / 7,000 / 일지 / 민족사
부처님 나라 개구쟁이들(동화) / 8,500 / 이봉직 / 운주사
부처님 생애 / 9,600 / 김정빈글 · 최병용그림 / 솔바람
부처님 전생이야기(만화) / 10,000 / 정수일 / 운주사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만화) / 9,000 / 정수일 / 운주사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12,800 / 원영스님 / 불광출판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 10,000 / 홍사성 / 장승
부처님의 생애 〈무선〉 / 12,000 / 조계종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부처님의 생애 〈양장본〉 / 24,000 / 조계종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부처님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만화) / 9,800 / 정수일 / 운주사
부처되기 쉽다네 자비롭게 살게나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불교 상세계 안내 / 12,000 / 불교상제계문화연구위 / 조계종출판사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하다 / 10,000 / 김호성 / 정우서적
불교경전 / 18,000 / 불교경전편찬위원회 / 우리출판사
불교경전(大)세트(1권-22권) / 216,000 / · / 민족사
불교문화1 / 14,000 / 김미숙 / 정우서적
불교문화2 / 16,000 / 김미숙 / 정우서적
불교문화와 민속 / 15,000 / 홍윤식 / 동국대학교출판부
불교문화와 상식 / 9,600 / 김정빈글 · 최병용그림 / 솔바람
불교미술의 해학 / 18,000 / 권중서 / 불광출판사
불교사회경제사상 / 20,000 / 박경준 / 동국대학교출판부
불교성전 / 14,000 / 불교성전편찬위원회 / 동국역경원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지명 사전 / 30,000 / 박호석편 / 불광출판사
불교영어 [초급1] / 16,000 / 조계종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 15,000 / 상이토나루아외 / 운주사
불교와의 만남 / 8,400 / 강건기 / 불지사
불교학계론강의실 교리편 / 9,000 / 정혜옥 / 장승
불교학개론강의실 입문편 / 9,000 / 정혜옥 / 장승
불성론 연구 / 18,000 / 최현민 / 운주사
붓다 브레인 / 18,000 / 릭핸슨외 / 불광출판사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 19,000 / 폴니터 / 클리어마인드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 9,800 / 민병직 / 운주사
붓다를 만난 사람들 / 9,800 / 성재헌지음 / 아름다운인연
붓다와 영상 / 12,000 / 임승택 / 민족사
붓다와 함께하는 노자의 행복여행 / 12,000 / 김용남 / 운주사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술 / 23,000 / 전경우 / 운주사
비유와 인연설화 / 8,000 / 법정스님 / 동국역경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네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사랑하는 사람 못만나 괴롭네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 10,800 / 고산스님외 / 불광출판사
사마천의 화식열전 / 12,000 / 우승택 / 참글세상
사성제 · 팔정도(내마음의작은책) / 6,500 / 이필원 / 민족사
사십구재(내마음의작은책) / 6,500 / 구미래 / 민족사
사찰 어느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 12,000 / 목경찬지음 / 조계종출판사
사찰의 삼정세계 1, 2 / 25,000 / 지현스님 / 불광출판사
사티유 쿠마르 / 7,000 / 사티유쿠마르 / 한민사
산사의 아름다운 법상 / 9,800 / 이경애지음 · 하지권사진 / 아름다운인연
산사의음악소리이기 / 18,000 / 보명 / 부다가야
산승불희 / 16,000 / 유철주 / 불광출판사
산하대지가사배움이다 / 10,000 / 도업 / 부다가야
삶은 아차피 불편한 것이다 / 13,000 / 현진스님 / 클리어마인드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 12,000 / 정화 / 법공양
삶의 진리를 깨달아 인간의 고통을 씻어준 붓다 / 8,500 / 데이 / 동쪽나라
삼밭사식행법해설 / 15,000 / 법안 · 우천 / 정우서적
삼천불명호경 / 13,000 / 편법부 / 운주사
상식으로 만나는 불교 / 9,000 / 계환스님 / 정우서적
새벽처럼깨어있으라 / 12,000 / 혜총 / 부다가야
생각나무 12,000원 / 12,000 / 스루디오돌지음 / 솔바람
생전예수재 / 4,000 / 조계종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생활명상(내마음의작은책) / 6,500 / 김남선 / 민족사
선가귀감 / 15,000 / 원순 / 법공양
선격(禪家) / 10,000 / 법광스님 / 한겁음다
선림보훈 주해 / 45,000 / 이동형 / 운주사
선문산답 / 8,500 / 조오현 / 장승
선문선답(상) / 12,000 / 최현각 / 한겁음다
선문선답(하) / 10,000 / 최현각 / 한겁음다
선문창외(언역본) / 28,000 / 이청교 / 민족사
선방일기 / 9,800 / 지허스님 / 불광출판사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 10,000 / 방경일글 · 김장열그림 / 솔바람
선생님의 마음 / 3,0000 / 법륜스님 / 정토출판
선어사전 / 23,000 / 혜원 / 운주사
선어입문 / 12,000 / 구스모토분유 / 클리어마인드
선요 / 13,000 / 원순 / 법공양
선재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 17,000 / 선재스님 / 불광출판사
선재와 선재야 / 13,000 / 문윤정 / 클리어마인드
선화상인 능엄선주 법문 / 12,000 / 선화상인 / 불광출판사
성철선사상 / 23,000 / 도대현 / 운주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 / 23,000 / 종범외 / 운주사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 9,000 / 월호 / 운주사
소설 탄허 / 12,000 / 백금남 / 동쪽나라
숫타니파타(작은경전 11) / 4,200 / 석지현 / 민족사
숫타니파타(큰 경전 16) / 10,000 / 석지현 / 민족사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 9,0000 / 법륜스님 / 정토출판
스님은 중매쟁이 / 12,000 / 혜철 / 운주사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 13,000 / 보경지음 / 조계종출판사
신 금강경강의 / 15,000 / 무비스님 / 불광출판사
신도교재 불교개론 / 10,000 / 조계종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신도교재(1) 불교입문 / 7,000 / 조계종포교원편저 / 조계종출판사
신도교재(2) 불교의 이해와 신행(2) / 9,000 / 조계종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신도교재(3) 불교사의 이해 / 9,000 / 조계종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신도교재(4) 불교문화 / 9,000 / 조계종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신도교재(5) 포교 이해론 / 15,000 / 조계종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신심명 증도가 / 10,000 / 일휴역주 / 정우서적
십우도(상)(문고판) / 5,000 / 백금남 / 동쪽나라
십우도(하)(문고판) / 5,000 / 백금남 / 동쪽나라
싯다르타의 꿈, 세상을 바꾸다 / 12,000 / 백승권 / 불광출판사
아난존자의 일기 1, 2 / 28,000 / 법려역 / 운주사
아름다운 부처님나라(우나나라편) / 8,500 / 윤승운 / 동쪽나라
아이타불(내마음의작은책) / 6,500 / 여여법사 / 민족사
아함경 1(큰 경전 13) / 9,000 / 돈연 / 민족사
아함경 2(큰 경전 14) / 9,000 / 돈연 / 민족사
아함경(작은경전 2) / 4,800 / 돈연 / 민족사
알기쉬운 반야심경 강설 / 법정 / 10,000원 / 운주사
야단법석 에레네킵 / 10,000 / 스투디오돌지음 / 솔바람
야부스님금강경 / 25,000 / 원순 / 법공양
얘들아, 절에 가자 / 9,000 / 홍지연지음 / 조계종출판사
엄마, 아빠 고마워요 / 8,000 / 양태석지음 · 안준석그림 / 조계종출판사
역사로 읽는 한국불교 / 10,000 / 김경집 / 정우서적
역주조선불교사(윤권sol) / 400,000 / 역주편찬위원회 / 동국대학교출판부
열반경1 / 15,000 / 이준석 / 동국역경원
열반경2 / 15,000 / 이준석 / 동국역경원
염불수행 입문 / 8,000 / 조계종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영어로 읽는 법구경 / 13,800 / 이병두 / 불교시대사
영원한 내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네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영원한 보석 / 9,500 / 김명희 / 우리출판사
오감만족 연등축제 / 12,000 / 대한불교조계종행사기획단 / 불광출판사
오늘도열경무늬를쓸면서 / 12,000 / 종원 / 부다가야
오늘의 마음날씨-원음 / 15,000 / 법륜스님 / 정토출판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이야기 / 10,000 / 과경 / 불광출판사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 10,000 / 과경 / 불광출판사
오세암의탑법 / 12,000 / 불국정진 / 부다가야
완역 티베트 시자의 서 / 15,000 / 중암역주 / 정우서적
완전한 깨달음(원각경) / 12,000 / 이혁열 / 민족사
왕오천축국전 / 13,800 / 지안스님 / 불광출판사
왕초보 경전박사되다 / 9,500 / 계환스님 / 민족사
왕초보 교리박사 되다 / 9,500 / 고명석 / 민족사
왕초보 금강경박사 되다 / 9,500 / 이제열 / 민족사
왕초보 반야심경박사 되다 / 9,500 / 김명우 / 민족사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 9,500 / 정승석 / 민족사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 9,500 / 윤청화외 / 민족사
왕초보 선박사 되다 / 11,500 / 윤찬화 / 민족사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 9,500 / 고명석 / 민족사
왕초보 육조단경박사 되다 / 9,500 / 김명호 / 민족사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 9,500 / 성법스님 / 민족사
왕초보 화엄경박사 되다 / 9,500 / 정법조 / 민족사
우리 겉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 13,000 / 방경일 / 운주사
우리말 법화경 사경(전5권) / 40,000 / 혜조역 / 운주사
우리말금강경 사경(우리말) / 2,500 / 편집부 / 정우서적
우리모두인연입니다 / 12,000 / 일아스님 / 민족사
우물에서 바다로 나간 개구리 / 5,0000 / 법륜스님 / 정토출판
운영을 뛰어넘는 길 / 9,000 / 원철 / 불광출판사
운영을바꾸는법 / 12,000 / 이기획 / 불광출판사
운봉선사심성론(한국불교전서 조선6) / 12,000 / 이종수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원각경 이가해 / 18,000 / 함정원역주 / 운주사
원감국사집(한국불교전서 고려2) / 25,000 / 이상현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원하고 행하니 이루어지더라 / 13,000 / 보경스님 / 불교시대사
월호스님의 천수경 강의 / 10,000 / 월호 / 운주사
위대한 여성 붓다, 아르야 따라의 길 / 15,000 / 중암편저 / 정우서적
위대한 평화의 심부름꾼 간디 / 8,500 / 데이 / 동쪽나라
위빠사나내마음의작은책) / 6,500 / 정준영 / 민족사
유마경(작은경전 5) / 4,500 / 박종길 / 민족사
유마경(큰 경전 2) / 9,500 / 박종길 / 민족사
유식30송 / 10,000 / 서광스님 / 불광출판사
유식불교의 이해 / 15,000 / 목경찬 / 불광출판사
유행경(부처님마지막말씀과대열반) / 15,000 / 중산/혜남 / 부다가야
육바라밀(내마음의작은책) / 6,500 / 성재헌 / 민족사
육조스님 금강경 / 20,000 / 원순 / 법공양
육조혜능의 금강경오가해 / 13,000 / 청운스님 / 불교시대사
이야기 미국불교사 / 30,000 / 릭맥조 / 운주사
이야기숲을거닐다 / 12,000 / 보경스님 / 민족사
이판사판 화엄경 / 10,000 / 성법스님 / 정우서적
인간붓다 / 14,5000 / 법륜스님 / 정토출판
인간학불교 / 7,000 / 정승석 / 정우서적
인물 불교사 / 9,600 / 김정빈글 · 최병용그림 / 솔바람
인생은 한 토막 꿈이로다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인생을 바꾸는 하루 명상 / 12,000 / 보경지음 / 조계종출판사
인왕경소(한국불교전서 신라1) / 35,000 / 백진순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일곱번의 작별인사 / 9,800 / 무비스님 / 불광출판사
일본묘해록(한국불교전서 조선4) / 10,000 / 김상현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일승법계도원통기(한국불교전서 고려1) / 12,000 / 최연식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일일시수행 / 13,000 / 사사키시즈카지음 · 원영옮김 / 아름다운인연
입보살행론(지복에이르는보살의길) / 13,000 / 산티데바 · 석혜능 / 부다가야
자비도량참법집해(한국불교전서 고려3) / 30,000 / 성재헌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자비의 샘 / 9,000 / 무루네고다피아타씨 / 불광출판사
자연을 닮은 사찰음식(충승스님의) / 15,000 / 충승스님 / 클리어마인드
자타카의 노래 / 10,000 / 김장글그림 / 솔바람
자현스님의불교문화로읽는다 / 13,000 / 자현스님 / 민족사
작법귀감(한국불교전서 조선1) / 18,000 / 김두재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작은 숲씨가 푸른 소나무 되네 / 10,000 / 윤청광 / 우리출판사
작은책(가슴을적시는부처님말씀) / 4,000 / 석지현 / 민족사
작은책(내마음을섬어주는부처님말씀) / 4,000 / 정휴 / 민족사
재미있는법화경(법화행자가읽는) / 25,000 / 반산 / 부다가야
전통사찰음식 / 15,000 / 적운스님 / 우리출판사
전통한지 / 18,000 / 전통한지협회 / 우리출판사
절수행입문(개정판) / 8,000 / 조계종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절집 길라잡이 / 13,000 / 김영숙 / 운주사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지금 즉시 깨어나라

조주 스님은 대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마중하지 않고, 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말했다.
"알겠습니까?" 대왕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저는 어릴 때 출가하여 지금은 완전히 늙어 버렸습니다. 손님을 보고도 선상에서 내려올 힘조차 없습니다."

師見大王入院不起 以手自拍膝云 會麼 大王云不會 師云 自小出家今已老 見人無力下禪床

사전에 아무런 행동이나 말도 없이 선사가 대뜸 "알겠는가?" 하고 묻는 이 질문은 상승 법문이다.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오묘한 도를 들어내 보인 것이며,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높은 단계로 이끄는 선지식의 상승 가르침이다. 납자들은 이 한 마디에서 다 털어내 버리고 모든 부처와 조사가 간 길을 가야 한다.

선사가 알겠는가하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바로 알고 '뜻이 너무 크다' 하고 말하거나, 혹 '나를 속이지 말라' 고 말하거나, 아니면 바로 박차고 나가버린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거나, 혹은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설사 내방자가 모른다 해도 선사가 '알겠습니까?' 하고 말했을 때 이미 도를 보인 것이므로 그가 국왕이라면 국왕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 된다.

조주선사는 110세의 노승이 되어 선상에서 내려가 왕을 영접하지 못하는 대신 상승 법문 '알겠습니까?' 를 선물하고, 곧이어 왕에게 예의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충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쇠방망이를 먹는 것과 같아."

問 如何是忠言 師云 喫鐵棒

지혜와 덕이 부족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어지럽다. 전생에 어쩌다 복을 약간 지은 것이 있는 자는 행동과 생각이 잘못되어도 한동안 승승장구한다. 왕은 그의 단점을 보지 못하고 가까이 둔다. 전생에 책을 읽거나, 수행만 열심히 한 자는 지혜는 갖추었지만 등용하지는 못한다.

지혜로운 자는 왕에게 나라의 일이 잘못되어간다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왕은 충언을 듣고 있는 것이 마치 쇠방망이를 삼키는 것과 같이 곤욕스러울 뿐이다. 충언에 응할 뜻이 전혀 없다. 충신은 뜻을 굽히지 않고 상소를 올리지만 소용없다. 어떤 경우는 왕이 분노하여 수없이 상소하는 충신에게 되레 벌을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나라는 곧 멸망하고 말았다. 왕이나 신하나 지혜와 덕, 이 둘을 다 겸비해야 한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다. 지혜나 덕 중에 한 가지만 갖추면 새가 한쪽 날개로 비상하려고 퍼덕이는 것과 같을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떤 것에도 마음이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사념하도록 해라."

問 從上至今不忘底人如何 師云 不可得繫心 常思念十方一切佛

선사들은 래방자에게 대뜸 말한다. "그대는 이미 부처이다. 더 이상 중생으로 살지 말고 붓다로 살아가라. 지금 즉시 깨어나라. 만물은 부처의 분신이다. 두두물물(頭頭物物)은 깨어나지 못하지만 그대는 깨어날 수 있다. 주변을 돌아보라. 그대가 만든 세상이다. 모든 법은 그대가 만든 법이다. 그대는 원래 부처이다. 그대는 원래 행복하다. 만물을 향유하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 불조(佛祖)도 넘어가서 천상천하에 홀로 우뚝 서라. 그대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분신이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말라."

불조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가르쳐주겠는가? 그러하니 지구상에서 오로지 불조만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 이다. 불조는 만대에 빛날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14〉

팔정도-⑥정정진(正精進)

올바른 노력은 근면과 용기 필수

'정진(精進)' 은 불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말이다. 특히 수험생이나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 정진에는 정신을 집중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간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즉 '목표를 향한 노력' 을 뜻하는 말이 된다.

하지만 그 목표가 사람을 해하는 악한 목표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노력도 올바르게 해야 한다.

팔정도의 여섯 번째 수행덕목인 정정진(正精進)은 올바른 노력을 뜻한다. 불교에서 올바른 노력에 의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정진에 태만이 있을 수 없다. 정정진 속에는 근면한 자세가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다. 또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각오를 필요로 한다. 정진의 산스크리트어 비야야마(vyāyāma)에는 노력이외에 경쟁, 투쟁, 고투 등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즉 정진에는 치열한 노력을 통해 목적을 쟁취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경쟁하고 투쟁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출가자가 수행에 매진할 때 용맹정진(勇猛精進)한다는 말을 쓰게 된 것이다. 마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적과 맞서 싸우는 각오로 수행에 임하는 자세를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진은 용기를 갖고 바르게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정진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지만, 일반 중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속세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정정진은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 건강적인 모든 면에서 선(善)을 증대시키고, 이에 반하는 악(惡)을 멸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을 가리킨다. 여기서 선과 악은 반드시 도덕적인 선악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치와 경제, 개인적으로는 몸의 건강 등에 관해서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은 선이며, 나쁜 작용을 하는 것은 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선악에 관해서 〈중아함경(中阿含經)〉 및 〈잡아함경(雜阿含經)〉 등에는 정정진을 사정근(四正勤)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정근은 네 가지 바른 노력으로, (1)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절대로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한다[律儀斷], (2) 이미 일어난 악은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斷斷], (3)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善)은 생겨나도록 노력한다[隨護斷], (4) 이미 일어난 선은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修斷] 등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이 사정근을 건강에 적용시키면, (1) 건강에 나쁜 과음 · 과식과 불규칙한 생활 등의 나쁜 습관이 아직 없다면 이후에도 이러한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배지 않도록 노력한다, (2) 건강에 해가 되는 나쁜 습관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물든 나쁜 습관을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3)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면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4)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 이미 있다면 이것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위와 같이 사정근을 건강에 적용시켜 지켜간다면 건강은 점차 증진해 장수를 누릴 것이다. 이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사부대중 모두가 정정진을 바탕으로 생활에 간다면 각자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정정진은 계(戒) · 정(定) · 혜(慧) 삼학(三學) 모두에 적용된다.

이처럼 정정진은 팔정도 중에서 몸소 하는 실천을 중요시 여기는 덕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근면과 용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사정근을 기반으로 선과 악을 정확히 판단한 후에 정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⑲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숫타니파타(經集)〉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는 명령법 문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절창(絶唱)이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역본(석지현 옮김, 〈숫타니파타〉, 민족사)에서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라고 되어 있지만, 흔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로 더욱 익숙해져 있다. 도대체 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일까? 코뿔소의 코 위에 나있는 외뿔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일까?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는 말이 등장하는 〈숫타니파타〉의 시편들은 모두 41수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단 한 수의 시만을 제외한 40수는 모두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라는 구절을 결구(結句)로 삼고 있다. 일종의 각운(脚韻)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40수 연속 동일한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음악성의 성취와 함께 메시지를 강화하는 시적 효과 역시 거두고 있다.

각운의 반복을 회피하는 시는 왜 그러한 예외를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일까? 그 예외적 게송인 45송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수긍하게 된다.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난다면 /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과 무리지어 함께 가거라." 그렇다. "그들과 무리지어 함께 가거라"는 말씀은 정히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는 말과 서로 상보적(相補的)으로 읽혀야 한다. 46송을 함께 읽어보자.

"그러나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나지 못하면 /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돌아가듯 /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그렇다. 이제 모든 의혹은 풀렸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회적 삶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지성적이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 그런 고상한 벗을 가까이 하라" (58송)고 말이다. 우리의 삶은 현명하고 고상한 벗의 인도가 없다면 결코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해야 하리라. 이런 벗을 우리는 일러서 '스승' 이라 하고, 일러서 '선지식' 이라 한다. 또 '길벗' 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한 벗을 만나는 것은 도를 닦음에 있어서 그 절반이 아니라 그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고상한 벗을, 나의 성장을 도와줄 벗을 만나지 못했을 때이다. 만났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같이 있게 되면 / 자연히 거기 말싸움과 다툼이 있게 된다."(49송) 그런데 너무 잘 맞으면 어떻게 될까?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 마음이 그들에게 얽히게 되면 / 자신이 목적한 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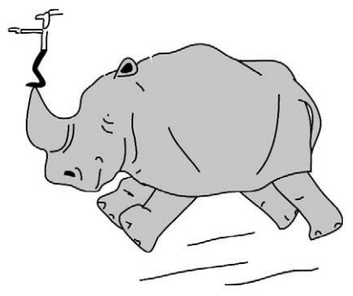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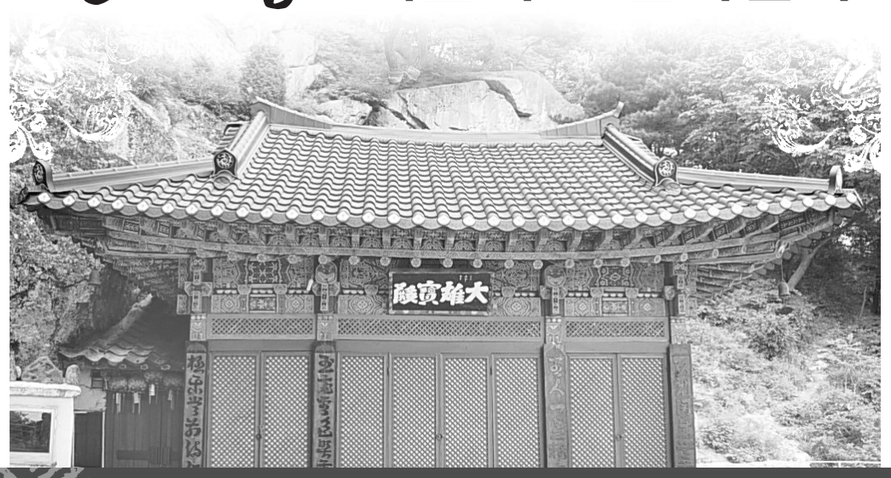
이룰 수 없(37송)게 된다. 그 어느 쪽이나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그럴 때 우리는 집착과 다툼을 모두 다 버리고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갈 수 있어야 한다' 는 말씀이다. '저 광야' 와 대비되어서 '코뿔소의 외뿔' 은 적적한 외로움의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혼자서라도 결코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반항자(反抗者)의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이제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는 이 말씀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상처입은 많은 가슴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외롭긴 하겠지…. 그러나 그 외로움을 직시하면서, 또 즐기는 데서 나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설법 · 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합반 :
(1) 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2) 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특 혜 :
(1) 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2) 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국민 011-24-0405-181 | 농협 217049-51-010252 예금주 : 김철회

무지개 다리는 가장 진보된 사찰 교각

무지개 다리(2)

무지개다리는 일명 홍예교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술력이 부족하였던 과거에는 가장 진보된 형식의 다리였다고 할 수 있다. 무지개다리는 상부하중이 홍예의 축선을 따라 전달되며, 다리의 하부에는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설계한 매우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다리이다. 이 다리는 만드는데 공이 많이 들었기 때문인지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선택된 공간에서나 볼 수 있어 꽤나 귀한 대접을 받는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무지개다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만든지 오래되었고, 작품성이 뛰어난 여러 개의 다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사찰의 무지개다리 가운데에서는 순천 선암사(仙巖寺)의 승선교(昇仙橋)가 대표적이다. 이 다리는 보물 제400호로 지정된 조선후기의 다리로 만든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리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이 다리에 서면 마치 속계에서 선계로 올라갈 수 있을 것만 같이 그 자태가 아름답다. 특히 홍예를 틀고 있는 반원이 물에 비친 반원과 합치되어 하나의 둥근 원을 이루는 원상(圓像)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불교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사찰의 다리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다 갖추고 있다. 승선교는 기저부에 별다른 시설물 없이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육중한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데, 다리의 길이가 14m, 높이가 7m, 너비가 3.5m로 다리를 만들 당시에는 그 규모가 작지 않은 다리였을 것이다. 다리의 디자인을 보면, 잘 다듬은 장대석(長臺石)을 종으로 1단씩 빈틈없이 밀집시켜 스스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홍예를 틀었는데, 홍예를 중심으로 아랫부분에는 큰 돌을 쌓아올리고 좌우의 계곡 기슭까지의 사이에는 둥글둥글한 냇돌을 사용하여 석벽을 쌓아 막았다. 홍예 한복판에는 용머리를 조각한 돌이 밑으로 삐죽 나와 있어 석축에 장식적 효과를 주는데, 사실은 벽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다른 사찰의 무지개다리에서도 볼 수 있다. 승선교 아래에 서면 홍예틀 사이로 누각이 하나 보이는데, 이 누각은 강선루(降仙樓)라는 이름을 가진 2층집으로 승선교와 의미적으로 소통하며, 승선교의 아름다움을 보태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웃하는 송광사에도 무지개다리가 있다. 송광사 무지개다리는 계류를 건너 대웅전이 있는 중심영역으로 이동하는 통로의 기능을 하는데, 이름은 삼청교(三淸橋) 혹은 능허교(凌虛橋)라고도 부른다. 이 다리는 19개의 네모난 돌을 짜 올려 홍예를 이루었으며, 양옆에는 다듬은 돌을 쌓아 올려 무개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홍예의 한 가운데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머리를 만들었는데, 구성기법이나 의미는 선암사의 승선교와 다르지 않다. 조선 숙종 33년(1707)에 이 다리를 만들었다고 하니 다리의 역사가 꽤나 장구한 편이다. 삼청교 위에는 우화각(羽化閣)이라 이름 붙여진 건물을 지어놓았다. 우화라는 말은 우화등선(羽化登仙)에서 따다 쓴 말로, 날개가 생겨 하늘로 날아올라 신선이 된다는 뜻인데, 불교적 세계와 신선의 세계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모양이다. 이 누각은 다리 위에 지어진 몇 되지 않는 건물 가운데 하나로 삼청교와 더불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9호로 지정되어 있다. 우화각은 특이하게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는 팔작지붕을 하고 있고, 나가는 쪽에서는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나가는 쪽에서는 옆 건물의 지붕과 닿아 지붕을 길게 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고안된 형식일 것이니 이러한 지혜 역시 사찰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적 해결방법일 것이다. 송광사 우화각 역시 물에 비치는 원상이 아름답기로 이름이 있는데, 원상이 물에 비치는 계담은 심미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불교적 상징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

여수 흥국사 들어가는 길에도 무지개다리가 있다. 이 무지개다리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무지개다리 가운데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다리이다. 다른 무지개다리와 마찬가지로 이 다리도 계류 양쪽 기슭의 바위에 기대어 돌을 쌓아 만들었으며, 다듬은 돌을 서로 맞추어 들어 올린 다리 밑은 무지개모양의 홍예를 이룬다. 홍예 옆에는 둥글둥글한 돌을 쌓아 올려 다리를 완성하였는데, 다른 무지개다리에 비해서는 다리가 길게 뻗어있어 시원한 느낌을 준다. 홍예의 한복판에는 양쪽으로 마룻돌이 튀어 나와, 그 끝에 용머리를 장식하였다. 조선 인조 17년(1639)에 만들어진 이 다리는 현재 보물 제 563호로 지정되어있다.

고성 건봉사에도 무지개다리가 있다. 이 다리는 이름하여 능파교(凌波橋)라고 하는데, 곡성 태안사의 능파교와 이름이 같다. 이 능파교는 대웅전영역과 극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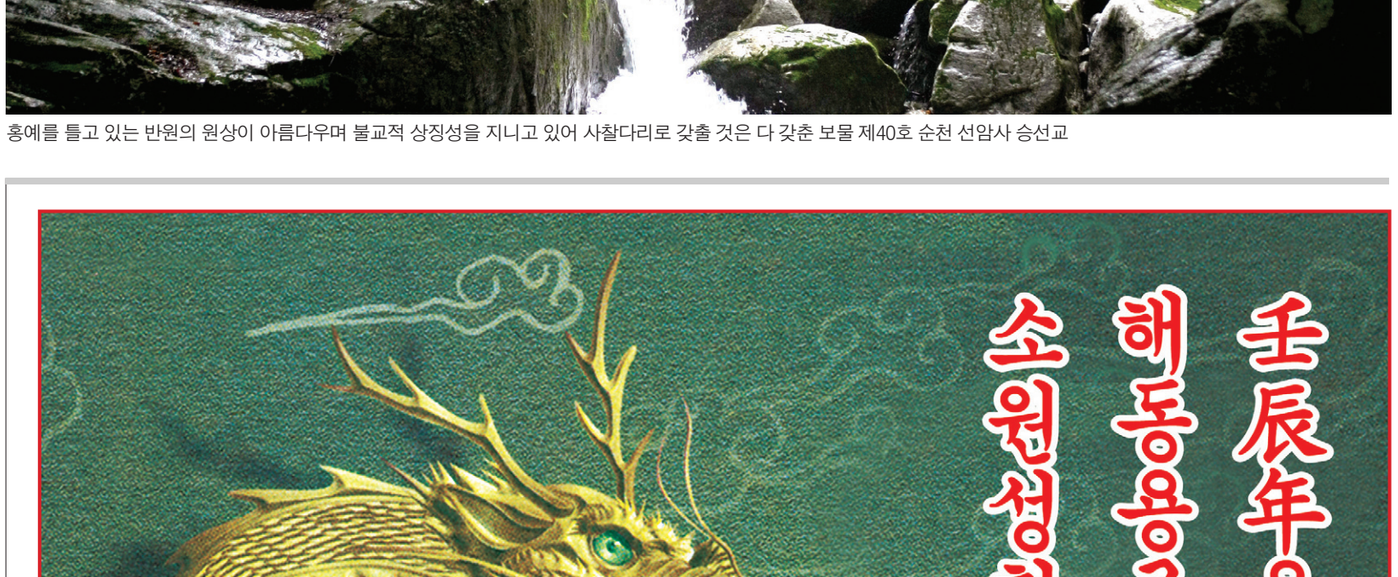
순천 선암사 승선교가 대표적 다리
송광사 우화각 물에 비친 원상 아름다워
흥국사 현존하는 가장 큰 무지개 다리
태안사 번뇌 넘어 불국토 가는 통로

전영역을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규모는 폭 3m, 길이 14.3m, 다리 중앙부의 높이는 5.4m이다. 다리의 한 가운데에는 다듬은 돌을 이어 맞춰 홍예를 틀고 그 좌우에는 장대석으로 쌓아서 다리를 구성하였다. 홍예는 하부 지름이 7.8m이고 높이는 기석의 하단에서 4.5m이다. 조선 숙종 34년(1708)에 건립된 경내 불이문 옆의 능파교신창기비(凌波橋新創記碑)에는 이 다리가 숙종 30년(1704)부터 숙종 33년(1707)사이에 처음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보물 제133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사찰의 무지개다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곡성 태안사에도 오래된 다리가 하나있다. 이 다리는 축조술이 뛰어난 홍예교도 아니고 장식성이 특별한 다리도 아니다. 단지 계곡 양쪽의 바위를 이용하여 돌축대를 쌓은 다음 그 위에 두 개의 큰 통나무를 받쳐 건물을 올렸는데, 산사에 어울리는 다리의 투박함과 건물의 수수함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특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든다. 다리 위에 지어진 건물의 이름은 능파(凌波)인데, 미인의 가볍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한다. 다리를 건너는 쪽에서 보면 이 건물은 앞면 1칸, 측면 3칸 집이며,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금강문으로서의 기능과 다리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이 건물은 번뇌의 파도를 넘어 부처님세계로 가는 통로인 것이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보이는 다리의 모습은 진정 이러한 상징성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현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82호로 지정되어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홍예를 틀고 있는 반원의 원상이 아름다우며 불교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사찰다리로 갖출 것은 다 갖춘 보물 제40호 순천 선암사 승선교



백양사 무지개다리



송광사 누다리인 청량각과 극락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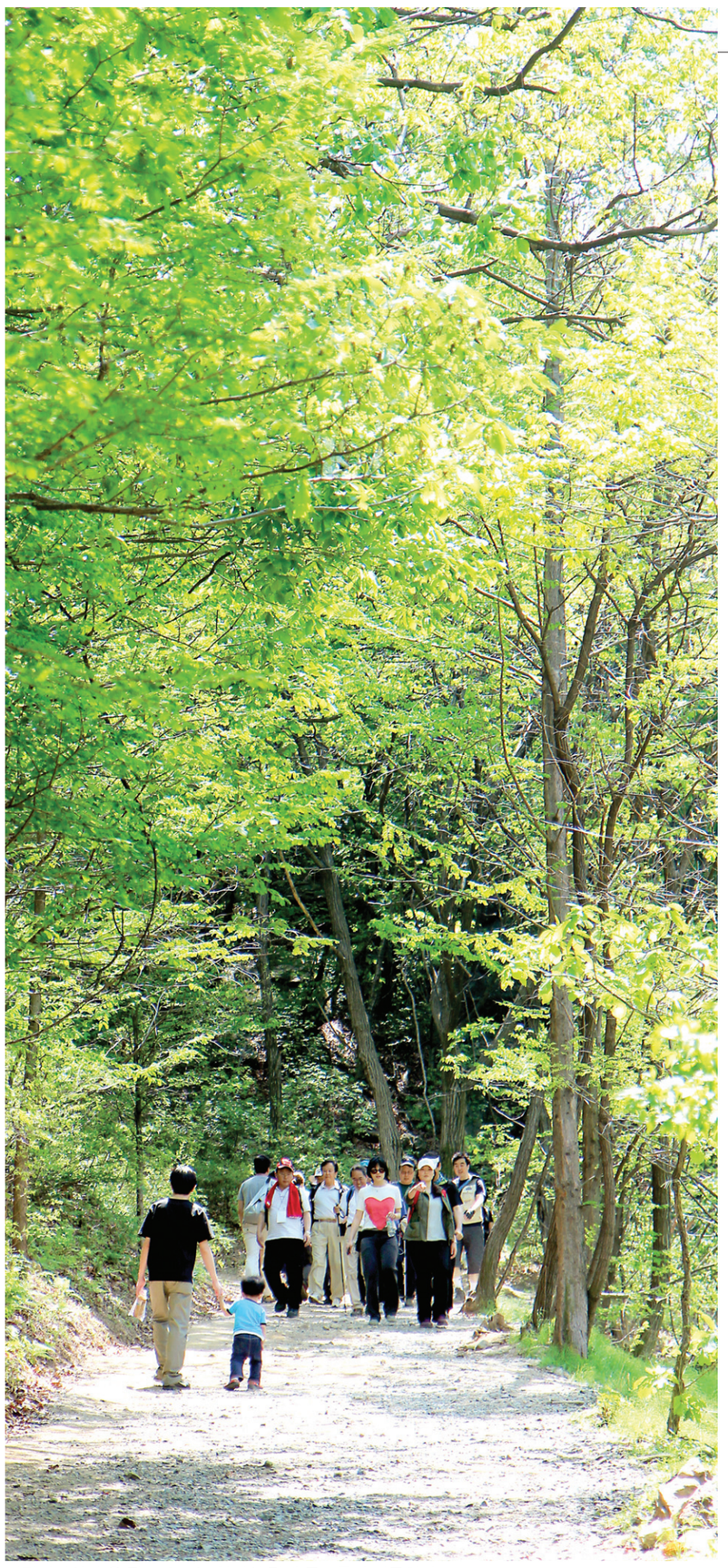


우리나라 누다리의 대표적 작품인 태안사 능파교



천은사 수홍루와 무지개다리

가족과 함께 5월의 푸르름을 마셔보자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오르는 청계산 길에 푸르름이 가득하다.

③ 청계산 청계사, 천개사, 정토사

산은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이다. 가정의달인 5월을 맞아 가족 · 연인과 함께 산 곳곳에 자리한 산사에 들려 시원한 약수도 한 모금 마시고 기도도 한다면 뜻 깊은 산행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족 단위로 가장 부담 없이 산을 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청계산(淸溪山)은 서울에서 지하철 등을 이용해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산 중 하나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청계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많았다.

해발 618m의 청계산은 예전에는 푸른 산이 산허리를 뚫고 나와 흰 구름을 헤치며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어 청룡산이라고 불렸다. 관악산과 더불어 서울을 지키는 좌청룡, 우백호로 알려진 명산이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 의왕시, 성남시 경계에 위치한 청계산은 높지 않은 정상과 이로 이어지는 완만한 산길이 다양하게 형성돼있으며 울창한 숲과 아늑한 계곡, 공원, 사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가족산행의 명소로 유명하다.

먼저 신분당선 청계산역과 양재동 진입도로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있는 서울 서초구 방면으로 청계산 탐방을 시작했다.

서초구 방면의 첫 관문은 원터마을이다. 자연부락인 원터마을의 현재 모습은 아웃도어 매장의 집결지다. K2, 밀레, 네파 등 수많은 아웃도어 브랜드 전문매장이 등산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원터마을 한편에는 비구니 수행사찰인 천개사(天開寺)가 있다. 230년 이상 수령을 가진 갈참나무와 굴참나무가 있는 청계산 쉼터에서 오른쪽을 보면 천개사 표지가 나온다. 수많은 옷가게들의 광고판 틈에서 대개는 못보고 지나치기 쉽다. 1996년 건립된 사찰 신흥사찰인 천개사에는 대형 약사여래대불이 눈길을 끈다. 진달래와 철쭉 꽃밭이 함께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형성하고 있다. 천개사 대웅전 옆 종무소 문을 두드리니 주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나와 차를 한잔 권했다.

"스님, 꽃과 푸른 나무들이 어우러져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청계산이 진달래로 유명한데 이미 졌을 시기라 조금 아쉽네요, 일찍 오시지"

사찰이 건립되기 전 청계산에서 40년 가까이 수행정진한 주지 계수 스님은 곱게도 늙으셨다.

다시 나온 천개사에서 길마재 정자를 거쳐 매봉으로 오르는 길 왼편에는 청계가 흐른다. 계곡 사이사이에는 소풍나온 가족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천개사를 끼고 원터마을로 내려가는 길에는 하얀 철쭉길이 펼쳐졌다. 진달래산으로 유명한 청계산에서 아직 지지 않은 꽃들이다.

다시 청계산 입구로 돌아갔다. 원터마을로 이어지는 양재동 진입도로를 계속 따라가면 태고종 관현사로 이어진다. 텃밭과 함께 고즈넉이 자리한 사찰이다. 관현사 옆으로 나있는 길은 숲길이 아닌 포장도로지만 옆으로 뻗은 청계산 자락을 따라 자전거 등을 이용한 나들이객들이 많다.

다시 성남방향으로 길을 내려가면 청계산 두 번째 입구인 옛골을 통과한다. 원터마을과 같이 아웃도어 매장과 함께 음식점들이 많다. 조금 더 가면 고속도로가 나온다. 그 밑을 통과하면 내곡동에서 다시 고등동으로 지역이름이 바뀌며 성남 정토사(淨土寺)가 찾는 이들을 반긴다. 정토사는 아미타불 극락정토도량이다. 1982년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과 신도들의 발원에 의해 개산한 도량이다. 정토사는 8월 열리는 연꽃 축제로 유명한 연꽃절이다. 정토사 앞마당에는 백련지와 홍련지가 조성돼 있어 여름이면 백련과 홍련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연잎으로 만든 연꽃 국수와 연향차도 맛 볼 수 있다. 연꽃이 만개할 때는 열리는 연꽃 축제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한다. 사찰 앞에 자리한 국수집에는 오찬으로 국수를 먹는 가족들이 많았다.

정토사에서는 봉오재, 이수봉, 절고개를 거쳐 청계사로 가는 능선길이 유명하다. 키 낮은 철문을 들어서면서 산행은 시작되고, 이수봉을 가리키는 푯말을 따라 어둔골이 나온다. 계단을 다 올라 능선 쉼터에는 한 무리의 오가는 산객들로 잠시 정체된다.

이수봉 정상 바로 앞에서 부대 철조망 갈림길을 만나지만 어디로 돌던지 짧은 거리를 돌아서면 한자리에서 만난다. 모퉁이를 돌아 만나면 국사봉으로 내려가는 하산길과 매봉으로 가는 절고개능선길이 만나는 삼거리가 나온다. 이 삼거리에서 절고개능선으로 내려가면 의왕 청계사(淸溪寺)로 갈 수 있다. 절고개 능선을 따라 내려가니 전망대 가드는 목재로 튼튼하게 새로 만든 것이 눈에 띄었다.

대형 약사여래대불로 유명한 천개사
청계사는 청계산의 유일한 전통사찰

발길을 재촉해 청계사로 이동했다. 청계사는 청계산의 유일한 전통사찰이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호인 청계사는 신라시대에 건립돼 고려 충렬왕 10년(1284)에 크게 중창됐다. 조선시대 연산군이 도성 내 절들을 폐쇄했을 때 봉은사를 대신해 선종 본산으로 정해졌던 유서 깊은 사찰이다. 현재 사찰의 모습은 1955년 이후 역대 주지 스님들의 중수로 이루어 졌지만 전체 규모와 가람의 배치는 조선 시대에 때부터 틀이 잡혀 내려오던 것이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완만한 돌계단으로 이뤄져 있다. 과천, 의왕 방면에서는 보통 청계산 남서쪽 중턱에 있는 청계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고 올라간다. 중턱부터 시작하기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은 없지만 산을 타기엔 적격이기 때문이다.

청계사는 높은 계단이 일주문이다. 수없이 많은 계단을 오르다 보면 빳빳하던 고개도 절로 숙여진다. 고려말 학자인 목은 이색은 청계산에 대해 이런 시를 남겼다.

청룡산 아래 옛 절
얼음과 눈이 끊어진 언덕이
들과 계곡에 잇닿았구나.
단정히 남쪽 창에 앉아 주역을 읽노라니
종소리 처음 울리고 닭이 깃들려 하네.

이색의 표현과 같이 한 겨울에도 얼음과 눈이 푸르른 청계산에서는 끊어질 것 같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미타 극락도량 정토사는 연꽃으로 유명하다.


비구니 수행사찰 천개사는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숨은 명소다.


청계사는 조선 연산군때 봉은사를 대신한 선종본산이었다.

가는 길

청계산 사찰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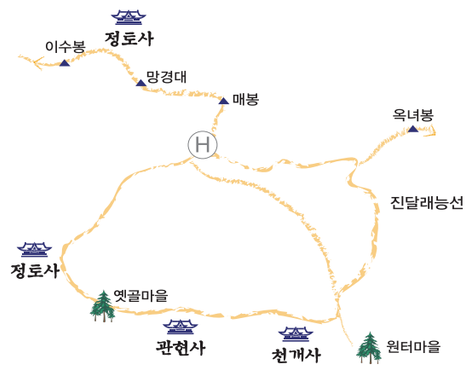
▶**천개사 길** : 양재역-원터골-천개사-길마재-돌문바위-매바위-매봉-망경봉-망경대-헬기장-청계계곡-옛골

▶**청계사 · 정토사 길** : 인덕원역-10번마을 버스 종점-청계사-절고개 능선-이수봉-구름다리-목배등 삼거리-봉오재 삼거리-정토사-옛골

가는길

▶**천개사 방면** : 지하철 신분당선 청계산역 하차, 양재역에서 4432번 8441번 버스

▶**청계사 방면** : 인덕원역에서 4424번 버스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남성용 여성용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9)

영축산 새벽별, 부처님 소식 전해주네

눈을 떠라, 빛이 보일 것이다

컴컴한 새벽이다. 답사일행은 영축산으로 가는 중이다. 이른 시간에 움직이기로 결정한 것은 영축산에서 좌선하며 일출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영축산은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부처님이 빔비사라왕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제자들에게 〈법화경〉 등 많은 경전을 설했던 산이다. 또한 데바닷타가 부처님을 위해하기 위해 돌을 굴린 곳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산 정상에 아쇼까왕 스투파가 있는데, 왜 그곳까지 아쇼까왕이 힘들게 순례했는지 궁금하다.

영축산은 나에게 뜻 깊은 산이다. 15년 전 첫 순례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무렵은 영축산 일대의 치안이 아주 취약할 때였다. 노상강도나 좀도둑이 산속에 숨어 있다가 드문드문 찾는 순례자들을 표적삼아 피해를 주곤 했던 것이다. 영축산을 지키는 경찰과 동행하지 않으면 위험했다. 나 역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한 향실로 가는데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그 경찰은 힌두 신자였지만 불교에도 조예가 깊은 것 같았다. 향실로 가는 도중에 그 경찰이 내게 농담을 했다.

"아침마다 나는 붓다가 됩니다."

"부처님이 된다는 말입니까?"

부처님의 흔적을 찾아 순례하는 내게, 총을 맨 경찰이 아침마다 부처님이 된다고 말하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농담으로 건넨 그의 한 마디는 내게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홀연히 깨닫게 해주었다.

"아침마다 눈을 뜨니까요."

나는 반사적으로 '아, 그래. 눈을 뜬 분이 부처님이지.' 하고 무릎을 쳤던 기억이 새롭다. 초기경전인 〈숫타니파타〉를 보면 아난이나 가섭 같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부처님이시여'라고 하지 않고 '눈을 뜬 이여' 혹은 '거룩한 이여' 하고 불렀던바, 바로 오래된 의문이 해소됐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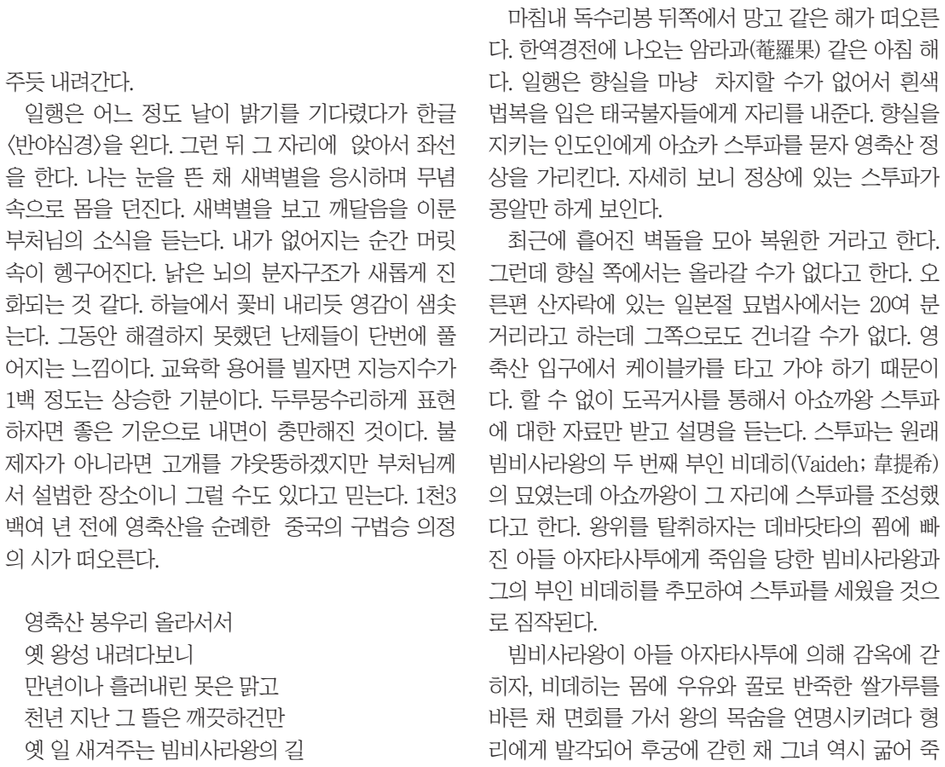
한편, 나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신지 2천5백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에 '눈을 뜬 이여'라는 붓다의 의미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고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가 아닐까 싶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눈을 떠라. 빛이 보일 것이다.'

향실서 좌선하니 영감이 꽃비 내리듯

영축산 입구에 내리자마자 차가운 산바람이 일행을 맞아준다. 컴컴하여 앞사람을 의지해서 계단을 오른다. 예전에는 좁은 산길이었는데 최근에 잘 정비한 것 같다. 빔비사라왕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이 길을 올랐다고 하는 기록이 〈대당서역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길을 '빔비사라왕 길'이라고 부른다. 왕이 부처님을 궁성으로 부르지 않고 친히 산길을 걸어올라 가서 설법을 들었다고 한바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간다. 더구나 구 왕사성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사셨던 것을 보면 빔비사라왕과 대신들이 얼마나 부처님을 우러러 의지했는지 이해가 된다. 보통사람들은 왕궁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서 살 수 없었던 것이다.

'빔비사라왕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산기슭에서 산꼭대기까지 돌을 이용해 계단을 만들었다. 넓이는 10여 보, 길이는 5, 6리나 되었다. 가는 길 도중에 2개의 작은 스투파가 있었다. 하나는 하승(下乘)이라 하는데 왕이 마차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는 곳이다. 또 하나는 퇴범(退凡)이라 하는데 범부와는 더 이상 함께 오르지 못하는 곳이다. 산꼭대기는 동서가 길고 남북은 좁다. 벼랑 서쪽에 벽돌로 된 정사가 있는데 동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다. 여래가 옛날 여기서 설법하는 일이 많았다. 정사 동쪽에는 길쭉한 돌과 큰 돌들이 있다. 데바닷타가 깨뜨리려 한 돌들이다. 그 남쪽 벼랑 아래 스투파가 있다. 그 옛날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했던 곳이다.'

〈법화경〉 뿐만 아니라 〈관무량수경〉, 〈보적경〉, 〈대집경〉, 〈허공장경〉 등을 설했던 영산회상이다. 일행이 독수리봉에 이르자, 먼동이 트면서 산자락의 바위와 나무들이 희미하게 드러나 보인다. 그러나 어둠이 물러가는 자리마다 안개가 자욱하다. 향실 계단을 한 줄로 걸어 오르는데 어떤 기운이 한 줄로 서서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 한 줄기 짙은 안개가 흐르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일행에게 향실을 비워주듯 내려간다.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영축산의 향실. 빔비사라왕마저 걸어 오르게 했던 부처님의 위의를 느낄 수 있다.

부처님이 〈법화경〉설한 영축산
왕마저 걸어 올라가 설법 들어

골육상쟁의 빔비사라왕 감옥터
왕의 佛心 진하게 배어 있어

일행은 어느 정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한글 〈반야심경〉을 왼다. 그런 뒤 그 자리에 앉아서 좌선을 한다. 나는 눈을 뜬 채 새벽별을 응시하며 무념 속으로 몸을 던진다.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의 소식을 듣는다. 내가 없어지는 순간 머릿속이 휑구어진다. 낡은 뇌의 분자구조가 새롭게 진화되는 것 같다. 하늘에서 꽃비 내리듯 영감이 샘솟는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이 단번에 풀어지는 느낌이다. 교육학 용어를 빌자면 지능지수가 1백 정도는 상승한 기분이다. 두루뭉수리하게 표현하자면 좋은 기운으로 내면이 충만해진 것이다. 불제자가 아니라면 고개를 갸웃뚱하겠지만 부처님께서 설법한 장소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믿는다. 1천3백여 년 전에 영축산을 순례한 중국의 구법승 의정의 시가 떠오른다.

영축산 봉우리 올라서서
옛 왕성 내려다보니
만년이나 흘러내린 못은 맑고
천년 지난 그 뜰은 깨끗하건만
옛 일 새겨주는 빔비사라왕의 길
부서져 남은 왕성의 지난날 영화
칠보의 선대는 사라지고
하늘 꽃비 내리던 빗소리 멈추었네.



영축산을 오를 수 있는 빔비사라왕 길. 왼쪽에 구 왕사성 터가있다. 멀리 영축산 정상의 아쇼까 스투파가 콩알만하게 보인다.

영축산 향실에서 내려다보이는 마가다국 구 왕사성 터는 너른 분지에 잡목만 우거져 있다. 향실에 있었다던 칠보의 선대(仙臺) 역시 사라지고 없다. 그러고 보니 1천3백여 년 전 의정이 보았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져 있지 않다.

빔비사라왕 사랑을 추모한 아쇼까왕 스투파

마침내 독수리봉 뒤쪽에서 망고 같은 해가 떠오른다. 한역경전에 나오는 암라과(菴羅果) 같은 아침 해다. 일행은 향실을 마냥 차지할 수가 없어서 흰색 법복을 입은 태국불자들에게 자리를 내준다. 향실을 지키는 인도인에게 아쇼카 스투파를 묻자 영축산 정상을 가리킨다. 자세히 보니 정상에 있는 스투파가 콩알만 하게 보인다.

최근에 흩어진 벽돌을 모아 복원한 거라고 한다. 그런데 향실 쪽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한다. 오른편 산자락에 있는 일본절 묘법사에서는 20여 분 거리라고 하는데 그쪽으로도 건너갈 수가 없다. 영축산 입구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도곡거사를 통해서 아쇼까왕 스투파에 대한 자료만 받고 설명을 듣는다. 스투파는 원래 빔비사라왕의 두 번째 부인 비데히(Vaideh; 韋提希)의 묘였는데 아쇼까왕이 그 자리에 스투파를 조성했다고 한다. 왕위를 탈취하자는 데바닷타의 꾐에 빠진 아들 아자타사투에게 죽임을 당한 빔비사라왕과 그의 부인 비데히를 추모하여 스투파를 세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빔비사라왕이 아들 아자타사투에 의해 감옥에 갇히자, 비데히는 몸에 우유와 꿀로 반죽한 쌀가루를 바른 채 면회를 가서 왕의 목숨을 연명시키려다 형리에게 발각되어 후궁에 갇힌 채 그녀 역시 굶어 죽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녀에게 〈관무량수경〉, 즉 극락에 태어나는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설하여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해주었다고 한다.



영축산 향실 불단에 올린 공양물들



영축산 독수리봉 바위와 오색의 룽가

그런데 비데히 부인뿐만 아니라 코살라국의 파세다니왕의 누이인 코살라 데비, 즉 마가다국 빔비사라왕의 첫 번째 부인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전한다. 아자타사투의 정권 탈취는 빔비사라왕의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을 죽게 한 큰 비극이었던 셈이다.

특히 첫째 부인이 죽자,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간에는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혼인동맹으로 코살라국의 공주 코살라 데비가 혼수감으로 가져갔던 카시마을(현 바라나시)을 코살라국 파세다니왕이 몰수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몇 번의 공방 끝에 화해를 하고 다시 혼인동맹을 맺었는데, 파세다니왕이 자기 딸을 아자타사투왕에게 보내면서 혼수감으로 카시마을을 되돌려주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영축산에 머물 때만 해도 마가다국이 인도천하를 통일하지 못하고 16개국이 혼인동맹을 맺으면서 각축전을 벌였던 것 같다.

일행은 영축산을 내려와 구 왕사성 중간쯤에 있는 빔비사라왕 감옥터를 들른다. 빔비사라왕의 불심이 진하게 배어 있는 유적지다. 음식을 일체 주지 않는데도 빔비사라왕이 목숨을 이어가자 아자타사투가 이상하게 여기고 그 이유를 물었던바 왕이 "저 열린 창문으로 부처님을 날마다 뵙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자타사투는 영축산이 보이지 않도록 창을 벽돌로 막아버리고 부왕이 일어설 수 없게끔 발목을 잘라버렸다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감옥 터에서 보니 영축산 봉우리가 비쭉 보인다. 도곡거사는 이곳을 쉰 번쯤 들렀다며 웃는다. 어깨를 말을 빌자면 별을 쉰 개나 단 셈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단 별은 다섯 개다.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New 신제품 흑룡초



임진년은 흑룡의 해 입니다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 하십시오

크기 ∮7.5 × 29c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27cm
④ 약쑥초 밀대 4.7∮×25cm ⑤ 약쑥초 1호 5.9∮×18cm ⑥ 약쑥초 2호 5.9∮×14cm
⑦ 약쑥초 3호 4.7∮×13cm ⑧ 약쑥초 4호 4.7∮×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27cm
④ 밀납초 밀대 4.7∮×25cm ⑤ 밀납초 1호 5.9∮×18cm ⑥ 밀납초 2호 5.9∮×14cm
⑦ 밀납초 3호 4.7∮×13cm ⑧ 밀납초 4호 4.7∮×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⑥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걸작으로 꼽히는 륭흥사 벽화

석가장 시내를 지나 점심 경 중국의 십대 사찰 중에 하나인 륭흥사에 도착했다. 정정현에 위치한 륭흥사는 황제들이 오대산과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해 황제들이 쉬어가는 황궁 사찰이었다. 그만큼 현재에도 대규모 사격을 유지하고 있다.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일주문 앞에는 모조품 골동상인들을 비롯해, 불구용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여행객들 호객하고 있다. 앞서 답사한 비로사의 한적한 풍경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의 십대사찰 중 하나로, 석가장을 대표하는 륭흥사는 수나라 개황6년(586)에 용장사(龍藏寺)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사찰로 송나라 이르러 그 규모가 커졌으며, 이후 원·명·청나라를 거치면서 가람 중수가 이뤄졌다.

청나라 강희 45년(1706)에 륭흥사(隆興寺)라는 편액을 황제가 하사하면서 사찰 명칭이 바뀌었다. 강희황제는 황제의 상징이 용이기 때문에 용이 둘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용장사를 개명해, 륭흥사라고 하였다고 한다. 거대한 청동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어 대불사(大佛寺)라는 별칭도 갖고 있으며, 거리의 안내 간판에도 대불사라고 표기되고 있었다.


륭흥사 미타전의 사십이수관음. 중국 최대 동불상으로 높이가 24m에 이른다.


중국대표 목조건축물로 손꼽히는 륭흥사 마니전

륭흥사는 가람배치가 남북 중심축에 주요법당을, 중심 좌우로 요사와 정원을 조성해 놓았다. 사찰 입구에는 석교가 있고, 천왕문, 대각육사전 터, 마니전, 계단, 우측에 자씨각, 좌측에 전륜장각, 강희어비정, 우측에 건륭어비정, 관세음보살을 모신 대비각, 대비각 우측에 어서루, 북쪽에 미타전 등 주요 건축물이 배치돼 있다.

륭흥사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이며, 특히 금대에 조성된 륭흥사 마니전은 중국의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중국 건축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방문하는 필수코스이기도 하다.

중국의 현존하는 대표 목조건축물로 손꼽히는 륭흥사마니전(隆興寺摩尼殿)은 건축물 전신이 모두 두터운 벽으로 둘러 쌓여 있고, 정면에만 문창을 냄으로써, 전내의 광선은 전반적으로 어둡다. 마니전의 외관은 아주 특별한 풍치가 있다.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로서는 전문 용어를 알 수 없으나, 건물을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의 건축물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아(亞)자형이 특징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특징은 송대의 회화에 나타나고 있는 건축물과 아주 유사하다고 한다. 이는 일본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눈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물과 흡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마니(摩尼)'는 최상의 보배로서 여의주와 같은 의미가 있으며, 중국에서는 '마니'를 '부처님'에 비유하고 있다. 내부에는 소조불상인 석가여래좌상과 좌우에는 가섭과 아난존자를 비롯하여, 문수,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석불단 정면, 측면에 조각돼 있는 금강역사상은 서양인과 흡사한 모습으로 사실적으로 조각돼 있다.

사면의 벽에는 명나라 가정42년(1563)에 그려진 벽화가 남아있다. 중국 벽화 예술의 걸작품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이들 작품은 〈무량수경〉에 나타난 극락세계와 〈석씨원류〉의 부처님 일대기가 장엄하게 현현하고 있다.

후면에는 수미단 위에 소조 관음보살좌상에 채색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마니전 주변에는 화재를 대비한 인공호수를 만들었고 주변에는 측백나무를 심어 방풍을 하고 있다. 륭흥사의 가람배치는 현존하는 송대 불사 건축의 전체 배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다. 북쪽으로 마니전이 배치돼있으며, 좌우에 배전이 남아있다. 주요 건축물인 불현각과 그 앞의 양쪽에 전륜장전, 자씨각 및 기타 부차적인, 누, 각등으로 구성하는 형식이 뛰어난 공간 조성이 돼 있는데 이곳은 륭흥사 전체 가람구조의 정점이기도 하다. 아쉽게도 대각육사전은 훼손됐다.

미타전은 사원의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비각은 높이가 약 33미터로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안에는 약 24미터의 사십이수관음을 받들어 모셔져 있다. 대불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질 만큼 이 절의 상징이 된 대불상은 북송개보 4년(971)에 주조된 것으로 현존하는 중국 고대 최대의 동불상이다.

보살상의 높이는 19.2미터, 수미단 높이는 2.2미터로서 42수 관세음보살상으로, 양식은 송나라 양식이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부처님의 협시보살로 3계(욕계, 색계, 무색계)와 25유(4악취, 수미4주, 욕계 6천, 색계 7의 18천, 무색계 4천)의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다. 가운데 손은 원래의 손이며, 나머지 40수는 신통력을 나투신 것으로 좌우에 각각 20개의 손이 있어 손 마다 25유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40수에 25유를 곱한 것이 천수라고 한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축물로는 송대의 유풍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전륜장전이다. 전륜장전 내에는 누각 아래에 직경 7m의 8각형 목재로 만들어진 전륜장(轉輪藏)이 있으며, 이 전륜장은 흔히 윤장대로 불린다. 윤장대는 중국 양나라 쌍림대사 전흡이 처음 만들었다고 전하며, 처음에는 승려들이 경전 등을 보관하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팽이처럼 회전하는 구조를 꾸몄는데, 후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중생을 위해 돌리는 것만으로도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거대한 전륜장이 한사람의 힘으로도 움직인다고 하니 옛 선인들의 과학적인 건축방법이 신기하기도 했으나, 현재 윤장대는 움직일 수 없이 보호되고 있다.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의 용문사 윤장대를 압도하지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편리성은 용문사 윤장대가 나을 것 같다.

중국 십대 사찰로 평가받는 륭흥사
마니전은 중국대표 목조건축물중 하나

마니전벽화, 극락세계와 부처님 일대기
전륭장전 내 직경 7m 8각형 윤장대 있어

다음은 맞은 편에 있는 자씨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씨각의 전각은 3층 건물로 이뤄져 있으며, 7m 이상의 통나무로 된 미륵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각 층마다 창호가 있어, 햇빛이 전각 안을 고루 비춘다. 부처님과 광배에 아름다운 단청이 표현돼 있어 우리나라의 단아한 부처님의 상과는 많이 다른 형상을 하고 있다.

비로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고 1천 72위의 부처님이 봉안돼 있다. 륭흥사에는 부처님이 모셔진 불단들이 주로 석조물로 이뤄졌다. 불단의 동자상들은 아름다운 비천 형태를 띄고 있지만 그 모습이 매우 해학적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륭흥사의 고색창연한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마니전 벽화를 보며 선조들의 문화유산이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다음 목적지인 무강 연화박물관이 있는 무강현을 향해 가는 길에 정정현(正定縣) 시내를 지나가게 되었다. 정정현은 차기 중국의 지도자로 지명된 시진핑이 공산당서기를 지낸 곳으로, 시진핑이 국가 주석에 오르면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고 한다.

정정현에는 지역이 자랑하는 4대 탑이 있어 이들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천녕사의 릉소탑은 벽돌과 나무로 혼합되어 건축되었는데 높이가 60m이고 정정현 내에서 제일 높은 탑이라고 하며, 당대 석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청탑으로 정정현 내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당 함통 8년(867년)에 건축됐으며, 높이는 33m이고 모두 벽돌로 지어진 8각 모양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전탑으로 정정현 내의 서남쪽 거리에 위치하고 개원사 수미탑 이라고도 부르며, 탑은 정방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48m의 높이이다. 이 수미탑은 정암사의 수마노탑이 연상되어 지는 탑이다.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화탑으로 정정현의 남문 쪽에 위치하고 광휘사 다보탑이라고도 하며, 당 정원년간에 건축되고 금, 명, 청 시기에 개축했다.

45m의 높이에 정 8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많은 동물상이 조각돼 있다. 4대 탑이 시내 곳곳에 위치한 정정현은 문화가 살아있는 고도의 풍모를 지니고 있는 단아한 도시라는 인상이 든다.




륭흥사 마니전의 벽화. 〈무량수경〉의 극락세계(위)와 〈석씨원류〉의 부처님일대기(아래)를 장엄하게 표현했다. 중국 벽화 예술의 걸작품 중 하나다. 명나라 가정 42년(1563)에 그려졌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황진·박도화·정찬민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생활 속 가르침 실천이 나와 가정 바꾸는 힘”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1971년 경기도 안양에 ‘대한불교회관’이 설립됐다. 전통 사찰이 아닌 도심에서 현대식 법회를 하는 것은 당시 한국불교 현실로서는 새바람이었다. 이후 이 곳은 ‘한마음선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안양 본원외에 국내에 15개 지원을 열어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해외포교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현재까지 10개의 해외지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특히 선원장 대행 스님과 주지 혜원 스님은 2002년 비구니회관 건립당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불교계의 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계종 포교원에 포교기금 3억원을 쾌척하는 등 비구니 스님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5월 9일 종교와젠더연구소 옥복연 소장과 주지 혜원 스님이 만나 대담을 진행했다.

정리=이나은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혜원 스님은 … 1939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다. 1981년에 입산해 198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198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92년 한마음선원 주지로 취임했으며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전국 비구니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혜원 스님은 생활 속에서 수행해가는 불자들을 위한 신행 활동과 어린이 학생 청년 불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포교에 힘쓰고 있으며 국외 지원 설립, 군법당 포교 등의 불법 홍포와 실천적인 수행을 선도해 오고 있다.

옥복연 소장: 한마음선원은 1982년 조계종에 등록한 후, 포교와 신행부분에 있어 범종단적으로 모범이 될 정도로 급격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주지스님께서도 한마음선원과 출가 전부터 깊은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행 스님과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혜원 스님: 1970년 제 나이 서른 셋 일때, 저는 아주 나약한 숙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대행 스님을 찾아뵙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인자한 손길이 제게도 인연이 닿았습니다. 스님은 한없이 눈물만 흘리는 제가 불쌍해보였는지 선원에 와서 행자가 되겠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저로서는 그 말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당시 살려고 해도 살 용기가 없었고, 막상 죽으려 해도 죽을 용기도 없었던 소심한 겁쟁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저를 행자로 받아주신다는데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승려로서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처음 선원을 세웠을 때는 다른 전통 사찰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선원을 다녀간 사람들이 여기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사찰에서 명상이니 마음 단련 수행 프로그램이니 그런 걸 많이 시행하고 있고 마음공부라든가 자기 근본을 찾는 말들을 흔하게도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저 절하고 염불하고 복을 비는 기도밖에는 몰랐던 분위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왜 저리 스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조계종 차원에서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은사 스님은 누구 하나 탓하는 법도 없이 “당신네들은 당신네들 좋을 대로 생각하고 욕하시오. 우리는 바른 부처님 법을 신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가겠소.” 하는 생각으로 절을 이끌었습니다.

아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찰에서 다른 곳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비구스님들의 외압도 자주 있었는데 그래도 스님께서는 아무 말 안하셨죠. 묵묵히 그냥 가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은사 스님의 말씀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내면의 뜻을 알아보고자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이끄는 공부줄이었지요.

옥복연 소장: 한마음선원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혜원 스님: 생활 속 참선수행을 가르치는 것이 그 비결 같습니다. 선원에서 가르치는 마음공부가 불자들에겐 어찌 보면 생소한 방식이거든요. 근본 핵심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참선을 한다든가 기복적인 대상으로서 부처님께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기 근본 불성 자리인 주인공(主人空)을 그대로 믿고 맡기고 거기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관법(觀法)을 가르쳐드린 겁니다.

“생활 속에서 참선을 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막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도 자기 근본 마음 자리에 탁 맡기세요. 그렇게 하면 생활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자기의 근본에 부합하게 되는 수행이 되니 꼭 그렇게 하세요.”하고 가르치지요.

처음부터 신도들이 ‘맡긴다, 참나를 믿는다’ 이런 걸 잘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저희는 신도님들이 스스로 내 속에서 알아지게 될 때까지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사 스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일매일 선실에 나가셔서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서부터 고민을 들고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하나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스님들 또한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요. 선원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신도들이 막연하게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 자성을 알고 믿고 갈 수 있도록 은사 스님이하 선원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드린 덕분이었습니다.

옥복연 소장: 최근 해외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마음선원은 10여 개 나라에서 해외지원을 운영하시면서 영문으로 법문이나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일찌감치 해외포교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외포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는지요?

혜원 스님: 지난 1987년 미국 모건힐에 첫 분원을 개설한 이후 알래스카, 뉴욕, LA등 4개의 분원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은사 스님은 알래스카니 부에노스아이레스니 그런 멀고도 척박한 지역까지 직접 가셔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불법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외포교를 하는데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뤄진 게 아니에요.

당시 저는 영어도 한마디 할 줄 모르면서 고무신 한 켤레, 사람들에게 나눠줄 마른 인삼이 들어있는 주머니 하나만 넣고 미국에 갈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모건힐에 분원을 개원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하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신도가 있었는데 그분께 일을 맡겼습니다. 그 분이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 한마디를 잘못하는 바람에 사찰을 모건힐 시에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땅을 사서 농사도 짓고 사찰도 세웠는데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죠. 그때 고급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애만 태우다 사찰을 고스란히 넘기게 됐죠.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워요. 제대로 영어를 하는 사람 하나 없이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포교를 위해 해외로 다녔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신도 분들이 먼저 나서서 “여기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니 불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지 우리가 무작정 땅을 사고 재정을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지원을 세우기 시작하다보니까 뉴욕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전 세계까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국에 선원 신도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더러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의 호텔방을 하나 빌려 법회를 했는데 처음에 50명 이상이 모였더라구요. 법회를 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 모임의 회장이 저를 붙들더니 “스님 저희를 놔두고 어떻게 가십니까. 저희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이라도 내려주시고 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하나 마련해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달 뒤 태국 한인불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2층짜리 집을 마련했더라구요. 은사 스님을 모시고 가서 개원식과 법회를 열게 됐죠. 태국지원은 1년에 1~2회씩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수익금은 모두 태국 지역 고아원에 기부하죠. 그렇게 해주니 태국에서는 저희에게 호의적이죠. 지금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자들 중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비구니 스님이 법회를 한다고 깔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구니가 무슨 법회를 하냐”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구요. 그럴 때 은사 스님은 “어디 한번 법회할 때 가서 보자” 하시고는 법회에서 대중들을 압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도 나중에는 스스로 찾아오게 되더군요. ‘제가 아상(我相)이 높았습니다’ 이러면서요.

옥복연 소장: 법회 초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감히 법상에 오르냐”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혜원 스님: 그럴 때 은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법상이라고 뭐가 다르냐.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잘 보라고 높여서 앉은 건데 뭐 별 다른 게 있냐” 하구요. 또 “비구니가 무슨 법회를 하냐”고 빈정댈 때는 “비구니 비구는 언제 적 비구니 비구였나. 수없는 나날을 거치며 비구 비구니 여자 남자가 되는데 그런 거 다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마디 하시면 그다음에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옥복연 소장: 작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1 한마음음악제’를 성황리에 치뤘는데, 많은 신도들이 직접 참여해 진행된 그 규모에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불교 신자의 다수가 여성이다보니 사찰의 행사에는 여성신도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한마음선원은 남성신도가 적극적으로 사찰 행사에 동참하고 가족단위의 신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혜원 스님: 거사, 청년, 학생, 어린이 신도들이 저희 선원에는 아주 주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마음공부를 하면서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가니까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원만하게 잘 풀리더랍니다. 마음공부를 하니 마음도 편안하고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보니 일도 원만하게 잘 풀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니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에도 열심히 참가하려 하시고 봉사활동 이런 것도 부지런히 솔선수범해서들 다 하시죠.

한마음선원은 참 유난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도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는데 어떻게 안하겠어요?”라면서 서로 힘든 일도 나서서 하려고 합니다.

또 부인 자식 모두 선원에 나와서 재밌게 공부하면서 부인은 가정에 충실하고 자식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니 거사님들이 “나도 한번 가보자”는 호기심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선원에 다니게 되는 겁니다.

옥복연 소장: 사찰들의 숙제가 아동청소년 포교인데 한마음선원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혜원 스님: 가정의 시작은 부모이지만 아이들로 인해 한 가정이 생성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는 이미 스스로를 책임지는 어른이지만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커나가는 존재이니까 부모가 제대로 된 생각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면 그 아이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아이들은 그에 따라 혜택을 볼 수도 있고,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존재이지요. 또 시대적으로도 고가의 사교육이니 뭐니 학교폭력이니 뭐니 내 아이를 세상에 내놓기 점점 무서운 시대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 선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줄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잘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아이의 친구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 아이도 결코 혼자 행복할 수 없는 공생의 도리를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각하게끔 합니다. 모두가 더불어 가야한다는 걸 알게 하고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고 자기 근본을 믿는 힘에 의지하여 스스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팡이를 쥐어주는 것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학생이나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한국 불교의 미래이니만큼 결코 소홀할 수 없다는 데 모두들 공감하고 그러다보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애쓰다보니 불교에 대해서도 할머니들이나 다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 한몫을 하게 되더군요.

옥복연 소장: 비구니승가가 규모든, 능력으로든 비구승가와 유사하지만, 최근 비구니승가는 비구승가에 비해 고령화가 눈에 띄고 건강문제 등 비구니승가만의 특수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구니승가의 문제들을 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비구니승가가 적극적으로 종단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종헌종법이나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비구니승가의 복지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혜원 스님: 자기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서 각 소임처에서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비구니스님들의 모습은 한국 불교를 이끄는 대표적인 수행자 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회 복지 부분에서도 크게 포교의 영역을 넓혀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막상 당면해있는 승가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의견을 내거나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수록 출가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법답게 수행해가는 이들을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때에 종단 차원의 기틀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면 10년 후 한국 불교의 기세는 크게 수그러들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종헌 종법의 덜 갖춰진 부분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비구니 스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수행자니까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겠다는 공부인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면 이제 나보다 후학을 위하는 마음에서, 좀 더 크게는 한국 불교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번 더 의지를 모으고 굳건히 다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그 다음 일로서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옥복연 소장: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20~30대의 젊은이들은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 값 등 경제 ·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돌볼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삼포세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혜의 말씀을 해주세요.

혜원 스님: 일단 결혼은 해야 식구가 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결혼은 하되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을 사세요. “○○네 엄마가 어디 학원 보낸다더라” 그런 마음에서 자기 자식의 소질이나 취향은 아랑곳없이 비싸고 좋다는 학원 못 보내서 안달하지 마시구요, 자식들에게 맞는 적성을 계발하도록 열심히 마음을 내주세요.

일체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하도 많으니 이 부처 찾다 저 부처 찾다 할 수 없으니 그것을 모두 통틀어서 한마음 주인공이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속에 천체가 다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다 모든 것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주인공, 니가 알아서 해. 내 이 몸뚱이가 사는 게 아니잖아? 너라는 주인이 있어 사는 거지. 이 육신은 마음의 시자일 뿐이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힘들어만 할 뿐이야. 그러니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게끔 네가 이끌어!” 이렇게 맡겨놓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참 감사해.” 이렇게 하세요. 나를 100%믿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간이 좀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간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모두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그렇게 주인공에게 맡기고 가세요.

1970년 대행 스님과 첫 만남 후 출가
대행 스님, 비구니 스님 외압에
“묵묵히 그냥 나아가라” 강조
생활 속 참선수행 가르쳐 신도수 증가
해외 신도들 요청으로 지원 개원

“비구니가 무슨 법회냐”는 비아냥에
“비구 비구니 따지다 아무것도 못해”
후학과 한국불교를 위해 공부하면
비구니 위한 제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
나를 100%믿고 나아가면 문제 근원 해결

나의 서원 나의 신행 〈9〉

“복지 현장이 선방·염불당·복전이죠”

사회복지 선두주자 성운 스님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은 … 부산에서 출생해 10여세에 속리산 법주사로 출가했다. 용주사 해인사 화엄사 월정사 상원사 등 강원과 선원에서 경학과 참선에 정진했다.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고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과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사)한국교정교화연구소 전문위원, 종교단체 사형제도폐지운동 공동협의회 회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로 깨달음의 사회화에 동참했다. 현재 은평구 사원연합회 회장, 은평구민장학회 이사, 정토학회 회장, 한국불교학회 이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삼천사 주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은 지금도 유효한가? ‘스피드 시대’를 지나 ‘초스피드 시대’라는 오늘날의 10년은 강산이 두어 번 내지 서너 번은 뒤바뀔 시간이다. 강산 보다 빠르게 변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풍속이나 문물이고 보면, 현대사회에서의 10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변화의 속도는 빠르지만, 성취(成就)의 과정은 복잡하다. 개인의 일이든 집단의 공무(公務)든, 주변의 일들과 상호연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난마(亂麻)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성운 스님(삼천사 주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의 출가 이력은 10년을 주기로 변화해 왔다. 출가하여 힘든 일과 탁발, 배고픔에 시달리며 행자생활을 하고, 대강백들을 만나 경전을 배우며 ‘절 물’이 들던 법주사 용주사 해인사에서의 10년. 현대적 학문을 배워야 시대를 앞서가는 포교가 가능하다는 자각에 ‘무작정 상경’하여 공부하고 종무 행정을 배우며 사회복지에 눈을 열게 된 10년.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발원하고 기도하며 실천불교의 다양한 밑그림을 그리게 된 10년. 인덕원을 설립하여 불교사회복지의 선두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10년. 그리고 불교사회복지를 학문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연마하여 새로운 전형(典型)을 제시하고 후학양성에 동분서주 한 현재까지.

출가 60년, 여섯 번의 ‘10년’ 속에 변하지 않고 흘러 온 것이 있다면, 수행자의 삶은 안으로 치열한 공부를 전개하며 철저하게 밖으로 회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성운 스님의 서원은 무엇이었고 그 성취를 위한 수행의 행로는 어떠했는가? 인터뷰를 앞두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며 수첩에 적은 메모들이 봄 들판의 풀잎처럼 무성했다.

△불교관: 불교는 중생이 고(苦)이서 락(樂)을 건져 올리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삼독심 제거의 길을 열어 주는 것.

△승가상: 중생의 고를 해탈시켜 주는 것이 불교와 승단의 사명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불교사회복지 사상: 불교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천, 중생 고의 해탈 견인. “사회복지 현장이 저의 선방이요, 염불당이요, 기도터요, 하심터요, 복전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것이 저의 불교사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복지의 실천이 저의 불교사상입니다.”

△개인적 소의경전: 〈금강경〉〈법화경〉〈아함경〉으로 수행자로서의 삶과 사회복자활동의 ‘불이(不二)’ 확립. 특히 〈금강경〉의 공관(空觀)으로 나눔의 가치, 반야지혜로 복지시설 운영의 틀을 배움.

△법호 자안(慈顔)의 의미: 내면의 자비를 항시 드러내 누구나 인자한 얼굴로 대하고자 지은 자호.

△아쇼까 왕 연구: 아쇼까 왕의 한 마디에 전율. ‘내가 백성 위해 복지를 펴는 것은 살아서 남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함이 아니다. 나와 후손이 천상에 나고자 함도 아니고, 후생에 잘 되고자 함도 아니다. 오직 전생의 빚을 갚을 뿐이다.’ 이 한마디를 접한 수행자로서의 충격, 다소 어려움에 빠져 있던(약간은 지쳐 있던) 복지사업 원력에 새로운 힘이 되어 줌.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한 충격으로 나 자신의 나태함을 돌아보고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아쇼까 왕의 복지 정책을 연구해 박사학위 논문 작성. “현대의 고도화된 복지정책도 아쇼까 왕의 복지 실현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쇼까 왕의 복지는 대단했어요. 기원전 3세기 당시 그는 동물들을 위한 병원까지 설립했으니까요. 일체생명의 존귀함을 이미 정책으로 실현한 거죠.”

△전국교도소 10만권 불서 보내기 운동 달성

△교도소 등 교정교화: 1978년부터 서울, 서대문구치소 등 교화위원활동.

△군포교 및 군법당 설립

△‘최초’ 그리고 ‘모델’: 지역 사원연합회 결성 통한 불교의 사회운동 전개, 도서관 운영에 있어 ‘RFID(자동대출반환) 시스템 도입’(세계최초의 시스템으로 국내외에서 벤치마킹 중).

△불사: 삼천사 중창불사 30년, 마애여래입상 보물 제657호 지정.

△종교계 사형제도 폐지운동 공동협의회 회장

△법인설립: 1984년 발원, 1994년 ‘인덕원’ 설립.

인덕원 산하 22개 시설에 종사자 500여명
연인원 1천만명 이용 ‘복지 메머드그룹’

“서원 굳고 정진 간절하면 다 이루어져요”
치열하게 공부하고 철저하게 회향해야
인재 양성 위한 소수정예 교육기관 서원

‘20명 보살’들의 기적 같은 도움.

△법인현황: 어린이 청소년 노인 시설 및 도서관 장애인 시설 등 22개 시설, 종사자 500여명, 연간예산 300억 원. 연간이용 연인원 1000만여 명.

△인덕노인종합복지관: 입원 대기자만 200여명. 타 시설에서 ‘원스톱 토탈 케어시스템’에 주목. 예배, 미사 공간까지 마련해 종교 자유 보장.

△동국대대학원 강의: 불교사회복지론 이론과 현장 노하우 겸한 강의로 정평, 현장 사례 위주의 교육과 최신 정보로 만든 PPT 활용 교육.

△100여 회의 수상 : 국민훈장 동백장, 만해대상, 대통령표장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신록이 무르익어 가는 삼천사. 도량 한 가운데 사흘 전에 제막된 탑이 우뚝 서 있다. 월정사 9층탑의 양식을 따랐지만, 상륜부에는 보주가 아니라 황금빛 찬란한 사사자(四獅子)가 모셔져 있다. 사방을 향해 사자후를 토하는 네 마리의 사자. 아쇼까 왕의 석주 상단에 있는 그 사자상이다.

부처님이 불교라는 성을 쌓았다면 아쇼까 왕은 그 성을 굳건하게 지켜 오늘에 이르게 한 전륜성왕(轉輪聖王)으로 불린다. 아쇼까 왕의 복지정책을 오늘의 복지사회 구현 모델로 연구하는 성운 스님의 서원이 담긴 탑이다. 탑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성운 스님은 이 탑을 제막함으로써 아쇼까 왕을 한국불교 사회복지의 새로운 이정표로 삼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현대식 공부를 하자.”

이것이 성운 스님의 첫 서원이었다. 열 살에 동진출가하여 절 생활에 적응하기 바빴으니, 출가의 서원이 따로 없었을 터. 다만, 출가 수행자의 길로 들어선 인연을 거부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매진함으로써 시나브로 ‘물’이 들었을 뿐이다.

“전생에 지어 둔 복이 좀 있었던지,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큰스님들을 만났습니다. 용주사에서 탄허 관응 운허 호경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 숙여지는 큰스님들에게 경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체계가 서 있던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강주는 지관 스님이었어요. 졸업하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중강이 되었는데, 그때 내가 신식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뼈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과 일타 스님이 ‘선방 수좌로 기대되는데 나가려하느냐?’ ‘중 공부에 바깥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했지만 신식공부를 하고 싶어 상경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동국대 교정을 혼자 걸으며 ‘나도 여기서 대학 공부 하겠다’는 원을 세웠어요.”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지만, 성운 스님에게는 뼈저린 시간이었다. 서울에 왔다고 그냥 ‘서울 스님’이 되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숙식 해결이 급선무. 성운 스님은 학원이 가까운 조계사에서 수위실에 바랑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 소임을 맡았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 보시를 좀 더 받을 수 있어 학원비를 낼 수 있었다. 거기다 빗자루나 걸레를 넣어두는 창고를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 창고에서 영어 단어와 문장을 닥치는 대로 달달 외우며 공부에 매달렸다. 영어 공부에 특별히 공력을 들인 까닭은 세상의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1년 만에 〈TIME〉지를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스님은 이 때 〈TIME〉지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예견했는데 그것이 나중 노인복지 사업의 주역이 되게 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지만 그들은 스님이 ‘주경야경(晝耕夜耕)’ 한 피나는 노력을 몰랐다. 그렇게 학원을 다니며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이후 방송통신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동국대학교에서 종무행정을 연구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학위는 2005년에 받았고 논문은 ‘아쇼까 왕의 복지사상 연구’였다.

“사회복지사업이 이 시대의 불사(佛事)다.”





"한국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모두 복스러워 기쁩니다" 성운 스님의 어린이 사랑은 각별해 서울시내 여러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공경 효사상 실천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의 지름길 입니다" 은평구 노인 복지관에서 노인들과 송편을 만들고 있는 성운 스님의 법호는 慈韻(자비로운 얼굴)이다.

성운 스님이 사회복지에 진력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것은 하루아침의 결심이 아니었다. 순간의 각성에 의한 서원이 아니라 긴 시간 많은 인연들이 계합하여 뼛속까지 사무치게 세운 서원이라는 의미다. 스님은 잠시 서울 생활을 접고 큰 산 고찰의 선방을 다니며 정진한 적이 있다. 종단의 혼란상을 보는 젊은 스님의 선택이 지리산, 덕유산, 오대산 등이었던 것. 상원사에서 두 차례 100일 기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깊은 골짜기 냇가 바위에 새겨진 불상을 보았다. 신기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1979년 다시 서울로 왔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계곡으로 오게 됐어요. 지금은 은평 뉴타운이 된 곳이지만 당시는 저 아래가 모두 철거민이나 상이군, 결핵환자 등이 모여 사는 빈촌이었어요. 거기 작은 암자에 있던 스님을 만나러 왔다가 그 스님과 산책삼아 온 것이지요. 아, 그런데 마애불상을 보는 순간 온 몸에 전율이 왔어요. 오대산에서 꿈에 보았던 그 분이지 뭡니까. 가슴이 벅찼던 것은 그 다음일입니다. 마애불 근처에 단칸방과 작은 부엌이 딸린 암자가 있을 뿐이었는데, 암자를 지키던 스님이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뜻 밖에 암자를 맡게 되었던 겁니다."

외진 북한산 골짜기 암자에 몸을 들여 놓았지만, 현몽(現夢)한 부처님의 도량이었으니 즐겁기 그지없었다. 곧바로 삼천사 중창불사를 발원했다. 그리고 차근차근 절의 면모를 다져나갔다.

"그런 가운데 총무원 사회부장을 맡게 됐어요. 중창불사를 하면서 도심 포교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고 행정학을 전공 했으니 나가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우고자 했지요."

총무원에서 소임을 맡고 나서 새롭게 본 것이 사회복지였다. 그간 은평구를 중심으로 이웃돕기나 교도소, 군부대 위문 등 나눔을 실천했지만, 그것을 사회복지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여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눈에 들어 왔던 것이다.

"사회복지를 불교복지로 승화하여 불교의 사회화를 실현하면 그것이 최상의 포교이고 불교와 사회의 발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무엇보다 복지법인의 설립이 필요했어요. 총무원에 복지법인 설립을 건의 했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삼천사를 근간으로 복지법인을 세우고자 원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세우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때 삼천사 아래 지금의 인덕원이 자리한 땅이 맘에 들었어요. 그 땅에 복지시설을 짓고 싶었던 거죠. 땅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복지법인을 만들고 시설을 짓는단 말인가? 무조건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말고 뭐 있겠어요?"

서원이 굳고 기도가 간절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땅 주인이 어느 날 문득 땅을 팔겠다고 나섰다. 팔고 나서는 '내가 왜 팔았지?' 하며 후회했다고 한다. 10억 원이 필요해 20명에게 부탁을 했는데, 단 한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대출을 해 주었다. 20명 가운데는 보광스님(동국대 교수)도, 개신교 장로도 포함되어 있다. 성운 스님은 그 20명을 '20대 보살'이라며 평생 그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땅도 재원도 마련되어 10년을 소원하던 복지법인이 설립됐다. 이후로 성운 스님의 복지 불사는 가속에 가속을 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축으로 22개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의 '메머드 그룹'이 된 것이다. 수행과 포교가 둘이 아니고 포교와 복지가 다르지 않다는 성운 스님의 신념과 서원이 불교사회복지의 내실이 튼튼해지고 현장이 넓어지는 힘이 됐다. 스님은 스님대로 강단에서 강의 하며 불교사회복지에 신명을 바칠 인재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짧게나마 저의 에피소드를 들려 드렸지만, 지난 60년의 출가 생활은 살아 온 매순간이 서원의 시간이었고 정진의 찰나였습니다. 그게 수행자의 길이고 불자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불자의 첫째는 신심입니다.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원력을 세우고 정진(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집니다.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원을 참으로 많이 세웠고 그때마다 절실하게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원과 정진은 항상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쇼까왕 복지사상 원력의 새힘 되었죠"
수행·포교·복지는 곧 '상구보리·하화중생'
사회복지 사업은 이시대 불사중의 불사



1980년대초 성운 스님은 종교계 사형제도폐지 운동에 앞장서 공동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진행형이라면, 스님께 새로운 서원이 있으신가요?

"인재양성입니다. 지금도 대학원에서 강의는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과거 중고등학생 시절 학생법회를 다녔던 분들이 불교계를 지키는 거목이 되었듯이, 어릴 때부터 확고한 불자로 자랄 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소수 정예화 된 불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여자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원이 있습니다. 여자중학교를 선택한 것은 모성(母性)과 태교, 양육 시기의 중요함 때문입니다."

성운 스님에게 또 몇 번의 '10년'이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스님의 더 많은 서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불국토의 면적이 넓어질 것이다. '성운 스님의 하루는 다른 사람의 일생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쁜 스님의 일과는 그만큼 많은 이들의 행복이므로.



글=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선생님



동국대 명예교수

종례시간으로 기억이 된다. 선생님은 반 모든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을 하겠는가를 물으셨다. 이제 여러 직업을 말 할 테니 각자 원하는 미래의 직업에 손을 들라고 하였다. 나는 '선생'이란 말을 했을 때 조용히 손을 들었다. 나머지 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부르면 당연히 손을 들었을 것으로 믿는다.

그때 선생님은 왜 그런 시간을 내셨는지 지금 와서 알 길이 없다. 나에 관한한 우리 선생님은 앞날을 점칠 수 있는 매직 파워를 가진 분으로 여겨진다. 그때 손들었던 행위가 한 평생 교단에 설 수밖에 없는 길을 걸었으니 말이다.

하기야 선생의 길은 오래전에 점지된 일인 듯 도 하다.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된다. 선생님은 학습부진 학생들을 교실에 남게 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그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잡무에 쫓기셨던지 큼지막한 검정 출석부를 들고 분주히 교무실로 향하셨다. 한 때는 하교길이 늦다 보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대부분 해질녘에 가는 학생들은 공부가 부진하여 방과 후 특별지도를 받은 후 늦게 집에 가는 학생으로 주변에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습이 부진한 학생이 아니라 어찌보면 난 그때부터 이미 선생님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이란 '선생'의 존칭어이다. 연전에 있었던 일이다. 대통령 후보를 호칭하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아무개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랬더니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은 심사가 꼬였던지 그 후보가 언제 선생을 했기에 선생이라고 하느냐는 반문이 따랐다. 그러자 그러면 김구 선생은 선생을 해서 김구 선생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하여 옥신각신 판이 커진 광경을 목도한 적이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생이란 용어를 정리해 보자. 1) 교사의 존칭 2) 학문이나 기예가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 3) 어떤 부분에서 경험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 4) 남을 높여 이르는 말 5) 자기보다 나아가 적은 남자 어른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왈가왈부 했던 선생이란 호칭문제는 하등 문제거리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구당서〉나 〈신당서〉에 따르면 '고구려 사람들은 책을 사랑하여 벼슬아치 집에서 평민의 집에 이르기까지 저자거리에 큰 집을 지어 이를 경당이라 부르고, 혼인하기 전의 자제들이 여기에서 밤낮으로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혔다'고 하였다.

송나라 때 〈고려도경〉에는 '여염집들이 있는 거리에는 경관과 서사들이 두 셋씩 마주 바라보이고, 이곳에 백성의 자제들이 무리로 모여 스승에게 책을 배우며, 조금 장성하게 되면 뜻이 맞는 사람끼리 벗을 택하여 절로 가서 글을 익힌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고려의 서당은 조선시대로 계승 되었다.

조선의 서당이란 교육기관은 사설이어서 국가가 간여하지 않았다. 관의 지원 없이 훈장 스스로 운영하는 민중교육기관이었다. 훈장의 생활에는 춘추로 곡식을 징수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독신인 훈장에게는 의복, 세탁, 식사도 마련해 주었다. 서양의 teacher는 '가르치는데 고용된 사람'이란 뜻이므로 서당의 훈장과는 개념이 다르다.

옛날 어느 서당에서 훈장님이 바람 풍(風)자를 가르치는데 혀가 짧았거나 이가 빠져 바담 풍으로 발음 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남보고는 잘 하라고 요구하는 말이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제자를 알뜰히 살피는 선생님의 깊은 성찰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께 갈채 보내며, 역경을 참고 견딘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인욕바라밀을 말해주고 싶다"

선생의 속성은 본인이 의도하는 데로 학생을 가르치고자 한다. 주변에 선생님의 푸념 섞인 말을 들어 보면 정말 가르치기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어느 지향점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분재를 보고 있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정원사는 작은 화분에 나무를 심어 놓고 가지를 잘라준다거나 아니면 철사로 감아 원하는 대로 가지의 틀을 잡아 놓는다. 교육도 이와 유사하다고 본다.

상대가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면 어떨까 생각해 볼 일이다. 선생은 항상 상대를 계도하려고 하지만 거시서 야기되는 팍팍한 일이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트지 않은 아귀를 보고 왜 싹이 나지 않느냐고 눈길을 돌릴 일이 아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보면 예전보다 세상은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 거친 그들의 행동과 언어는 테니스 코트에 깔린 앙투카와 같이 곱지 않을까 한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을 맞아 갈채를 보내며 어떠한 역경에도 참고 견딘 인천의 스승 세존의 인욕바라밀을 그려본다.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고급 밤나무 재질
옻칠 마감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고추구 12B
인지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패재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이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 노랑 · 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美, 구족계 계단 설립을 꿈꾸다

워싱턴주 뉴포트 스라바스티 대중들…단일 계단 서원
툽텐 쵸드론 스님 등 구족계 수계자만 5명…모두 순수 미국인

미국인들이 명상에 주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교도가 많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하버드大 '다원주의 연구계획(Pluralism Project)'에 따르면 미국의 불교도는 300만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사찰의 수 역시 적다. 이는 대부분의 불교 수행자들이 홀로 활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 지가 5일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해 불자가 된 미국인 중에서 대만 등지에서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 스님의 불교 공동체가 단일계단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주 뉴포트(Newport WA)의 스라바스티(Sravasti Abbey)는 5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찰이다. 2만 1000명이 거주하는 마을 외곽에 자리한 스라바스티는 미국 서부지역 사찰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가 가장 깊은 사찰로 꼽힌다.

스라바스티의 공식 법회인 상카라마스(sanghakarmas)며, 2개월마다 마련되는 포샤다(posadha: 포살) 법회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받고 있고, 지역 대표 기업 링크엣(LinksYet)의 후원도 받고 있을 정도다.

"우리가 이곳에 사찰을 처음 세웠을 때 3명의 대중이 있었는데, 저와 두 마리 고양이들이죠"라는 툽텐 쵸드론(Thubten Chodron스라바스티 주지) 스님은 "지금은 두 마리 고양이들과 12명의 대중이 있는데, 그들 중 다섯 명이 대만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니 스님"이라며 "서양의 중심인 미국에서 '대단한 일'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시애틀(Seattle) 소재 다르마 교우회 재단(Dharma Friendship Foundation)에서 10년간 대중을 가르치며 수행에 몰두했던 툽텐 쵸드론 스님은 뉴포트에서 티베트 불교공동체를 개척하길 서원하며, 티베트 불교계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당시의 미국인 불자들 중 출가를 서원했던 이들은 대만이나 베트남 등지에서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 툽텐 쵸드론 스님은 "티베트나 인도에서 출가하길 간절히 바랐지만, 미국인으로서 여행 자체가 용의하지 않다"며 "결국 1986년 대만에서 구족계를 받을 수 있었고, 2003년 워싱턴주 뉴포트에 스라바스티를 개원했다.

당시 대만불교 전통에 따르면 구족계는 각 10명의 비구 및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찰에서 10년간의 수행 과정을 밟아야만 가능했다. 툽텐 쵸드론 스님은 "미래에는 충분한 수의 비구·비구니 스님이 이곳 스라바스티에서 수행하며 구족계 계단을 봉행하는 날이 있기를 항상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① 툽텐 촌이 스님(사진 왼쪽)과 툽텐 지그미 스님은 순수 미국인(U.S.-born) 스님으로, 과거 그들의 경력과 열정을 뒤로한 채 미국 불교계 첫 단일 구족계 계단 설립에 헌신하고 있다.
② 스라바스티 사찰의 사부대중들

스라바스티의 툽텐 지그미(Thubten Jigme, 60) 스님과 툽텐 촌이(Thubten Chonyi, 58) 스님 지난해 10월 대만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들은 사미니(sramanerika)를 거쳐 구족계를 수지하는 과정에서 '일상을 떠난 출가자로서 툽텐 쵸드론 스님과 함께 미국에서 첫 구족계 계단을 만들어보자'는 서원을 세웠다.

툽텐 지그미 스님은 수간호사 교육과정을 밟던 중 정신병리학과 명상의 상관관계를 공부하다 1988년 발심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간호사로서 삶이 출가의 기폭제가 됐다"는 스님은 "수간호사가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깨달음을 갈구하고, 그 세계로 뛰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툽텐 촌이 스님은 툽텐 쵸드론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15년간 스님이다. 그녀는 다르마 교우회 재단에서 쵸드론 스님을 처음 만났다. 당시 툽텐 촌이 스님은 '레이키 치유 예술 센터(Reiki Healing Arts Center)'를 공동 소유자로, 툽텐 쵸드론 스님을 후원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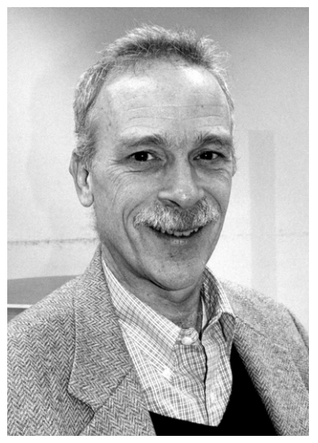
"2007년 출가한 지금 너무 행복하다. 과거의 일도 좋지만, 툽텐 쵸드론 스님을 모시고 불법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인간이 배울 수 있는 최고 가치를 훈습하고 있다"며 "순수 미국인(U.S.-born)인 출가자들이 모여 구족계 계단을 만드는 일에 혼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10여년간 원효사상 심취해 번역 저술

세계의 불교학자(18)

찰스 뮬러 日 동경대 교수



서구권 해외불교 학자들이 중국·일본·남방 불교를 연구하는 대신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 찰스 뮬러(A. Charles Muller·61) 교수다.

미국태생인 찰스 뮬러는 현재 일본 동경대 인문사회 대학원 교수직을 맡고 있다.

찰스 뮬러 교수는 10여 년간 원효 사상에 빠져 원효의 여러 저술을 영어나 일본어로 된 논문으로 발표했고 조선 시대 불교 서적을 영역해 발간했다.

그는 특히 동아시아 고전작품에 관심을 갖고 서구인들을 위해 번역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가 번역한 동아시아 종교·철학 논문과 학술서들은 모두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찰스 뮬러는 조계종이 불경을 영어와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던 한국전통서 간행위원회의 '원효 팀'에 속해 원효 대사 저작의 영어 번역을 맡기도 했다.

뮬러 교수는 〈원효의 마음 철학(Wŏnhyo's Philosophy of Mind)〉 〈완벽한 깨달음의 금강경: 명상에 대한 한국불교 안내서(The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Korean Buddhism's Guide to Meditation, with the Commentary by Kihwa)〉등 5권의 저서와 25편의 논문·저술을 펴냈으며 전자식 사전인 〈한·중·일-영어 사전(Muller's CJK-English Character Dictionary)〉을 편찬했다.

뮬러는 〈원효의 마음 철학〉에서 "원효는 명백한 현실 속에서 간절한 염원이 어떻게 깨달음을 가져 올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며 "그는 불교 본연의 사명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 생각했고, 최소한의 검소한 생활이 진정한 발심과 수도라 보고 시간을 아껴 젊은 시절에 마음을 내어 부지런히 수행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한다.

뉴욕에서 태어난 찰스 뮬러는 물리학자인 부친 밑에서 자라 동양사상과 종교에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됐다. 의과대에 진학했었지만 자신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찾고자 젊은 시절 대학을 관두고 10여 년 동안 동양사상을 좇아 전세계를 다니며 수행했다.

그러다 뮬러는 27세 때 미국 스토닉브룩주립대에 진학해 그는 성철 스님 제자이자 재미 불교학자인 박성배 교수를 만나 원효 사상을 배우면서 한국불교에 심취했다.

찰스 뮬러는 원효 대사에 대해 "통일신라 당시는 동아시아를 지배한 중국의 불교가 현장(玄奘) 그룹과 여래장(如來藏) 그룹으로 나뉘었다"며 "하지만 원효 대사는 열린 마음과 공정한 태도로 중도를 취하면서 부처의 가르침에 충실했고, 오히려 두 그룹을 초월한 사상을 일궜다는 점에서 위대하다"고 평가했다.

뮬러 교수는 원효 대사의 저서에 대해 ▷재미있는 텍스트 ▷어려운 불교 철학을 명확하게 풀어내는 점 등을 매력으로 꼽으며 "원효 대사가 매우 솔직하고 명석하다는 점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저서를 번역할 수록 신이난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스토니브룩대 대학원에서 원

학창시절 자아성찰 위해 수행
조선시대 불교서적 영역 발간
조선전기 승려 '기화'로 박사학위
20여년간 매일 20분간 참선 수행

각경소(圓覺經疏)를 쓴 조선 전기의 승려 '기화(己和)'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4년간 일본 가쿠인대 교수를 지낸 후 2007년부터 도쿄대 대학원으로 옮겨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찰스 뮬러 교수는 20여 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20분 간 참선수행을 하고 있다. 2009년 간행위 영역작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당시 그는 "경전을 보다 내용이 막힐 때면 책을 덮고 참선을 하곤 했다"며 불교학자도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원효와 기화 선사는 완벽한 열린 인식(Openminded)의 소유자이다.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원효의저작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라며 "일본과 달리 한국불교는 서구인들에게 덜 알려졌기에 처음부터 정확한 번역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中 1500여 년 전 사찰유적 발견

타클라마칸사막 타밀분지에서…초기 불교 연구 기대

1500여 년 전 고대 사찰이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발견됐다고 중국 신화사 통신이 5월 9일 전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견된 고대 사찰 유적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를 연구하고, 그 초기 모습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개의 회랑 구조물을 기반으로 높게 세워진 대웅전과 그곳에서 발굴된 대형 좌대는 최소 3m이상의 대형 불상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곳에서의 발굴 과정과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대략 2개월간의 발굴 과정을 밟아야 윤곽이 들어날 것"이라는 우 신화(Wu Xinhua) 박사는 "이번에 발견된 사찰의 법당은 20세기 이후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발견된 법당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며 "회랑구조 건축물은 남북조 시대인 420~589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갔던 사원건축 양식으로, 이 고대 사찰은 그 당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 신화 박사는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소속 신장 고고학 발굴팀을 이끌고 있다.

고대 사찰 유적은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에 위치해 있는 타밀 분지(Tarim Basin)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기원전 3세기 불교국가인 허텐(Khotan·일명 '호탄') 왕국이 번성했었다.

사오 후알얀(Xiao Huaiyan) 박사는 "불교가 인도에서 전래된 경로와 초기의 모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최고의 사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찰 유적에서 발견된 벽화

사찰 유적에서 발견된 회랑 벽면에는 불족, 불보살 등과 상서로운 동물로 수놓아져 있고, 6세기 이후 사라졌던 그리스-불교미술(간다라 미술) 양식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세계불교도대표회의 열려

세계불교도대표회의(World Buddhist Summit, 이하 WBS)가 5월 8일 스리랑카 콜롬보 넬움 포쿠나 마힌다 라자팍사 공연극장에서 개최됐다.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열린 이번 WBS에는 29개국에서 500여 명의 스님들이 참여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조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벨란위라 위마라탄나 테라 교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계 각국의 불교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삐릿(Pirith; 의식으로 진행되는 불교 음악의 일종)에서는 상좌부, 대승부, 금강부, 한국불교 등의 전통의식이 시현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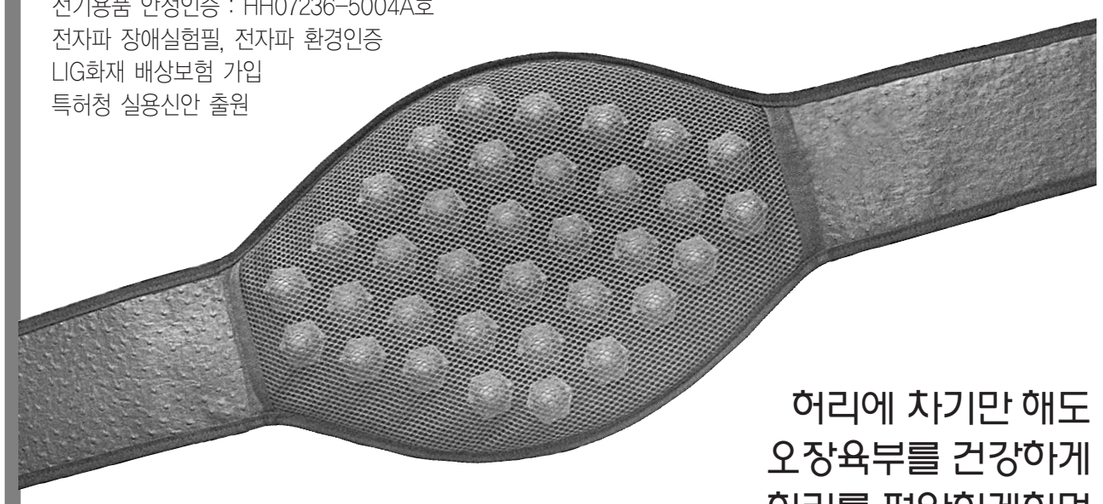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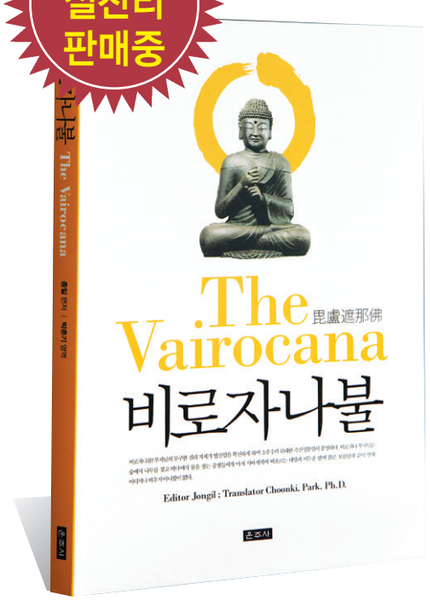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종일 스님의 비로자나불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종일 편저 박춘기 영역
193쪽 값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The Vairocana 毘盧遮那佛

나무 암밤람함캄 청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즉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네 삶이 영원히 나고 죽음에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中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콧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고품격 여름방학 특선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발가능)
양곤 바간 헤호 6일 요금문의
출발일 : 7월 23일, 7월 25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2일]

■ 미얀마 성지순례 * 고품격 상품 *
일 정 : 양곤 바간 헤호 6일 190만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7일 210만원
출발일 : ~~5월30일~~, ~~6월 1일~~, ~~6월 8일~~, 6월14일, 6월21일, ~~6월23일~~
* 전 일정 특급호텔(세도나, 뜨레져, 후핀)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마차), 업그레이드 식사

■ 중 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29만원 / 6월~7월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 전체 일정 모든 경비 포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다라니수저 사찰공양실·불자용수저 "다라니"시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저 불자가정에서 사용하게 품질은 최고! 디자인은 세련!



■ 사찰에는 보시·불자가정에는 선물!
■ 사찰명과 스님법명을 넣고도 제작

사찰 공양간에서 공양을 하다보면 처음 만나는 것이 수저인데 **대부분 모양도 제각각으로 공양 일체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수저는 만들 때 합금을 해서 제작하므로 오래 사용하면 긁히고 달아 보기도 싫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유럽 선진국에서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자주 교체를 한다. **다라니 수저는 기존 수저를 대폭 보완,** 인체 친화형 디자인으로 잡았을 때 손이 편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며 **디자인에서 생산까지 전 공정을 국내 제작하여 재질도 최고급 스텐 27종을 사용 명품 수저로 만들었다.** 수저 상단에는 건강장수를 기원하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단청문양"과 "옴"자를 넣었다.

"다라니수저" 신제품 출시기념
공장도가 3,000원 시판

200set 이상 주문시 사찰명 또는 스님 법명, 원하시는 글씨를 새겨 제작해 드리며(실비), 선물 포교에 활용하게 수저 Set마다 고급 비닐로 포장 되어있다. 다라니 수저는 백화점에서 Set당 7,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공장도 가격 set당 3,000원에 사찰과 불자가정에 보급하고 있다.** 포장단위는 가정용 20Set, 사찰용 50Set, 100Set 단위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793-0023
농협 : 302-0107-6407-81 고기영

믿음과 신뢰 고영산업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민속전통문화축전

연등회 불기 2556(2012)년 부처님오신날

형형色色 달구벌 관등놀이

Merrymaking at the Lantern Festival

일시 | 5월 17일(목) ~ 19일(토) 장소 | 두류공원 야구장 일대

전통등 전시회마당 | 민속 전통놀이 체험마당 | 문화 체험마당 | 공연마당 | 봉축대법회 | 제등행렬

"희망의 달구벌 삼층 관등탑" 점등식
5월 5일(토) 오후 7시 국채보상공원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개막 축하공연
5월 17일(목) 오후 7시 두류야구장 초청가수 송대관 한혜진 외

"불기 2556(2012)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및 제등행렬
5월 19일(토) 오후 7시 두류야구장 식전초청가수 정수라 외

● http://www.gwandeung.or.kr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lorful DAEGU
사단법인 대구불교총연합회 DAEGU BUDDHISM ASSOCIATION

당뇨가 있으십니까 ?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가요? 부인병이 걱정되시나요?



홍삼좋은것은 아는데, 체질에 안맞아서,,'
'산삼 좋은 것은 아는데, 비싸고 산삼이 맞는지 의심이 들고'
'한약(보약)을 지어먹자니 중국산 약재들이라...'

산삼을 능가하는 효능의 연삼(軟蔘)

연삼은 자연신비의 약초입니다. 미나리과의 약초라 체질에 상관없이 효능을 발휘하고 최근 당뇨병을 근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삼의 뿌리에서 산삼보다 높은 사포닌이 검출되었으며 항암작용, 암, 당뇨 같은 만성 질병으로 기력이 몹시 쇠약해 졌을 때 뿌리를 달여 복용하면 기력을 회복하며 혈당을 현저히 내리며 또 항암 작용도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합니다. 연삼에는 자궁 기능 조절 및 진정, 진통, 항균, 설사 및 비타민 E 결핍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노다케닌(nodakenin)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기관지염, 관절염, 혈액순환,빈혈, 각종 부인병, 생리불순, 두통에도 특효입니다. 또한 마음을 진정 시키는 효과도 있어 신경쇠약 치료약으로도 쓸 수 있어 여러 면에서 인삼이나 산삼을 훨씬 능가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귀한 약초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항산화성분으로 암을 유발하고 각종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피부노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모세혈관에 직접 작용하여 수많은 약리작용을 합니다. 특히 암세포 증진 중단과 죽이는 작용을 하게 되고 혈액이 맑지 못한 당뇨병을 근치합니다.



맑고 깨끗한 깊은 산에서 정기를 받고 자란 연삼 (軟蔘)을 직접 캐고 말리며 정성들여 달였습니다. 휴대하여 드시기 좋도록 연삼액을 레토르트파우치에 밀봉하였으며 향이 좋아 음용하기도 좋습니다. 연삼액을 꾸준히 드시면 하루하루 건강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이 정성을 가득 담아 귀하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 구입문의 : 산약연삼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324-8 2F
담당 : 김종관 051)741-3312, 010-8440-1096
■ 입금계좌 : 우리은행 605-674061-18-937 허수윤(010-4759-5152)

국내산 100% 연삼액
30개입 14만원 → 12만원
60개입 28만원 → 23만원

각 사찰에 불사포교에 도움이되도록 액자용. 족자용.
부처님 점안시 복장용. 부처님오신날 선물용.
특별히 제작 원가 보급합니다.

화엄진리의 세계를 함축한
대승경지의 정수. 법성도.

삼라만상의 진리와 영원한 대승법이
담겨 있는 법성도는 수지독송함은 물론
가까이 두고 보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이며.
무장무애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
장애와 걸림을 없게 합니다.



일체 번뇌망상, 괴로움과 슬픔들이 침범할 수가 없는 법성도!

수승한 영험과 공덕.기와 법이 살아있는 화엄 일승 법성도의 바다에서
일체만법과 지혜공덕을 구족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법 성 원 ☎전화 1688-7671
홈페이지 www.bswon.com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승가의 근검은 곧 수행"

조각가사(袈裟)의 유래(由來)

아함부(阿含部)의 〈마하박가〉 8편에 보면 조각을 이어 만든 가사(袈裟)의 유래에 대한 글이 적혀있다. 당시에 비구 스님들은 조각을 하나도 이어 붙이지 않은 상아색의 가사를 입었다 한다. 재가자들은 그 걸 보고 마치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장자와 같다고 비난했다.

제자들이 이를 부처님께 보고 드리자 부처님은 '조각을 잇지 않은 가사를 입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조각을 잇지 않은 가사를 입는 비구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라자가하에 계시다가 닥키나기리로 가는 도중에 마가다국의 들판을 지나게 되었다.

논들은 줄이 질서 정연하고, 선과 논둑이 나란하며, 네모나게 잘 배열되어 있었다. 부처님은 이를 보시고 아난다 존자에게 물으셨다. "아난다여, 저 줄과 논둑과 선이 질서정연하고, 네모나게 배열되어있는 것이 보이느냐?" "예, 부처님!" "아난다, 너는 이 들판의 모습과 같은 비구들의 가사를 만들 수 있겠느냐?" "예, 부처님"

부처님, 논둑 보고 조각 가사 고안
승가의 '청빈' 대표하는 상징

그리하여 아난다는 조각을 이은 가사를 만들어 부처님께 바쳤다. 그 가사를 본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지혜를 찬탄했고 가사의 조각을 잇고 솔기를 만들어 잘라진 조각들을 기워서 만든 것을 찬탄하셨고 삼의(三衣)를 모두 기워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조각을 이은 가사를 만들라 분부하신 이유는 같은 아함부의 〈쭐라박가〉 11장에 보면 그 일화가 상세히 나온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아난다 존자(尊者)는 꼬삼비의 어느 나무 밑에서 좌선에 들었다. 그 곳은 꼬삼비의 우데나 왕 소유의 숲에서 가까웠다.

그 때 후궁들이 왕과 함께 산책 나왔다가 아난다존자의 설법을 듣고 환희에 벅차 500벌의 가사를 존자에게 공양했다. 500벌이나 되는 가사를 보시하였다는 후궁들의 말을 듣고 우데나왕은 존자를 비난하면서 그 사문은 장사를 하려는가 아니면 상점을 차리려나라고 비웃는다.


경허선사 금란가사

그리하여, 우데나왕은 아난다 존자를 방문해 예를 갖추고 묻는다.

"존자여, 그 많은 법복으로 무엇을 하렵니까?"

"낡은 법복을 가진 비구들에게 주렵니다."

"그럼, 낡은 법복은 어쩌렵니까?"

"평상시에 입는 법복을 만들려 합니다."

"그럼, 낡은 평상복은 어쩌렵니까?"

"하의(下衣)를 만들려 합니다."

"그럼, 원래 낡은 하의는 어쩌렵니까?"

"이불덮개를 만들렵니다."

"원래 덮개는 어쩌렵니까?"

"바닥 깔개를 만들렵니다."

"낡은 바닥 깔개는 어쩌렵니까?"

"문간에 까는 신발 닦개를 만들겁니다."

"그럼, 낡은 신발 닦개는 어쩌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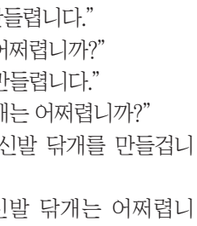
"걸래를 만들겁니다."

"낡은 걸래는 무얼 만들겁니까?"

"잘게 잘라서 진흙에 반죽하여 바닥에 바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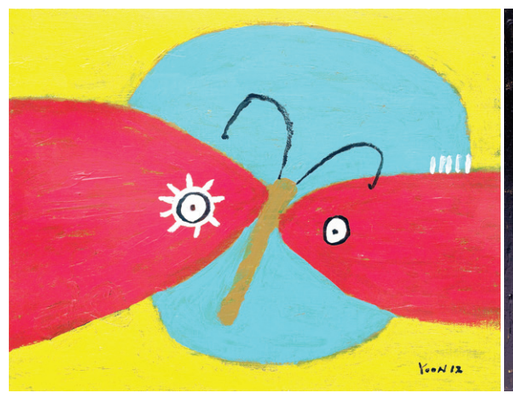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은 석가의 아들들인 이 사문(沙門)들은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모든 것을 아껴 이용하고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500벌의 승복을 더 공양하여 모두 1000벌의 승복을 공양하였다.

승가의 소유물은 모두 청빈과 검소를 근간으로 소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유해진 한국의 승가에서는 과소비가 미덕인 듯한 경향이 짙어져 가고 있다. 부처님의 혜명(慧命)은 부처님의 생활기준을 근간으로 해야 이어진다. 근검은 곧 수행인 것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중생 염원, 형형색색 나비로 승화

성륜스님 작품전 '꿈'…5월 22일까지



성륜 스님은 5월 22일까지 나비(사진 왼쪽)를 소재로 한 '꿈' 전을 연다. 사진 오른쪽은 '관음상'

꿈을 향한 인간 열망 표현한
나비 소재 25점 작품 전시
수행자의 올 곧은 삶 고민
검은 얼굴 관음상으로 펼쳐내

나비는 인간의 염원을 담고 훨훨 날아간다. 때로는 붉음이 되고 때로는 노랑이 때로는 검정이 되어 제 각각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하늘거리는 꿈은 주변을 맴돌며 중생을 웃고 울게 만든다. 나비는 그 모든 희노애락의 근원에 있었다.

성륜 스님의 작품전 '꿈'이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YOON갤러리에서 열린다. 3년간 유화 작업으로 완성한 그림 25점은 인간의 꿈에 대한 열망을 담았다.

묵으로 선의 세계를 펼쳐오던 스님은 이제 유화 작업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욕망 그 색색의 꿈을 펼쳐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초등학생 때 꿈이 다르고 대학생 때 꿈 또 직장인이 되어서 꿈은 변하잖아요. 하지만 늘 이 꿈을 안고 달려나가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수행자의 꿈이 고행을 통한 피안의 세계를 염원한다면 중생의 삶은 다양한 꿈의 실현을 향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두의 꿈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스님의 그림 작업은 고행과 같다.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3평 남짓한 작업실에서 선의 세계를 표현해오던 스님은 이번엔 꿈의 세계를 나비로 화판에 담았다.

"유화 전시는 20년만입니다. 그동안 주로 수묵 작업을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유화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다양한 색깔의 나비를 표현하기에는 동양화보다는 서양화의 질감이 나아요. 그래서 간간히 그려오던 유화작업으로 나비를 통한 꿈의 세계를 펼쳐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정을 빨강으로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염원을 노랑으로 저 먼 피안의 세계를 그려낸 흰색은 인간의 다양한 꿈의 세계를 펼쳐냈다. 그리고 바탕은 작품마다 개성 있는 터치로 질감을 달리해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세계를 표현해낸다. 특히 '영혼의 목소리'라 명명한 남색 바탕의 흰 나비에 대해 스님은 "남색은 삶과 죽음을 오가는 세계의 깊이를 그려내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전시 작품이 대부분 나비로 주요 소재로 등장하지만 한 점만은 예외인 작품이 있다. 검은 바탕에 흰색의 천을 두른 관음상이 유독 눈에 띈다. 스님은 이 작품은 수행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죽비를 치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어느날 그림을 그리다 보니 관세음 보살님이 저를 보면 속이 탈 거라 생각 했어요. 출가를 해서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올곧은 길을 가고 있는지 고민하는 제 모습을 봤죠. 이런 나를 관세음보살님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얼굴도 까맣게 표현했죠"

그림을 그리며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스님은 그렇게 참회도 붓을 통해 표현해낸다. 그래서 오늘도 스님은 수행자의 고뇌와 번뇌 그리고 꿈을 화폭에 담고 있다.

성륜 스님은 1983년 향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주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1988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해 간략한 터치와 따뜻한 색감으로 부처님 물고기 등을 표현한 작품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국내는 물론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도 다수의 전시를 열었으며 제19회 행원문화상 예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02)738-114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공연계에 큰 획이 되는 작품이고 싶다"

(사)이뭣고, 사찰사물 통해
타악 퍼포먼스 공연 마련

6월 1일~7월 1일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려

불교를 대표하는 목탁, 목어, 범종 등 사찰 사물들이 타악기로 변신했다. (사)이뭣고(예술감독 부명)는 6월 1일~7월 1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뭣고 타악 퍼포먼스' 공연을 개최한다.

이뭣고는 사찰 사물을 주제로 타악 퍼포먼스를 공연하는 공연단이다. 2011년 창단된 공연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사찰 사물을 법고 형식으로 특별 제작해 현대적인 난타 퍼포먼스로 연출했다.

공연은 3박 4일간 진행되는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우연히 사물의 소리를 듣고 삶의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십우도를 통해 다양한 성품을 지닌 이들이 행복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했다.

사물 공연은 4막 10장의 십우도를 통해 혼침도거(惛沈掉擧)의 경계 속에서 일상의 삶이 곧 행복한 세계임을 깨닫게 한다.

또 공연은 관객을 자극한 원초적인 울림과 폭발적인 소리로 웅장함을 선사한다. 또한 악기를 통해 화려한 동작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사찰사물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로 등장해 진한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뭣고 총 예술감독 부명 스님은 "공연은 관객들에게 템플스테이와 사찰 사물 소리에 대한 재발견을 안겨줄 것"이라며 "공연문화계에 큰 획이 되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연을 통해 새로운 장르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향후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02)456-6933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법륜 스님 SBS 힐링캠프 출연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서 촬영, 5월 28일 방송 예정


법륜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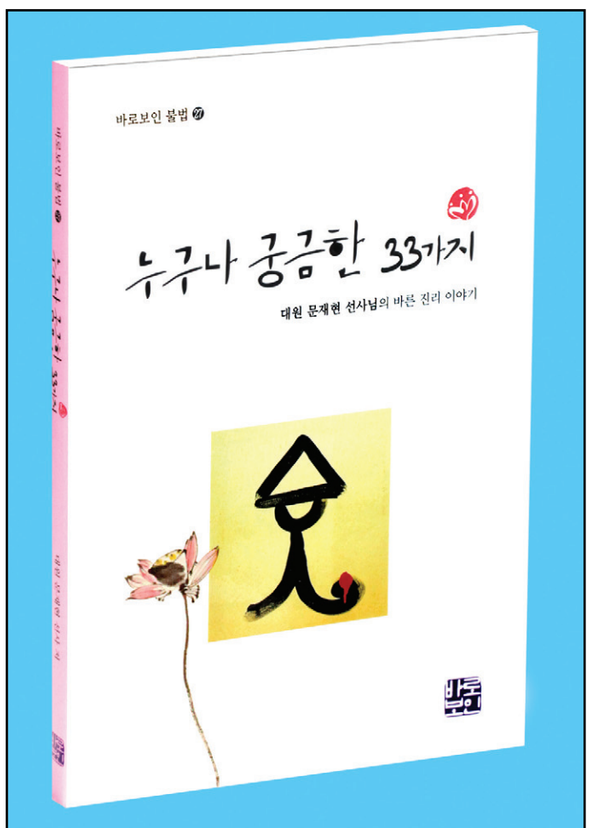
법륜 스님이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 기쁘지아니한가'(연출 백승일·이하 힐링캠프)에 출연한다. SBS는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이사의 다음 편 출연자로 법륜스님이 확정됐다"며 "5월 16일 법륜 스님이 지도법사로 계신 정토회 경북 문경수련원서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륜 스님의 예능출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섭외에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MC 김제동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이날 법륜 스님은 출가하게 된 사연과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까지 됐던 일화, 탈북자 국제 구호 운동에 앞장서게 된 이유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안철수 원장과의 인연 등도 공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힐링캠프' 법륜 스님 편은 28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법륜 스님은 현재 즉문즉설 '희망세상 만들기 100강'을 진행하며 대중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8일에는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의 인터뷰를 통해 스님의 신행·대북인권활동이 소개되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신간!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지구종말론은 사실입니까?
* 이 험난한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각권 10,000원
☎ 031-534-3373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여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 해 약 령 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약령사 법당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해에 찌들어 뼈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령 사 주지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하이퍼전각으로 탄생한 가르침 '법화경'

조성주 작가 '불광전' 인사동 한국미술관서

〈금강경〉전체를 돌에 새긴 '전각금강경'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된 서각가이자 서예가 조성주 씨가 '2000일의 苦行, 국당 조성주의 완각 하이퍼전각법화경-불광展'을 연다.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6여 년간 완각한 〈법화경〉 전문 7만여 글자가 선보인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약5톤의 석인재(石印材)에 거대 전각 종합예술로 승화시킨 불교 설치미술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바로 서예 회화 디자인을 결합한 '하이퍼 전각'을 통해 동서양의 미학을 보여주는 데 있다.

전시 기획자 전수향 씨는 "사방 1센티미터 크기의 법화경 본문 음각 글씨 입자가 여러 개 모여 사방 10센티를 형성한다. 또한 그것들이 조립되어 폭 1미터 이상 6미터까지의 크기로 대형화되는 석인재로 구성된다"고 전한다. 이어 그는 "디스플레이 또한 작품과 최첨단 조명을 조화시켜 입체적 볼거리를 제공한다. 퍼즐과 모자이크 방식을 대입해 창안해낸 독특한 기법의 설치 미술 작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여년 기간 동안 작가가 작업한 작품은 화려하고도 장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중국의 요녕석, 창화석 등 천연석을 사용했는데 그 무게만도 5톤에 이른다고 한다. 조성주 작가는 "서·화·인 그리고 조각과 디자인을 통해 동서양 미학적 요소를 장엄하고도 웅대한 불교 미술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며 "작업기간 내내 고행이라 생각하며 밤낮없이 수행자의 마음으로 임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조성주 작가가 자신의 전각 작품을 보고있다.

서·화·인에 조각과 디자인 결합
동서양 미학 요소 표현한 설치미술
6년여 시간 수행하는 마음으로 작업

〈법화경〉 총 28품 全文을 새겨 넣어 디자인한 '불광'은 본문 총 7만 1002 글자를 해서(楷書)체로 음각·양각하여 완성한 석각입체 작품이다.

작품은 대제(大題)-대자비(大慈悲-4개품)-전법륜(轉法輪-3개품)-광명(光明-3개품)-법우(法雨-5개품)-보탑(寶塔-1개품)-공덕(功德-7개품)-묘음(妙音-1개품)-관음(觀音-2개품)-성불(成佛-2개품)로 나뉘어 전시된다.


조성주 작가는 5월 24일부터 불광전을 펼친다. 이번 전시에서는 법화경 7만자를 새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각 돌에 음·양각으로 작업한 불화의 석각 설치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세간도(世間圖)' '33관음도(33觀音圖)' '여래연지내영도(如來蓮池來迎圖)'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석각 설치 작품 '해탈(解脫)'은 가장 주목할 작품이다.

이는 가로 10cm, 세로 12cm, 두께 2.5cm의 중국산 전각재인 요녕석 인재 약 3000편(약3톤)을 사용해 제작된 대형 작품이다. 이밖에도 특별 석각 설치작품 '흑룡', 전각(인장) 창작 작품, 창작 입체조각 작품은 물론 작가의 서예 작품도 전시된다.

조성주 작가는 "한국 미술사상 최초로 전시되는 하이퍼 전각 설치 미술작품이란 점에서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그간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을 미술계에 제시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했다.

국당 조성주 씨는 원광대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동양예술학전공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전통 서예가다. 금강경 5400여 글자를 세계 최초로 10여년에 걸쳐 1200여방의 전각(인장) 작품으로 완각 1997한국기네스북에 등재됐다. 2007년 음반 '궤적' 1·2집을 취입 '노래하는 서예가'로도 알려지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지리산 지통사 산중미술관 '목어전'

화재 극복하고 제작한 108개 작품 선봬

10년 전 화재로 소실됐던 지리산 지통사 산중 미술관에서 목어전이 상설 전시된다. 2천 여 점의 그림을 화재로 소실하고 다시 그림을 그린 상묵 스님은 액운을 막아주는 목어 108점을 제작해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그는 "목어는 불교문화이기도 하지만 악기이기도 하다. 또한 화재와 잡귀를 물리치는 효과도 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목어가 대중화 되길 바란다"며 취지를 전한다.

스님은 2001년 겨울, 화재로 30년 가까이 수행하며 그려온 그림을 모두 불태웠다. 그는 "수년간 그려온 작품으로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열기 며칠 전, 우연치 않은 화재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며 그동안의 감회를 전했다. 한편, 산중미술관은 목어 민화 병풍 선화 유화 등이 상설 전시된다. 정혜숙 기자


목어 작업을 하고 있는 상묵 스님

전국 40여 '산문' 렌즈에 담아

불교사협 전시회 6월 17일까지

제 17회 한국불교사진협회(회장 고흥택) 회원전 '산문, 참 나를 찾아서'가 5월 14일~6월17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산문을 배경으로 한 회원들의 작품 40여 점이 조계종 국제선센터 등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고흥택 회장은 "회원들 각고의 노력이 담긴 작품들이다. 부처님의 법문 한 자락을 듣기 위해 산문을 드나드는 간절한 마음을 사진 속에 담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국제선센터(5월 14~21일) ▷도선사(5월 22일~25일)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5월 26일~30일) ▷대구문화예술회관(6월 12일~17일) 등지에서 열린다. 한편, 한국불교사진협회는 이번 행사와 더불어 제 6회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 수상작도 발표했다. 대상은 배화여고 이하영 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혜숙 기자


희양산 봉암사 일주문. 한불사 고흥택 회장 작품

보이는 것 모두 진실 아냐…우주 질서 자연에 담아

라규채 '대나무-空에 美親다'展, 서울 갤러리 나우서 5월 22일까지



"우리가 사물을 '보았다'고 인식하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을 본 것이 아닙니다."

라규채 작가는 서울 갤러리 나우에서 5월 22일까지 열리는 '대나무-空에 美親다' 개인전에서 대나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진리의 형상에 다가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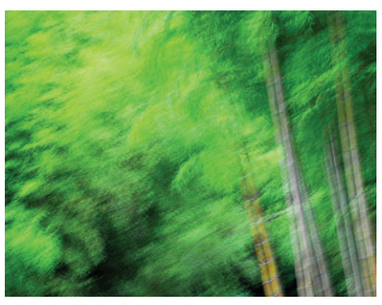
괴테는 〈색채학〉에서 "색은 빛의 고통에서 태어난다. 색은 빛의 무한하고 순간적인 빛의 흐름과 파열로 태어나는 빛의 고통의 산물이다"고 말했다. 괴테가 색을 고정된 정형이 아닌, 빛에 의해 부단히 변하는 무정형·비정형으로 규정한 것이다.

사진은 알아야 보이고 깨달을 때 표현된다. 단순한 기계적 기술을 넘어서 사물의 근원과 본질의 다가섬이 사진의 진가를 말해준다. 사진작가 라규채는 기계가 탄생시킨 이미지에 마음과 정신이라는 관념적 이미지를 더한다. 라규채 작가는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게 아닌, 사람이 사진을 찍는다는 사실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모든 사물을 '공(空)'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무형·유형의 근원과 본질
대나무 흔들림으로 표현

그가 전시를 통해 선보이는 대나무의 모습은 모두 하나의 모습으로 자리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대나무 형상을 사물과 사물의 흐름 속에 놓인 공(空)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대나무의 흔들림 속에서 '실체란 없는 것', '우주적 리듬'을 찾고자 했다.

라 작가는 "공을 아름답게 보고 공과 친하게 싶다"고 했다. 그는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물질에는 본래 실체가 없다. 이번 작업을 통해 형상과 중량이 존재하지 않는 바람을 매개로 사라짐과 드러남, 반복 속에서 우주의 본질인 공을 찾고자 했다"며 "바람으로 인해 형상이 점점 우수 속으로 흩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무(無)가 아니라, 자연과 우주의 원리인 공의 세계, 진공묘유(眞空妙有)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규채의 '대나무' 전 작품

전시는 망막의 단순한 지각활동이 아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지적(可知的)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02)725-2930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불락사 봉축 기념 '아리랑' 공연

평양 예술단 다양한 공연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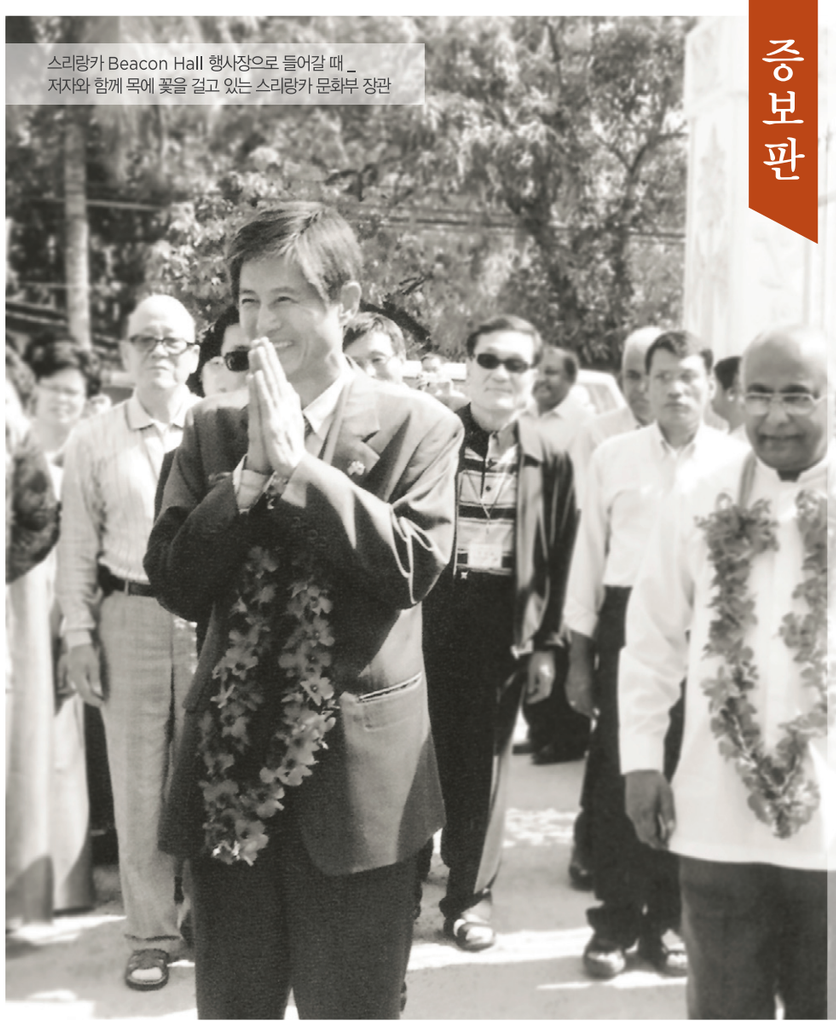
아리랑 세계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불락사에서 들려오는 아리랑' 공연이 전남 구례군 불락사 법고전(法鼓殿)에서 열린다. 5월 28일 제 27회 봉축음악제를 겸한 이번 공연은 김성녀 씨의 사회로 진행된다.

불락사는 "한민족의 영혼을 적셔온 아리랑을 중국이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아리랑을 지키기 위한 염원을 담아 기획하였다"며 "아름다운 예의 가치를 노래한 아리랑을 樂歌 舞로 표현하려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번 공연에는 관음무 태평무 한량무 등의 춤에 아리랑 독주 및 노래, 서도 민요, 진도 아리랑 등이 불려진다. 또한 평양예술단이 ▷'반갑습니다' 노래와 무용 ▷민속무용 ▷여성 독창 ▷혼성 2중창 ▷부채춤 ▷합창 등이 공연된다.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단지 조선족의 요구사항이라며 아리랑을 중국이 자체적으로 무형문화재 등록을 진행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5월 3일 아리랑 등 전통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지난해 불락사 산사음악회 공연 장면


스리랑카 Beacon Hall 행사장으로 들어갈 때 _ 저자와 함께 목에 꽃을 걸고 있는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증보판

佛教는 깨달음의 科學

근대 과학의 巨匠(거장) 아인슈타인! 그는 불교란 지구 위의 인류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범주를 훨씬 뛰어 넘어 범우주적 신앙으로 보았다. 그는 또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며 과학없는 종교는 장님이라 말한 바 있다…

죽음의 족쇄를 풀어라. 무명(無明) 속에 있으면 오온(정신,육체)은 내가 되고, 무명(無明)을 벗어나면 오온(정신, 육체)은 내가 아니네. 무명(無明)속에 있으면 생사(生死)는 나의 운명(運命), 무명(無明)을 벗어나면 생사(生死)는 꿈속의 꿈이라네.

–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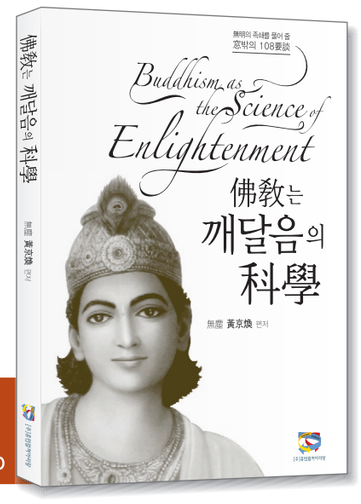
무진 황경환 선생이 엄선한 주옥같은 108경구를 읽다보면 많은 경전에 대한 섭렵과 경전에 대한 통찰에 새삼 옷깃을 가다듬게 한다. 특히 人間(인간)의 참 재산은 물질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고 자신의 無知(무지)로 인해 선하지 못한 그 마음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라는 대목에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한다.
– 한국 빠알리 성전협회 대표 퇴현 전재성

근본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 과학적 지식이나 사회적 불교사상을 통해 현대적으로 해석한 책,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게 하고, 또 익숙하게 불교적 신행에 젖어 있던 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으리라.
– 동국대학교 교수 정병조

그가 펴낸 수상집(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라는 책을 읽어 보며 불교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나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태평양 시대 위원회 이사장 김동길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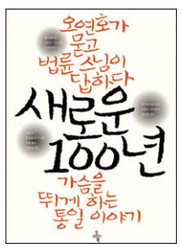
저자 황경환
사) PTP 한국본부 제 13대 총재역임
사)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와 연구위원 역임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
바른불교실천포럼 회장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 교수
주) 진양유조선 대표이사
주) 경주 ICS 대표이사

반야심경_ 김사철, 황경환 공저 | 저서
신라불교의 윤리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연구논문



가격: 15,000원 / 구입문의: 054)744-8211~2
하나은행 (황경환) 502-910341-61007
주)휴먼컬쳐아리랑(도서출판 생각쉼표): 070-8866-2220

남북통일은 미래 비전적으로 접근해야



새로운 100년
법륜 · 오연호 지음
오마이북
1만5천원

"새로운 100년을 만드는 일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그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무척 가슴이 벅차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새로운 100년을 만들고자 권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고도 핵심적인 일은 우리민족의 가슴 한복판을 떡하니 짓누르고 있는 분단이라는 바윗덩이를 들어내고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권, 평화, 통일뿐 아니라 '즉문즉설'로 유명한 법륜 스님과 2000년 '모든 시민은 기자다'를 모토로 '오마이뉴스'를 창간했던 오연호 대표가 2011년 3개월 동안 나눈 대담을 정리한 책이다. 대담의 주제는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남북통일'이다. '오연호가 묻고 법륜 스님이 답하다', '가슴을 뛰게 하는 통일 이야기'라는 두 개의 부제가 붙어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통일이라는 용어에 무척 식상해 있어요. 아주 진부한 용어로 들리죠. 더 이상 통일이 가슴을 뜨끈뜨끈하게 하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이 대담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책(대담)은 대한민국에서의 '통일'이란 단어의 신선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60년이란 세월이 지난 단어의 신선도는 위에서 말한 대로다. 제조일자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의한 분단이 제조해낸 '통일'에는 제조일자만이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유통기한이 없다. 하지만 6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기에 스님의 말대로 '통일'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처럼 식상하고 진부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TV에서 볼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왜 그런 감정이 통일운동으로 번지지 못하는 것일까? 통일을 누가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 그렇다 통일이란 문제는 이제 그것이 국민 모두가 공히 인식해야 하는 '문제'인지조차 불분명해졌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한 언론인은 왜 스님에게 '통일'을 물었을까. "법륜 스님의 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는 남과 북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세심히 살펴보고 굶주린 북한 동포를 도우며 통일방안을 연구하는 일을 줄기차게 합니다. 통일을 함께 추진할 '통일의병'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통일'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스님은 1998년부터 준비해 2004년에 공식적으로 평화재단을 출범시켰다. 이 단체가 준비하는 것이 '통일'이다.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통일이 참 멀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시험공부 하랴 취직 준비 하랴 바쁘고 30, 40대 직장인들은 출산율 1.14명이 보여주듯이 아이 둘을 낳아 기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통일에 관심을 갖고 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새로운 100년〉의 대담자인 법륜 스님(사진 왼쪽)과 오연호 대표가 5월 10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내 북카페 '산다미아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법륜 스님의 '통일' 주제 즉설
2004년에 평화재단출범 시켜
통일은 민주화 완성의 과제

"누구나 지금 당장 대처해야 할 현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미래를 생각해야 할까요? 미래가 곧 현재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청년들이 계속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갈 것은 아니잖아요. 10년이나 20년 후면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활동할 텐데, 그때를 위해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죠." 스님은 남북이 분단된 채로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한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자유가 유지될 수 없고,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새로운 통일에 대해 제시한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본 시각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봐요. 과거 청산적 통일론이 아닌 미래 비전적 통일론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1세대 통일론은 분단이 됐으니 일단 분단을 청산하자는 거죠. 비용이 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과거를 청산하자는 겁니다. 반면 미래 비전적 통일론은 우리가 앞으로 잘 살려면 통일을 해야 하고, 통일 해야만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청산적 통일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과거 청산적 통일이 늙은 부모를 어떻게 모시느냐의 문제라면, 미래 비전적 통일은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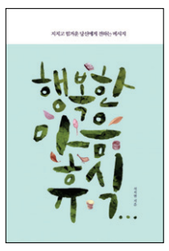
책은 통일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미래의 100년을 설계하는데 통일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묻고 답한다. 민족의 문제에서, 종교의 문제에서, 역사의 문제에서, 현실의 문제에서 등등 즉문즉설이 쏟아진다. 그리고 '통일'은 다시 새롭게 부각된다. 다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 "스님, 왜 통일을 해야합니까?" "통일은 우리의 독립, 성장, 민주화를 완성해주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과거의 100년을 청산하고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일이지요. 이 정도면 인생을 한 번 바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통일이라는 재미있는 일을 때마침 우리가 잘 만났다고 생각하면 힘이 돋고 기가 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통일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다시 가슴을 뛰게 하는 책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지혜롭게 휴식하는 방법은?

행복한 마음 휴식

석지현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5천원



만병의 근원은 이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육체 병을 일으키는 질환의 뿌리인 것이다.

스트레스라는 질환의 근원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휴식이다. 휴식은 몸의 휴식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의 온전한 휴식을 말한다. 출간된 〈행복한 마음의 휴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도의 오쇼 라즈니쉬의 〈명상비법〉을 소개했던 저자가 지치고 힘겨운 현대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이 책은 명상에 관한 고전적인 책으로,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슬람 신비주의(수피) 명상도 모두 이 책으로부터 나왔다.

"감각이 그 대상을 만나면, 거기 그 대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집착이다. 그 다음 그 대상을 소유하려고 한다. 이것이 욕망이다. 그러나 욕망이 충족될 수 없을 때,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극심한 투쟁력이 생긴다. 이것이 분노다."

책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듯 딱딱하게 굳어버린 감정과 영혼을 위한 문장들로 이어진다. 문장들은 생각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 생각은 스트레스가 아닌 휴식으로 인도하는 메시지들이다.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간다', '고뇌의 시작', '내 심장의 맥박' 등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쉴 수 있다. 글자와 글자,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쉬고 싶은 만큼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삶은 '고통'이다.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게 된다. '삶'은 소리만 다르지 '고통과 같은 말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현대는 자신이 한계를 깨트리고 넘어서고 극복하겠다는 욕구가 강한 사회다. 욕구가 강한 사회일수록 그에 따른 삶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통은 더욱 심해진다. 저자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니 잠시 멈추어 쉬면서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라고 권한다. 삶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쉬는 온전한 휴식을.

박재완 기자

생로병사 인간의 한계 직시

죽음 공부

박영호 지음 | 교양인 펴냄 | 2만2천원



다석 사상으로 통찰하는 동서고금의 죽음 철학. 저자는 우리말과 글로써 철학을 한 최초의 사상가였으며, 불교, 노장 사상, 공자와 맹자 그리고 기독교까지 두루 탐구하고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사상 체계를 세운 다석 류영모(1890~1981)의 사상을 바탕으로 죽음의 철학을 살피는 책이다.

인류의 영원한 의문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이 책에서는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노자로부터 키르케고르 파스칼 스피노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 이르기까지, 생로병사와 본능에 갇힌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죽음의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었던 이들이 남긴 귀한 조언이 담겨 있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 한계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일까?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근원적인 한계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일까?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죽음 공부〉는 언젠가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박재완 기자

공(空)으로 풀어낸 반야심경

알기쉬운 반야심경 강설

법정(진언종)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반야심경'은 한국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대중적인 경전이다. 모든 의식과 행사에서 독송될 뿐만 아니라, 불교의 정수를 압축해 놓은 진수이기 때문이다. 270자의 짧은 글 속에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부 경전을 농축해 담고 있다. 또한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폭은 대해와 같다. 그래서일까? 반야심경에 대한 해설서만도 수백 종에 이른다. 저자는 여기에 또 한 권의 해설서를 더하면서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책은 시종일관 '공'과 '비움'의 이치를 설한다. 반야심경의 모든 가르침은 공으로 회통된다. '공'이 핵심 사상인 반야심경을 이야기하면서 공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단순히 사상적, 이론적, 교학적 풀이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공'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실천, 그것도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강조한다.

저자는 '공'의 가르침을 통해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바꾸라고 주문한다. 또한 저자는 반야심경 한 자 한 자, 개념 하나 하나, 꼼꼼하게 그 뜻과 의미를 새기면서 독자들을 친절하게 이끌어준다. 그리고 친절한 해설은 불교의 기본적 가르침, 기본 교리들을 전하는 불교 안내서 역할을 한다. 저자는 이런 해설을 통해 중생들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일러준다. 이렇게 반야심경은 반야의 지혜에 눈뜨게 하여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나침반이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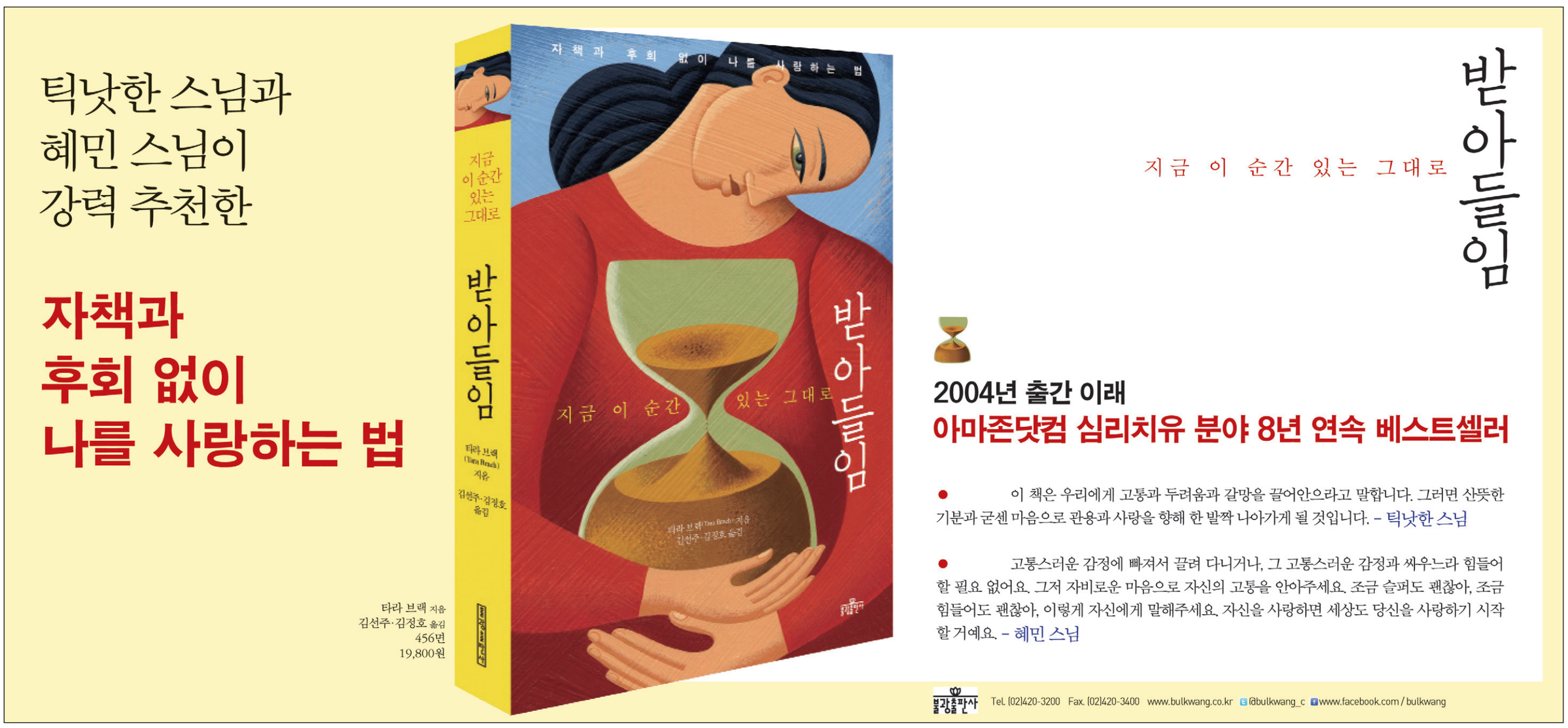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5/8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5	탄허록	탄허	휴
6	경허	일지	민족사
7	걱정말고 기도하라	법안	은행나무
8	유식불교의 이해	목경찬	불광출판사
9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원택	글씨미디어
10	깨달음으로 가는 위빠사나 명상	해공	근원출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고통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임
타라 브랙 지음
김선주, 김정호 옮김
불광 펴냄
1만9800원

이 책은 누구나 겪었을 법한 얘기, 누구나 겪고 있을 마음의 고통을 다루고 있다. 사업이 망해서 자책하는 40대 중반의 가장,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아들과 다투는 엄마, 먹는 걸 도저히 멈출 수 없는 20대 여성 등 우리가 한 번쯤 되어봤거나 우리 곁에 있음직한 누군가다.

심리치료와 명상 분야 전문가인 저자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 얘기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려낸다. 왜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됐는지, 고통을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떤지, 명상을 통해 고통을 선명하게 바라봤을 때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고통서 벗어나는지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이 책이 무엇보다 대단한 건, 저자 스스로 일상에서 겪은 고통들을 고백하고, 어떻게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졌는지까지 밝힌다는 점이다.

저자는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드러냄으로써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으며, 우리는 치료자와 환자로 나뉘는 게 아니라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친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 속 얘기들은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의 얘기다. 내가 나를 향해 퍼붓던 비난의 화살에 대한 얘기며,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낸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누구든, 자연스럽게 얘기 속으로 빠져들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독서를 마치고 주위를 둘러보라. 어느덧 나를 더 사랑하고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자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면 일도 잘하고 사랑스러워 보여서 더 비참해진다. 대체 왜 그럴까?

바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

그렇게 자책에 빠져 괴로울 때, 위로는 큰 힘이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위로 콘텐츠는 위로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왜 사람들이 아파하는지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위로는 순간의 편안함과 만족감은 주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하도록 이끌지는 못한다. 심지어는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저 잠시 쉬면서 기운을 차린 후 다시 열심히 뛰어."라고 말하는 위로도 있다. 이런 위로는 힘든 현실을 버티게 만드는 '진통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자책에 빠지고, 다시 약을 찾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서 자책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근본적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내 잘못이 아니다'와 '나는 순수한 의식이다'라는 두 가지 진실을 만나야 한다. 이 책이 이 두 가지 진실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한 편의 옴니버스 드라마처럼 구성된 건, 그 진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저자스스로 일상서 겪은 고통 고백
모든 존재 어려움 서로 연결돼 있어
심리상담기법과 불교명상 활용
각장 말미에 훈련 명상법 소개

앞에서 언급했듯,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이들에게는 위로와 공감이 큰 힘이 된다. 저자 역시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은 위로와 공감을 보내 힘을 북돋아준다. 그 다음에 저자는 그들이 사건의 '두 가지' 진실을 알게 하는 과정을 밟는데, 이때 심리상담 기법과 아울러 불교의 명상법이 활용된다.

저자가 명상법을 활용하는 건, 명상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이 넓어지게 해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과 여유를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불교' 명상일까? '모든 존재의 고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지혜가 문제의 초점을 '나'에서 '전체'로 옮겨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 명상은 우리가 '내 잘못이 아님'을 깨닫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근본적 수용' 과정을 밟아간다. 근본적 수용이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본 것을 열린 마음과 친절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 안는 것"이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나쁜 것을 밀어내거나 억누른다면, 그 밀려난 것이 언젠가는 폭발하고 만다. 대신 불교 명상을 통해 기른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본적 수용을 한다면, 고통 역시 삶의 일부이며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흘러 지나가는 개별 경험들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라보는 '순수한 의식'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자책과 후회를 우리와 동일시하는 습관에서 자유로워져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된다.

이 책 각 장 말미에 실려 있는 명상법은, 행복을 유지하고 근본적 수용을 강화하기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법이다. 마음챙김 명상법, 삶을 미소로 감싸 안는 법, 나를 자비로 감싸 안는 법, 티베트의 통렌 수행법까지, 각자 처한 상황에서 자기의 기질에 맞는 방법을 골라서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아픈마음, 수행으로 녹이자



누구도 아프지 말아라
글 · 사진 정영
달 펴냄
1만3800원

시인 정영은 처처에서 우직하게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을 만나뵈며, 내주시는 말씀들을 글로 적고 스님의 모습과 절 안 풍경을 사진으로 담았다. 툭툭 내주시는 스님들 말씀이 때론 눈물짓게 하고, 때론 메시지가 되어 멍한 마음을 깨우는 죽비소리처럼 다가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시인의 바람이, 마침내 '누구도 아프지 말아라'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영원한 행복은 내 안 깊숙한 곳에서 찾아야 한다"(허운 스님), "연습하면 돼요. 불행한 순간에도 행복을 되뇌면 마음은 돌아갑니다"(성전 스님), "감사한 것은 그 동안의 불행이 사라진 것이니 감사한 것이고, 심심한 것은 걱정이 없으니 행복하다는 것이지요."(일귀 스님) 등등. 이처럼 이 책에 등장하는 스님들의 법문 주제는 '행복'이다. 스님들도 법명만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 지는 세민, 허운, 성전, 원택, 혜관, 무애, 혜총 스님 등 총 30분이다. 이 스님들의 말씀을 먼저 본문에 담았다.

그리고 본문 사이에는 게송(불교적 교리를 담은 한시의 한 형태)을 실어 옛 스님들의 인생에 대한 맑고 향기로운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유익함도 주었다.

이 책은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고,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며, 세상에 물든 아픔을 보듬어 위로해 준다. 자기를 바로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들에게는 나를 깨우고 다독이는 죽비소리가 된다. 삶과 죽음, 집착과 미혹, 존재에 대한 인식처럼 낯설고 무거운 생각들을 친근하고 익숙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이기도 하다.

책은 마치 스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진솔한 경험이 되며, 한 줌 내주신 그 말씀들은 우리 가슴에 깊게 물들어 이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행복'이라는 향기와 늘 동행하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산하대지가 있고 보이지 않는 허공이 있듯이, 행복도 보이는 행복이 있고 보이지 않는 행복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닦아서 지혜로워져야지요."

결국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다는 말씀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아름다움과 더러움을 판단할 것이 아니란 말씀이다.

스님들은 찾아든 시인에게 한 줌의 말씀들을 내어주셨다.

수행의 삶과 그 삶에서 피는 고요한 깨달음의 이야기를 시인은 소중히 담았다. 수행의 삶은 스님들이 어느 경지에 이르러 이미 완성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애쓰는 과정의 삶이고, 또한 실천의 삶이다. 그 안에서 한 줌 내어주신 말씀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불자, 때론 스님 자신에게까지 자기다운 모습,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밝혀 보게 하는 마음의 등불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고요한 그 말씀들을 세상에 전해야겠기에 여기에 모은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세상 숲에도 짙은 초록이 드리워질 마음으로, 귀한 말씀 소중히 한 권의 책 안에 담았다. 누구도 아프지 말아라는 세상에 물든 우리의 마음

30여 스님 '행복' 주제 법문들
본문사이에 게송 싣고 해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현대인 마음 수행법 실천 필요

을 녹이고 삶의 의미를 아름답게 물들일 것이다.

이 책은 무던히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준다.

'누구도 아프지 말아라'는 아픈 당신을 위해 그만 아프기를, 이제 아프지 말라는 간절한 바람이며,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무작정 우는 당신을 위해 그 마음을 보듬어주는 절실한 위로의 말이다. 아파서 서러이 울고 있는데, 아무도 우는 이유는 알려고 하지 않고 울지 말라고 윽박지르기만 하니 더 서러워져 울음이 북받치는 세상이다. 밖에서만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 쾌락에 빠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음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나를 참아내게 하고, 나를 살게 하며, 나를 존재하게 하는, 충분한 위로이며 이유이다.

또한 불교가 종교이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불교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며, 현대인일수록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수행법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김주일 기자

삶의 고난에 대응하는 지혜 설명

번뇌를 껴안아라

현진 글 | 담엔북스 펴냄 | 1만5천원



단단한 필력과 서정성을 갖추고서 잔잔한 이야기로 강한 울림을 전해 온 현진 스님의 산문집. '삶의 고난에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삭발하는 날〉 〈산문, 치인리 십번지〉 〈오늘이 전부다〉 등으로 일찍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에게 호평을 받아온 스님은 이번에도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와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번뇌의 주된 요인 세 가지를 큰 주제로 잡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대상인 탐심, 진심, 치심이다. 그리고 이를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했던 동서고금의 지혜들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탐은 다섯 가지 욕망 다스리기. 탐은 남의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시를 행하라고 말한다.

둘째, 진은 화내는 습관 다스리기. 진은 자신의 교만으로 타인을 욕되게 하고 분노하는 것인데, 성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비한 마음을 내라고 한다.

셋째, 치는 어리석은 마음 다스리기. 치는 물질에 얽매여서 넋이 나간 상태. 이를 위해서는 지혜를 닦아야 한다.

스님은 전한다. 그물코 하나를 당기면 그물망은 따라오는 법. 삶이 원리를 크게 통찰하면 세세한 번뇌는 우수수 떨어질 것이다.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 중생 바다에 몸 던져라

이게 도무지 뭣 하자는 소린지 모르겠고

김영명 지음 | 개마고원 펴냄 | 1만5천원



2000만 불자 시대라고 한다. 과장이 섞인 걸 감안해 통계청 공식발표를 기준으로 잡아도 한국의 불교인구는 1000만을 가볍게 넘어선다. 어느 쪽이든 대단한 숫자이다. 그런데 과연 한국 불교는 이 숫자에 합당한 무게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걸까? 이름난 승려의 불교 서적에서 말하는 무상이니 무아니 공이니 중도니 하는 것들은 설명을 들어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수행참선에만 정진하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고 보살이 될 수 있는 걸까?

주목받는 정치학자이자 초보 불자인 저자는 한국 불교가 중생에게 매우 불친절한 종교라고 말한다. 알쏭달쏭 선문답과 화두 들기, 전통에만 매달려 화석처럼 굳어버린 교리해석, 불립문자를 뽐내지만 정작 스스로를 한문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린 자기 모순, 초보자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수준 차이', '낮은 근기' 탓으로 치부하는 교만, 대승보살이 되라며서 정작 중생구제보다 종단 구제에 몰두하는 교단의 밥그릇 챙기기…. 그래서 〈이게 도무지 뭣 하자는 소린지 모르겠고〉에서는 큰스님들이 보여주는 심오한 철학적 사유를 담는 대신, 비전문가의 눈으로 불교 핵심 원리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이를 잣대로 오늘날 한국 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주일 기자

거룩하신 부처님의 도량이
철조망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만등 불사 성취기도 발원문

철조망이 강원도 동해시 대명산 향운암 진출입로에도 설치 되어 있습니다. 동해 대명산 향운암 출입로 철조망제거 기원만등 불사 동참을 발원 합니다. 향운암은 약70년 이상 된 약사기도 도량 인데 사찰 진출입로가 2011년 4월4일 포크레인작업 과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참배객과 등산객 농민들의 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산주는 평당4만원 구입후 20만원에 전부매입을 요구함) 사찰진입로 회복을 위하여 시청, 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과 탄원을 수차례 하였지만 산주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인지 진입로 철망제거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어서 소승 만등불사 기도 를 발원하여 기도 회향에 소통되지 못한 진입로와 아름다운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 지길 발원하오니 전국의 불자님들의 만등 불사 1인 1등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인 일등 동참만이 철조망으로 막힌
사찰 진입로 소통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만등불사 입제 : 2012년 5월 28일 (음 4월 8일)
동 참 안 내 : 1인 1등 1만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689501-01-477577
우 체 국 202093-01-006018

약사기도 도량 대명산 향운암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496-4 (발한천길 43-68)
전화 033) 532-1773. 010-2873-2888

향운암 주지 무진 합장
신도회,관음회 일동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5월 6일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무열왕이 태종으로 불릴 수 있었던 까닭은?

삼국통일 공로로 문무왕이 '태종' 봉인

1. 김유신과의 혈연동맹

삼국통일은 고조선 해체 이래 한반도 최초의 통일이었다. 삼한일통은 고조선이 해체되며 갈라진 부여와 고구려 및 한(韓), 그리고 옥저와 동예 등을 모아 처음으로 '한민족' 이란 원형을 만들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당과 대발해, 신라와 왜(일본)의 사국체제로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된 의미도 지닌다.

선덕여왕은 통일을 위해 그 기반을 닦았다. 그는 진흥왕 때 착공했던 황룡사를 완공하고 자장의 주청에 의해 황룡사 구층탑을 세워 국민 여론을 한 곳으로 모았다. 선덕여왕이 마련한 토대 위에서 진덕여왕을 거쳐 왕위에 오른 김춘추는 삼한일통의 물꼬를 텄다.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삼한일통을 위해 김춘추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는 당시 신라에서 진골세력으로 편입돼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가야계의 김유신과 결탁했다. 가야계의 세력 유지를 위해 진골계와의 연합이 필요했던 김유신 역시 이를 바랐다.

이미 오래 전부터 김춘추는 김유신과 가까이 지내오고 있었다. 처음 김유신의 동생인 보희(寶姬)가 서산에 올라 소변을 보자 서울이 가득 차는 꿈을 꿨다. 다음날 아침에 보희가 동생 문희(文姬)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문희가 듣고 말했다.

"내가 그 꿈을 살게"

결혼 동맹으로 김유신 군사권 지원받아
신라계 · 가야계 합일 상징

보희가 "무엇을 주겠느냐"고 하자 문희가 말했다.

"비단치마면 팔겠어?"

"좋다"

문희가 치맛자락을 벌리자 보희가 "간밤의 꿈을 너에게 준다"고 말하며 꿈을 넘겼다. 그로부터 10여 일 뒤 김유신이 정월 오기일(五忌日) 김춘추와 함께 축국(蹴鞠)을 하다가 짐짓 김춘추의 옷을 밟아 옷고름을 떼었다.

"우리 집에 들어가 꿰맵시다."

이에 김춘추가 김유신의 집에 따라 들어갔다. 김유신은 보희를 시켜 김춘추의 옷을 꿰매게 하였으나 보희가 사양하자 김유신은 문희에게 이를 시켰다. 김춘추가 김유신의 뜻을 알고 문희를 가까이해 자주 왕래하더니 아이가 잉태됐다.

어느 날 김유신이 문희가 잉태한 것을 알고 꾸짖었다.

"네가 부모에게 고하지도 않고 잉태하였으니 어찌된 일이냐?"

김유신은 문희를 불태워 죽일 것이라고 온 나라에 소문을 퍼트렸다. 하루는 선덕여왕이 남산에 행차하는 것을 기다려 뜰 안에 나무를 쌓고 불을 질러 연기가 솟게 했다.

선덕여왕이 이를 보고 "무슨 연기냐?"고 묻자 신하가 답했다.

"김유신이 그 누이를 불태워 죽이려고 한답니다."

선덕여왕이 연유를 묻자 신하들이 답했다.

"그 누이가 지아비 없이 잉태한 까닭입니다."

선덕여왕이 "누구의 소행이더냐?"하고 묻자 곁에서 왕을 수행하던 김춘추가 갑자기 안색이 변했다.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보고 "네 소행이로구나. 빨리 가서 구해 주도록 하라"고 명을 내렸다. 김춘추는 왕명으로 화형을 중지시키고 떳떳이 혼례를 올릴 수 있었다.

김춘추는 문희(문명왕후)와 결혼한 뒤 뒷날 보희와도 결혼했다. 그리고 문희와 사이에서 난 셋째 딸 지소(智炤)를 김유신에게 시집보냈다. 김춘추는 김유신의 매제이자 장인이 됐으며 김유신은 김춘추의 처남이자 사위가 됐다.

이러한 '결혼동맹' 은 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골세력에 맞서는 진골세력의 약진과 문(文)의 세력과 무(武)의 세력의 결합을 의미했다. 나아가 김유신의 가야세력과 김춘추의 신라세력의 연합을 의미했다.

선덕여왕 11년(642)에 의자왕이 장군 윤충(尹忠)을 보내 신라 대량주(大梁州, 陜川)를 침공했다. 성이 함락되고 김춘추의 딸 고타소랑(古陀炤娘)과 사위 품석(品釋)이 처형됐다. 김춘추는 "대장부가 어찌 백제를 못 없앤단 말이냐"며 백제에 원한을 품게 된다.

2. 동아시아 대외교가로 변모

김춘추는 탁월한 외교가이자 전략가였다. 그는 신라의 이익을 위해 고구려와 왜국 및 당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전개했다. 김춘추는 먼저 백제에 대한 오랜 원한을 풀기 위해 군사를 청하러 고구려로 향했다.

642년 6월 5일에 김춘추는 사간(沙干) 훈신(訓臣)과 함께 고구려를 향해 길을 떠나 대매현(大買縣)에 도착했다. 그 고을 사람인 사간 두사지(豆斯支)가 청포(靑布) 300보(步)를 그에게 선사했다. 김춘추가 고구려 경내에 들어가자 고구려왕이 태대대로(재상) 개금(蓋金)을 보내어 사관을 마련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하지만 어떤 이가 고구려 왕에게 고하기를 "신라의 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온 것은 우리의 형세를 정찰하러 온 것이니 미리 후환(後患)을 없애십시오"라고 했다. 왕은 김춘추에게 일부러 어려운 요청을 했다.

"마목현(麻木峴, 痲木峴)과 죽령(竹嶺)은 본디 우리 땅으로 신라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대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했다. 김춘추가 대답하기를 "국가의 토지를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소. 신은 감히 명령을 듣지 못하겠소"라고 답했다. 왕은 노하여 김춘추를 옥에 가두었다.

김춘추는 옥중에서 가지고 간 청포 300보를 당시 왕의 총신이었던 선도해(先道解)에게 남몰래 선사했다. 선도해는 술상을 차려 가지고 와 술이 얼큰해지자 김춘추에게 농담조로 말했다.

"그대도 일찍이 거북과 토끼의 이야기를 들었소? 옛날 동해 용왕의 딸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토끼 간을 구해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였소. 하지만 바다 속에 토끼가 없으니 어쩌겠소. 그때 한 거북이 용왕에게 "제가 구해 오겠습니다"하고는 육지로 올라갔소. 거북이 토끼를 보고 '바다 속에 섬 하나가 있는데 샘물도 맑고 돌도 하얗고 숲도 무성하고 좋은 과일도 많으며 덮거나 춥지도 않고 매나 독수리 같은 것도 없다. 네가 만일 거기에 간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 것이다' 하며 꾀었소. 드디어 토끼를 등에 업고 바다를 2~3리쯤 헤엄치다 거북이 토끼한테 말했소. '지금 용왕 딸이 병이 들어 토끼 간으로 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를 업고 가는 것이오' 토끼가 답하기를 '나는 신명(神明)의 후손이라 오장을 꺼내 씻어서 바위에 두오, 깜빡 잊고 바로 왔소. 나는 간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양편이 다 좋은 일이요' 라고 말했소. 거북은 그 말만 믿고 되돌아가니 토끼는 곧 풀 속으로 뛰어 들어가며 하는 말이 '어리석은 놈, 간 없이 사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고 했소"라고 말했다.

김춘추는 선도해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김춘추는 고구려왕에게 글을 올려 "마목현과 죽령은 본디 대국의 땅이 온즉 신이 본국에 돌아가는 즉시 우리 왕께 청해 돌려드리도록 하겠소. 저를 믿지 않으신다면 저 해(日)를 두고 맹세하겠소"라고 말하니 왕은 기뻐했다.

당시 신라에서는 김유신이 용사 3000명을 뽑아 김춘추를 구하기 위해 고구려를 치려했다. 고구려 첩자인 승려 덕창(德昌)이 고구려왕에게 이 일을 고하자 왕은 김춘추를 더 이상 억류하지 않고 후한 예로 대우해 돌려보냈다.

딸사위 죽음의 원한 삼한통일로
고구려 · 왜 · 당 오간 명사절 활약

신라로 돌아온 김춘추는 진덕여왕 원년(648)에 백제를 치기 위해 다시 왜국에 건너간다. 〈일본서기〉는 김춘추에 대해 '용모가 아름답고 쾌활하게 담소했다' 고 전하고 있다. 군사를 청하는 일이 여의치 않자 왜국을 떠난 김춘추는 당나라로 건너가 한반도 통일의 계획을 세웠다.

김춘추는 당 태종에게 군사를 지원해 달라고 했다. 당 태종은 "듣자니 그대 나라에 김유신이 있다는데 그 인품이 어떠한가?"고 물었다. 김춘추는 "김유신이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다 하나, 만일 상국(上國, 唐)의 위력을 빙자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웃 나라의 침략을 막을 수 있으오리까?"라고 답했다. 이에 당 태종은 "진실로 군자의 나라다"고 흡족해 하며 조서를 내려 소정방(蘇定方)으로 하여금 20만 군사로 백제를 치게 했다. 고구려와 왜국에서 군사를 지원받지 못한 그였지만 삼한 일통을 위해, 또 삼국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의 원대한 다짐은 결국 당나라 원군을 이끌어 낸 것이었다.

3. 삼국통일의 정초자

654년 승하한 진덕여왕은 아들이 없었다. 김유신은 재상으로 있었던 이찬 알천(閼川)과 상의해 이찬 김춘추를 왕위에 나아가게 했다. 바로 태종 무열왕이다. 무열왕은 삼국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일 먼저 백제를 과녁으로 삼았다.



태종무열왕

〈일본서기〉에서 석도현(釋道顯)은 "김춘추는 본래 고구려를 치는 데 뜻이 있었지만 먼저 백제를 쳤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유신과의 혈연동맹은 원효와의 동맹으로까지 이어졌다. 원효가 하루는 춘의(春意)가 동해 거리에서 외쳤다.

누가 내게 자루 빠진 도끼를 주려는가(誰許沒柯斧)
내가 하늘 떠받치는 기둥을 깎으리(我斫支天柱).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그 때 무열왕이 이를 듣고 말했다.

"아마 스님이 귀부인을 얻어 어진 아들을 낳겠다는 말 같구나. 나라에 위대한 현인이 있으면 더없는 이익이다."

무열왕은 그 때 요석궁(瑤石宮)에 홀로 사는 공주가 있었으므로 궁리(宮吏)에게 명해 원효를 궁으로 인도해 들이라고 했다. 궁리들이 명을 받들고 원효를 찾으려 가는데 원효는 문천교(蚊川橋)를 지나다가 그들과 만나자 일부러 물에 빠져 옷을 적셨다. 궁리들은 원효를 요석궁으로 이끌어 옷을 갈아입히고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공주가 태기가 있어 설총(薛聰)을 낳았다.

무열왕은 원효의 '풍전가' (瘋癲歌)를 통찰하고 그를 사위로 맞아들였다. 원효는 일심(一心)의 철학을 통해 삼국의 통일을 이념적 사상적으로 뒷받침했다.

또 원효는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암호풀이를 통해 신라군을 위기에서 구해 삼한일통의 대업에 일조했다. 김유신은 당군이 고구려를 칠 때 이와 연합하려고 연기(然起)와 병천(兵川) 두 사람을 당나라군 진영에 보내어 합류시점을 물었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종이에다 난새(鸞)와 송아지(犢)를 그려 돌려보냈다. 당시 연합군은 패강(대동강)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고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라군에서는 그 그림의 의미를 풀어낼 이가 없었다. 당군이 철수한다면 신라군도 함께 철수해야만 위험하지 않았다.

김유신이 사람을 보내 원효에게 그 뜻을 물었다. 원효는 그림을 풀이해 "빨리 (군사를) 되돌려라"(謂畵犢畵鸞二切也)고 일러주었다. 한자에서 두 자음을 반씩 따서 한 소리를 만들어 음을 표하는 반절법(反切法)에 의하면 암호는 '혹환' 이 되지만 영남지방에서는 히읗(형) 발음이 시옷(성) 발음으로 전해온다. '빨리 돌리라' (速還)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이다.

이에 김유신은 군사를 돌려 서둘러 패강을 건너기로 한다. "늦게 건너는 자는 목을 베리라"는 군령에

원효 암호해석으로 신라군 구해
이념 · 사상으로 통일 뒷받침

군사들은 다투어 강을 건넜다. 군사의 절반쯤이 건넜을 때 고구려 군이 공격해 왔다. 다음날 김유신이 반격에 나서 위기에서 벗어난다.

훗날 당 고종은 무열왕에게 태종(太宗)이란 칭호를 쓰지말라는 명을 내린다. 이에 문무왕은 "신라가 비록 작은 나라나 성스러운 신하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하였으므로 태종이라 봉하였다"고 표문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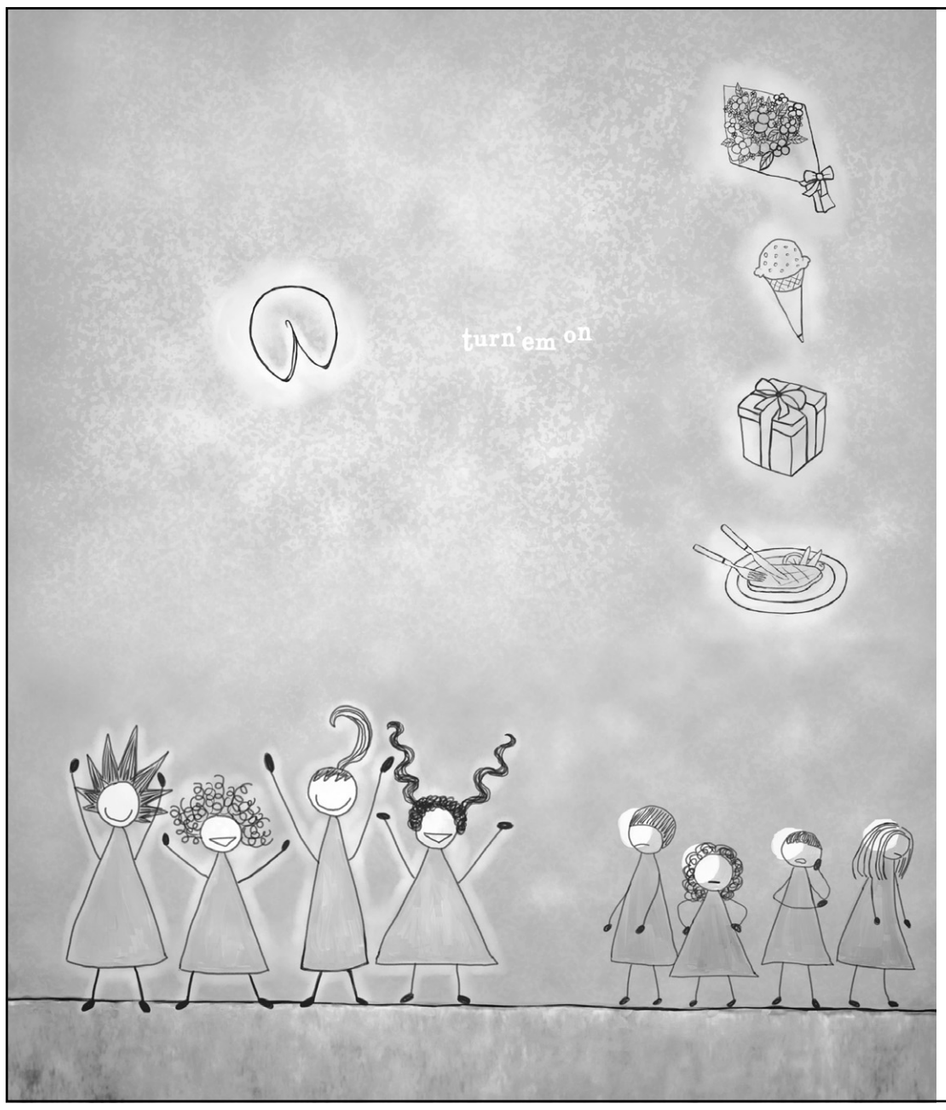
당고종은 태자 시절 하늘에서 '33천의 한 사람으로 신라에 내려온 이가 김유신' 이라고 노래하던 것이 생각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사신을 보내 태종 칭호를 쓰도록 허락했다.

젊은 시절부터 영명한 외교가이자 전략가였던 김춘추는 김유신과 원효란 동반자를 얻음으로서 비로소 삼국통일을 위한 정초자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게 됐다.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전용신 역주, 〈완역 일본서기〉(일지사,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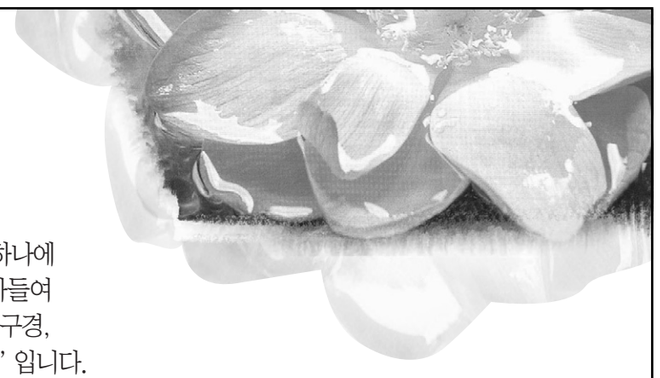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雪)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 잡보장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증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소정의 비용 있습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능엄신주, 영가천도
우울증, 지방간, 스트레스,
학교폭력
가정방문 회사방문
상담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파동에너지 양생기공
1. 파동술로 만성질병을 고치는 법
2. 파동술로 가위눌림,빙의,불면증을 고치는 법
3. 파동술로 장시간 병명없이 시달림의 고통을 퇴치하는 법
현재 명리나,풍수,지압,침,활법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권장합니다
051)722-6426 / 011-9785-6426
부산 태백정사

영남범음범패
학인수시모집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나비무 (2개월 완성)
* 천도재 해드립니다
010-9370-4043
경북 경산 금박산 불교 교육원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법당 유무선 마이크
고성능이 100만원 초반대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중고고가 매입
대전 100km 이내지역
한성음향
010-4440-8687

한국불교태고종 범패학인모집
천수바라. 사다라니
복청게. 도량게작법
태징.북.사물다루는법
6개월내 전문가처럼
필요한작법만지도전수
예수재.49재.점안의식
010-3809-4373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금 강 송 안 내
• 11년생 금강송 (3m ~ 3.5m)
• 10그루 이상 분양 (선착순 분양)
• 1그루당 15~20만원
• 경북 봉화지역
• 당일 현지 선별 채목
016-573-2032

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및
각종 불공
바라작법
스님이 직접 만든 은행 엑기스 판매합니다
011-628-1156

조용한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충 북)
043)742-205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예산)
041)337-6011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모든 통증해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
빙의,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심 와 기 도
• 업장을 소멸시키고 운도 바뀌게 하는 심와기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명리,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비구니 기도스님
(서울 도심 포교당)
011-229-6061

성지순례 전문 프리랜서를 모집합니다
02)365-7748
011-9468-1714

사찰(32평) 철거한 원재료, 그대로 인연있는 분께 저렴하게 보시하고자 합니다
010-5008-9684

토굴암자에서 수양하실 분
월세방 있음,
(경기도 포천)
010-9243-0993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 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절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래 함께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 이상)
010-5878-1474

50대 독신승입니다 초파일 법회나 부전스님으로 갈 곳을 구합니다
010-9924-0919

전통 염불 배우면서 부전하실 분 모십니다
(마산, 55세미만)
010-3428-6665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조그마한 암자입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워 불사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실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0-8711-2391

병 에 서 해 방
그 어떤 병도 원인을 알면 치유할 수 있다.
스님의 신통력과 법력으로 치유한다.
범 용 사 대원스님 합장
연락처 : 055)352-8045 / 010-5453-8611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소법당 안내
강남대로변 지하철역 근처
1층에는 사주, 후면 소법당, 방1개
2층 방1개
보증금 1천2백만원 월세 140만원
4천 7백만원
010-9939-6966
010-4031-6643

조용한 산사에서 비구니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지리산)
017-569-3722

불기 2556년(2012) 임진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2005년 부터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회향하는 마음으로 2012년 5월 완공예정을 앞두고 달마동 (34세대)를 건립하게 되여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홍송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
| **세대수 34세대 :** 10평-6세대, 12평-6세대, 13평-5세대, 21평-6세대, 23평-6세대, 36평-1세대〈 옥상 선방건립(달마선원 30평) 예정〉
|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원
|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써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랍니다.
| **완공예정일 :** 2012년 5月 30日 | **입주예정일 :** 2012년 6月 5日

대한불교조계종 **선 도 산 금 선 사**
주지 **휴 정** 합장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

불자정보 26 | 888호 | 전면광고

2012년 5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5(목조)
- 요사 : 75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8억

- 위치 : 경남
- 법당 : 35평
- 요사 : 85평
- 부지 : 23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부지 : 114평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대구 금오산 자락

- 총 부지 : 87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및 산신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가액: 3억 5천만원

양산 신도시 부근 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법당 35평(전통와가 5포 7포)
- 요사채 80평(방10칸)대종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 수려
- 계곡물 철철, 주차장 300평, 텃밭 400평
- 총가액 : 11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삼천포 남해안 바닷가
- 전망최고, 위치 최고의 부지
- 토목공사완료, 즉시건축가능
- 4차선국도인접, 진주에서 15~20분 거리
- 1천평에서 2천평
- 가액: 전화상담

010-6776-330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 135평
- 법당 14평,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 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 9천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

토 굴 안 내

- 위치: 금산읍내에서 걸어서 15분거리
- 건물 25평 (등기완료)중 임법당1
- 방2, 거실1, 외부친견실1, 입식주방
- 법당뒤 허공산신, 앞쪽에 45년된 약수겸 용궁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
-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도지지는 1년 15만원(법인까지 양도)
- 수리완료
- 사용할수 있는 토지 200평
- 가액: 3000만원

010-8546-126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472번지
- 평수 : 100평
- 방 4칸, 주방, 욕실
- 법당, 산신각
- 사글세 : 1년에 200만원 전세가능
- 뒤에는 산

011-9370-7513

사 찰 안 내

- 팔공산 한티재 부근
- 대지 200평,법당, 요사채 60평
- 삼존불, 노상 지장보살님
- 집기일체 양도
- 주변 경관수려함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60만원
- 시설비 2천 8백만원

016-849-8889

전원주택 겸 토굴터안내

- 위치: 경북 상주시 공서면 거창리
- 평수: 396평
- 가액: 2천 5백만원

010-8852-1479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 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 좌향)
- 가액 : 8억

010-4586-452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부근)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4668-7380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울주군
- 면적: 약 500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주차장, 텃밭
- 고속도IC 인근 교통편리
- 해운대 30분 울산 20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

010-5346-4138

건 물 안 내

- 포교원하면 정말 좋습니다
- 부산에서 최고자리 지하철역세권
- 대지 550평
- 건물 900평
- 가액 50억

010-8676-277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 집기일체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5555-8744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IC 인접 1분거리
- 부지 : 988평
- 청룡 백호 정남향
- 법당1, 요사채2, 심야전기
- 가액: 5억 5천만원
- 현지 답사후 조절가능

010-9417-6633
043)275-0667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 대지 372평, 건평 60평
- 목조 임법당
- 큰방포함 5개
- 주방, 목욕탕 2개
- 가액 : 1억 7천만원

011-9807-57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 대지 150평
- 2층건물
- 1층 요사채 32평, 2층 법당 30평
- 산세수려함
- 가액: 3억 5천만원

010-9058-5353

사찰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명곡동
- 전 1,200평, 2500평, 3600평
- 평당 65만원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없는 명당땅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창원 통합시 인구 110만명의 도심속의 주변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산북면 사무소 10분거리
- 임야 : 8만 4천평
- 용도 : 大사찰 및 복지시설
- 차도와 붙어있음
- 평당 : 9천원

011-282-609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 검단 신도시
- 2층건물에 2층(기와기붕)
- 법당: 50평
- 요사채: 38평(방3, 거실2,공양간, 욕실2)
- 삼존불, 신중, 소불, 영단(만년위패), 인등
- 보증금 : 5천만원에 월 60만원
- 4차선대로변, 주차가능,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5282-3550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부지 500평, 임법당30평, 요사40평,
- 산신각,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도량기운 좋음
- 가액 : 2억 7천만원(조정불가)

011-452-8374
010-7164-7134

암 자 터 안 내

- 구례 토지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논 400평
- 가액: 4천 3백만원 대출 30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 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0-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 대지 500평
- 법당 30평(단청완료)
- 요사채 약 50평 2동, 산신각 2평
- 가액: 4억

017-802-329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개동 (사철등록)
- 평수 40평
- 구조: 스님방 따로 (욕실, 화장실,주방포함) 공양간 별도있슴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비품일체)

010-8940-5858
055)252-317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 1억 3천만원

010-9376-4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5분
- 대지 약 900평, 건물 50평 2동
- 등산로 접, 전망터 최고 정남향
- 숲속 요양 집으로 적격
- 지역 거래가에 절반 가격
- 공시가로 양도함
- 융자 70%가능 /주인직

011-726-471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 3층건물에 3층
- 도심포교원최적지,버스정류장앞
- 평수 40평(마당포함)
- 월세 1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보증금 합 5500만원 (절충가능)

011-496-6417
010-2581-6505

사 찰 안 내

- 위치 : 국립공원(유달산) 내
- 별장식 암자 • 평수 200여평
- 시문화재로 지정 예정인곳
- 특징: 전설과 영험이 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5천만원

011-623-4487
011-229-4132

포 교 원 안 내

- 강원도 원주시 원동 사거리부근 (원주역 및 버스터미날 5분거리)
- 3층건물의 3층(옥상 사용가능)
- 평수 : 33평 이상
- 법당1, 방3, 공양간(넓음), 화장실2, 베란다, 창고
- 보증금 1천만원에 월40만원
- 몸만 오시면 됨,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08-7755

포교원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최요지
- 평수 22평
- 모든시설완비, 최고의 조건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500만원(시설비포함)

010-8315-210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
- 평수: 약 1000평
- 법당, 산신각, 용왕각
- 산세 좋음
- 가액 : 3억 1천

010-3355-26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산시 월피동
- 평수: 26평
- 법당 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662-5527

농 가 주 택

경북 영양군 입암면 마을에서 산쪽으로 외딴곳 남향대지 124평, 앞에 건물 18평 뒤에 건물 18평, 차진입 급수 전기 즉시 입주 가능함 주소 공개 주인직 가액: 4800만원

010-8899-8899

사찰자리(터)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 대지 약 600평
- 가옥 3채
- 가야산자락 주변경관수려함
- 선방 ,절터로 최적지임
- 가액: 2억 8천만원

010-8880-1180
010-8886-0602

암,당뇨 투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불보살님께서는 귀 토굴 숯뜸방.임법당 시설을 무료로 보시하고자 합니다 보증금 2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권리금 전혀없음

010-4191-0455 (무아스님)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중구 대흥동
- 도심 포교원 최적입지
- 대전역 도보 7분, 중앙시장 4분
- 건평 70평. 3층
- 법당 25평, 방사 4, 차실
- 제반시설 완벽
- 전세보증금 1천만원, 월 42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622-967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서울접)
- 부지 : 220평
- 법당 : 5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경기도
- 부지 : 33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2억8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절 터 안 내

- 위치 :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산 27번지
- 면적: 35,500평
-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마애불상군 보물 1401호 지정되어 있으며 오래전 절터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임야임
- 가액: 평당 1만원

011-745-6139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구 지하철역 바로 앞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석가관음, 지장, 삼존불, 호신불 약 300불
- 주방, 방2, 화장실 별도
- 보증금 6천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A급

051)632-593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3억8천5백만원 (2억 대출 됩니다)

010-3573-0481

별장식 암자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 대지 290평 , 요사채 별장 (40여평)
- 법당 17평 남향, 조경 최상
- 가액: 3억 5천만원
- 오후 1시 이후 연락바람

010-3693-53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해수욕장부근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지장, 각탱화
- 남향기와집, 텃밭, 대지124평(건물 약 30평)
- 전세+시설비+집기,가구일체=오천만원 (월세없음)
- 주차시설완비, 소임관계로 급양도
- 꼭 하실분만 연락,몸만 오시면 됨

070-4142-4927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3억8천5백만원 (2억 대출 됩니다)

010-3573-0481

사찰 또는 전원주택 부지 안내

- 경북 영주시에서 부석사 중간(산 100~200m 고지)
- 독립구역 5,300평 (관리지역)
- 진입도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인입 완료
- 4개 계단형 부지 토목공사 완료, 바로 건축 가능
- 백두대간이 보이며, 경치가 좋고, 아늑함
- 가액 : 3.3억원

016-573-2032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분에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 법구경 -

마음 길들이기

아쟌 차 스님 (태국)

〈1〉 마음을 읽읍시다

“이리뛰고 저리뛰는 마음 선정·계율로 다스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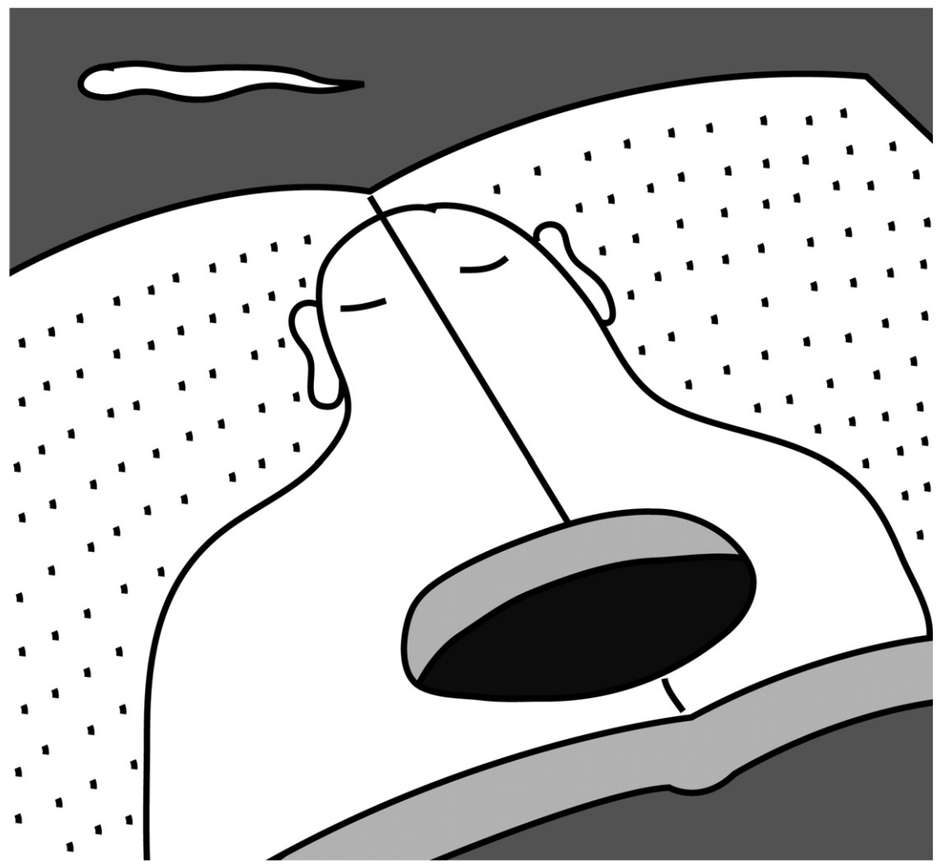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아쟌 먼 스님과 아쟌 사오 스님께서 사시던 시대는 오늘날에 비해 생활이 훨씬 단순하고 덜 복잡했습니다. 그 시절은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이나 집전할 의식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다 할 거처도 없이 숲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선정공부에 전심전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쟌, Ajahn: 태국어로 교수, 선생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큰스님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아쟌 먼(Ajahn Mun) 스님은 20세기 태국에서 존경받고 또 큰 영향을 끼친 선정 수행의 대가였다. 그의 지도에 힘입어 숲속 고행의 전통은 다시금 불교의 선정 수행의 중요한 전통으로 되살아나게 됐다. 최근에 입적했거나 아직도 살아있는 태국의 위대한 선정 대가들 중 대부분은 아쟌 먼 스님의 직계 제자이거나 영향을 받은 분들이다. 1949년 입적. 아쟌 사오(Ajahn Sao) 스님은 아쟌 먼 스님의 스승이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사치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사치풍조가 만연해 있지만, 그 때는 그런 것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대나무 물컵이나 타구(唾具)를 만들어 썼고, 신도들의 내왕도 별로 없었습니다. 수행자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또 기대하지도 않아 가진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선정을 숨쉬며 삶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니 자연히 수행자들은 온갖 궁핍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학질에 걸려 약을 구하려면 스승은 “자네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야. 공부나 계속하게”라고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때는 지금처럼 약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약이라고는 기껏해야 숲에서 자라는 약초나 풀뿌리가 고작이었습니다.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극도의 참을성과 견딜 힘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웬만한 병 같은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는 실정입니다!

때로 스님들은 탁발을 하기 위해 4~5㎞에 이르는 먼 숲속 길을 걸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길을 떠나서 오전 10~11시가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게다가 탁발한 것이래야 보잘 것 없어서 쌀과 소금 내지는 고추 몇 개가 고작이었습니다. 반찬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아예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형편은 정말 이처럼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감히 배가 고프다느니 지쳤다느니 하고 불평할 엄두를 못 내었고, 불평하기보다 차라리 몸을 돌보는 법을 스스로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잠복해 있는 갖가지 위험을 줄곧 참을성으로 견뎌내면서 숲속 정진을 해냈습니다.

정글 속에는 사나운 맹수가 우글거렸을 뿐 아니라 두타행 내지 숲속 거주에 따르는 육체적, 정신적 고난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 시절의 스님들의 참는 힘은 이처럼 대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위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위 환경이 우리를 정반대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누구나 걸어서 다녀야 했지만 그 후 우마차가 생겨나고 또 그 다음에는 자동차가 출현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눈도 높을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자동차마저도 냉방이 안 되어 있으면 타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냉방장치도 안 된 차로 어디를 가겠느냐 이거지요! 이렇듯 참을성과 견딜성이라는 미덕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선정과 수행의 규범은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요즘 수행자들은 수행조차도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에 따라서 하려 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노스님들이 옛 시절을 얘기해 주면 마치 신화나 전설을 듣는 양 합니다. 그저 무관심하게 들을 뿐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도무지 가슴에 가 닿지를 않는 겁니다.

옛 수행 전통대로라면 수행승은 적어도 5년은 스승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묵언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책을 읽지 말라! 그 대신 너 자신의 마음을 읽어라!

이곳 왓 빠뽕을 한 번 예로 들어 봅시다. 요즘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수계하고자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경전 읽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책만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책 읽을 기회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그들 자신의 마음을 읽을 기회는 너무 적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태국 관습에 따라 수계하러 오면 3개월 동안 책이든 지침서든 일절 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제 기간 동안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참으로,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이 마음은 그 자신의 길들지 못한 습관에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흥분해서 마구 쏘다니는데 그것은 마음이 결코 길들여져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길들여야 합니다. 불교의 선정은 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마음 혹은 정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마음을 길들이는 일은 불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요점입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오직 그 뿐입니다. 마음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은 곧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짐승 우리 속에 갇혀 삽니다. 게다가 그 우리 속에 갇힌 마음은 성난 호랑이와 같습니다. 만약 이 설쳐대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말썽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은 선정, 즉 사마디(samā dhi, 三昧)로 길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 길들이기’라 부르는 것입니다. 길들이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수행의 기반으로서 도덕적 계율(sī la)부터 확립시켜야 합니다. 계율은 몸[體]과 말[口]의 길들이기입니다. 여기에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려 애쓸 때 거기에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이 苦인지 먼저 알아야
선정 닦는법 선명해져요

고통은 지혜를 가져다주지만
행복은 눈과 귀를 멀게 한다

태국의 수계자 전통 수행법
책 전혀 펴지 않고 3개월 결제
마음 읽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적게 먹어라! 적게 자라! 말을 적게 하라! 세속의 습관이라면 무조건 줄이고, 그 힘에 거역하라. 마음이 내킨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지 말고, 생각이 흐르는 대로 좇아가지 말라. 이런 노예적 추종을 그만 두라. 언제나 무명(無明)의 흐름에 거슬러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계율’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율로 마음을 길들이려 하면 마음은 대단히 불만스러워져서 투쟁을 시작합니다. 제약되고 억압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마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방황하고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고(苦, dukkha)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고, 즉 둑카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 중에 첫 번째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고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고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 고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줍니다.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樂, sukha]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행복은 결코 인간들로 하여금 참을성을 키우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편안함과 행복 때문에 우리는 부주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고(苦)와 낙(樂) 두 가지 번뇌 중에서,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바로 고를 들춰내야 합니다. 무엇이 고(苦)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우리는 그 다음에 선정 닦는 방법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마음을 길들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요점인지 영문을 잘 모르겠지만, 스승이 뭔가를 하라고 할 때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을성과 견딜성의 미덕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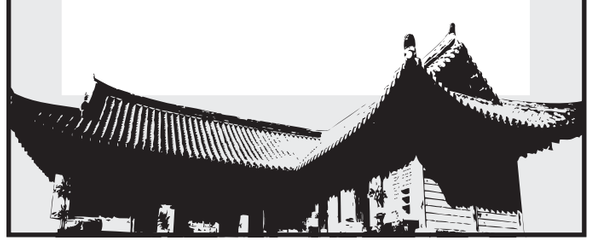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생길만 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삼매 수행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평화와 평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말합니다. “나는 평온을 얻을 때까지 앉아 있으리라.” 하지만 평온이 생겨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게 되면 벌떡 일어나 달아나 버립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마음의 계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포기’라 해야 할 것입니다.

▣ **아쟌 차 스님**(1918~1992)
태국, 왓(wat-寺) 빠뽕의 주지 스님이었고 남방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스님 가운데 한 분이다. 여기 소개하는 글은 1977년 3월 방콕의 왓 보보르니베스에서 온 서양 스님들과 그 제자들을 위한 설법 내용이다.

이 글은 (사)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보리수잎 시리즈 중 2편 〈마음 길들이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불이성 법륜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안내
❶ 자격 : 고졸 (검정고시 포함) 이상의 학력을 갖춘 만 20 ~ 40세 미만
❷ 부처님제자로서 굳은 의지와 신심을 갖인 자.
❸ 종단에서 정한 행자등록 요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특 전
• 공부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 제공
• 본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참선, 교학, 포교 등 적극 뒷받침
불이성 법륜사
02)732-3920 / 010-5219-7021

강화 고려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 차량운행 : 조계사앞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차량기사 : 010-4941-5713 예약 필수)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1차 백일기도 (매회 회향일 마다 합동천도재 봉행)
■ 기 간 : 2012년 3월 25일 ~ 7월 2일
■ 내 용 : ①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② 법화경 사경
③ 염불 ④ 108배
(동참 불자님은 위 4가지 중 한 가지 선택)
■ 동 참 금 : 10만원 (전화접수 가능)
■ 전 화 : 032) 932-3525 / 010-5282-3550
※ 부처님 봉안불사 동참자, 개금불사 동참자(접수중)는 천일동안 축원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현우경' 이야기 (20)

스님이 된 아우

500년만에 출가한 사냥꾼의 업

어떤 마을에 장사꾼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자를 흠모하고 있었다. 그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나이가 어려 결혼을 미루자고 얘기했다.

"조금 있으면 다른 상인들과 배를 타고 멀리 떠나야만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얼마 후, 형은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채로 상인들과 물건을 팔러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됐다. 형이 그렇게 떠난 지 몇 해가 흘렀다. 여자의 나이는 이미 혼기를 훌쩍 지나 결혼하기 어렵게 됐다. 여자의 아버지는 걱정했다.

"그때는 나이가 어려 결혼을 시키지 못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 결혼을 시킬 수가 없구나."

여자의 아버지는 고민 끝에 아우를 불러 말했다.

"그대의 형이 떠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아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 딸은 평생토록 결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우리 딸과 혼인 하도록 해라."

"그럴 수 없습니다. 형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찌 제가 형이 마음에 두었던 여자와 결혼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내 딸이 평생 네 형만 기다릴 수는 없다."

여자의 아버지는 끈질기게 아우를 설득했지만, 아우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형이 죽었다는 소문을 온 마을에 퍼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우도 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우리 형이 죽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여자의 아버지가 아우를 찾아왔다.



삽화 · 강병호

"자네도 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형만 기다리며 혼기도 놓쳐버린 우리 딸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대가 우리 딸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평생 혼자 살게 될 걸세."

아우는 고민 끝에 그의 딸을 아내로 삼기로 했다. 결국 아우와 여자는 결혼하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는 아이를 갖게 됐다. 그때 다른 나라로 떠났던 형이 돌아오게 됐다. 아우는 형이 살아 돌아와 기뻤지만 결혼한 사실을 들켜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컸다. 결국 아우는 다른 사람들 몰래 다른 나라로 도망쳐 버렸다.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 사실을 안 아내는 그 충격으로 아이까지 잃게 됐다.

형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우는 도망쳐 버리고 여자는 아이까지 잃어 건강이 나빠져 있었다. 형은 아우가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와 결혼한 것까지 모자라 그녀를 버리고 도망친 사실에 몹시 분개했다.

"내 동생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는 상금으로 500냥을 주겠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상금을 노리고 아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한 사냥꾼이 아우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다니던 중 좌선을 하고 있는 스님을 발견했다. 사냥꾼이 스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우와 닮아 있었다. 그때 아우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출가해 스님이 돼 있었다.

"어떻게 스님을 죽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스님을 죽이지 않으면 500냥을 벌 수 없다."

사냥꾼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형이 고민에 빠져있는 사냥꾼을 발견했다.

"지금 뭐하고 있는가? 얼른 내 아우를 죽여라."

사냥꾼은 결국 상금을 포기할 수 없어 스님을 향해 활을 쏘았다. 그때 스님을 향해 날아가던 활은 되돌아 와 형에게 꽂혔다. 결국 형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형은 죽어서도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해 독벌레로 태어나 아우를 죽이려 했다. 독벌레가 된 형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독을 쏘아 아우를 죽였다.

이 사실을 안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비구는 과거에 사냥꾼이었다. 그는 세상에 온갖 짐승을 잡으려 했다. 그 사실을 안 프라데카 부처는 사냥꾼의 사냥을 막기 위해 짐승들을 쫓아버렸다. 이에 화가 난 사냥꾼은 프라데카 부처를 활로 쏘아 죽였다. 그 업으로 비구는 500년 동안 독으로 죽게 됐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도를 얻겠다는 서원을 해 이생에서는 비구가 될 수 있었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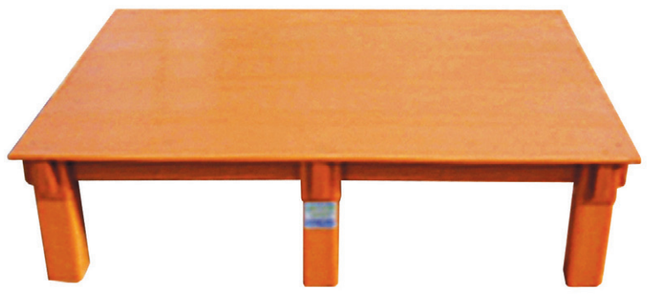
교육상담 (교무실) 054)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 3칸겹집 목조건물 : 9500×7000×4500㎜ / 가격 :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 자재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적 하 수 오'
묘 목 분 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대행 스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등불을 밝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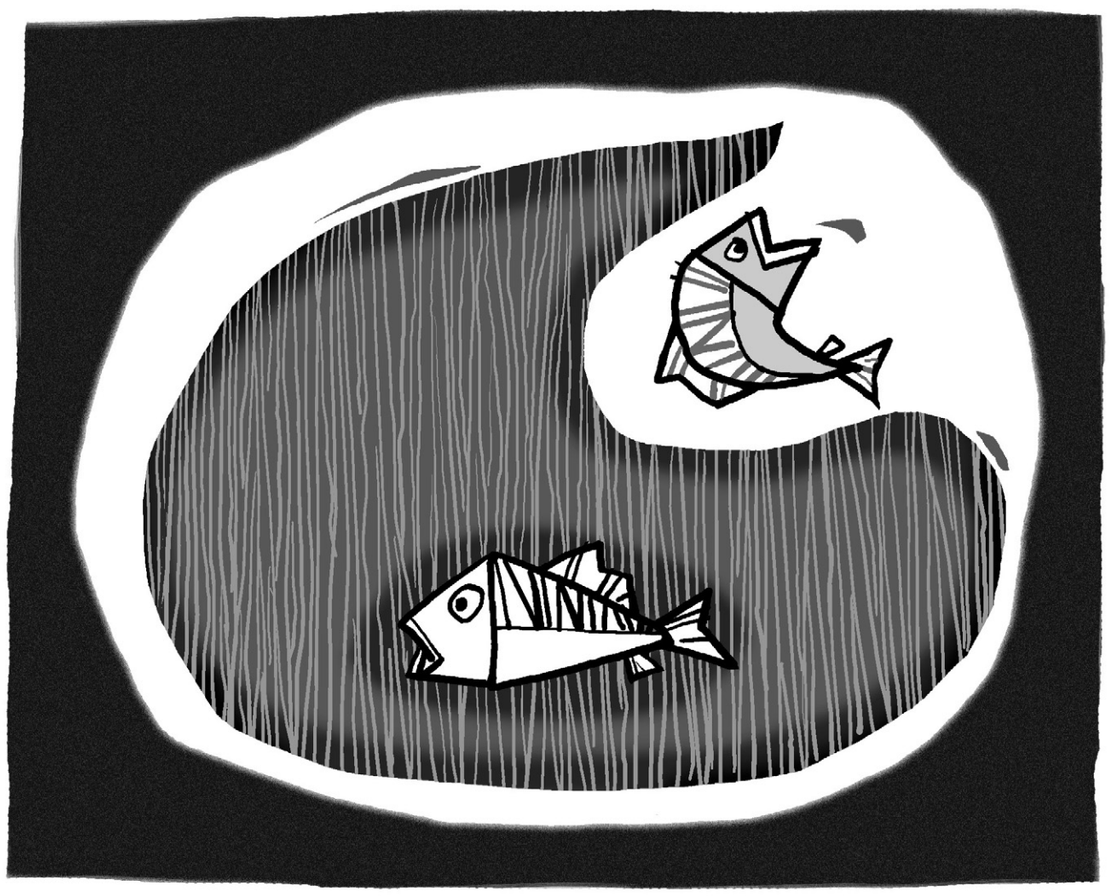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국 불교 자체가 기복으로 전락된 지도 무척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동시에 움죽거려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해야 하는 이 지금 현시대를 똑똑히 보시면서 행하십시오. 기복으로 전락이 된 것뿐만 아니라 너무 구태의연하게 변함도 없고 발전도 없고, 차라리 예전 삼천년 전에 하던 그 식으로만 해도 좋을 텐데, 이조 말엽 때에 그 탄압에 못 이겨서 모두 방편상 세워놓고 가져오는 것들을 가지고 공부들을 하면서 이런 첨단의 시대에도 그대로 지금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더 참답게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진화돼서 창조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재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탈권을 가지고 있고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100%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릴까봐 지금 내가 생각 나는 대로 말합니다.

부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왜 하나냐고요? 부처님이 찰나에 나투시면서 응(應)해주시는 그 응신(應身)이 바로 풀 한 포기에도 응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보시를 달라고 한다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도 자동적으로 응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만 분이 성불을 했고 열반계(涅槃界)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도 어느 몸이 내 몸이 아닌 게 없이 나투시고, 어느 마음도 내 마음 아닌 게 없이 나투시고, 어느 자리도 내 자리 아닌 게 없이 나투시고, 어느 모습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느니라 하신 까닭에, 부처님이라는 그 이름은 어느 것이 될 때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가정에서 부모가 아버지 노릇 하고 아들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고 형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금속이 아니 쓰이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속 하나가 아니 쓰이는 데 없죠? 전력도 그렇습니다. 이 전력 하나가 천차만별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광석이나 또는 전력과 같아서 어느 한 군데도 안 쓰이는 데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용도로 내가 썼다고 할 때에 전력이 썼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아버지다 어머니다 하고 이렇게 이름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부처님의 마음은 아촉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산신도 되고 용신도 되고 약사도 되고 지신도 되고 신중도 되고, 모든 게, 아니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 전력 하나로 여러 용도를 다 쓰듯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한 분을 모셔놓은 것도 우리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 해놓은 방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방편으로 모셔놓은 그 자체를 알고보면은 그게 실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요, 내 형상이요 바로 내 마음이요 내 생명이요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롭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모습으로 움죽거리지마는, 우리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조성이 된 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나고 든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 공부하는 데는 한 분만 모셔놔도 족하다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한데 모아서 헛갈리지 않고 잘 공부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방생입니다. 방생은 예전에 물이 오르고 다시 내려올 때에 고기들 또는 지렁이, 미꾸라지 또는 남생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그냥 산에 떨어지거나 길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예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님네들이 물 바깥에 흘어진 그 생명들을 위해서 이만한 그릇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 주워담아서 물에다 넣어줬다 이겁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이렇게 방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발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마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생이라는 거는 물 바깥에 난 것만 방생이 아닙니다. 물을 잃고 바깥에 나선 것을 바로 물에 넣어주는 것이 방생이요,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방을 얻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은 것도 도와 주면은 방생이요, 먹지 못해서 굶어서 비실비실하는 것도 도와 주면은 방생이요, 취직을 못하고 식구가 다 굶을 정도로 됐을 때에 취직을 시켜주는 것도 방생이요, 어려울 때에 무주상 보시(無住相布施)로써 도와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또는 부모가 없이 자라는 애들한테 보시를 하는 것도 방생이요, 어느 거 하나 방생 아닌 게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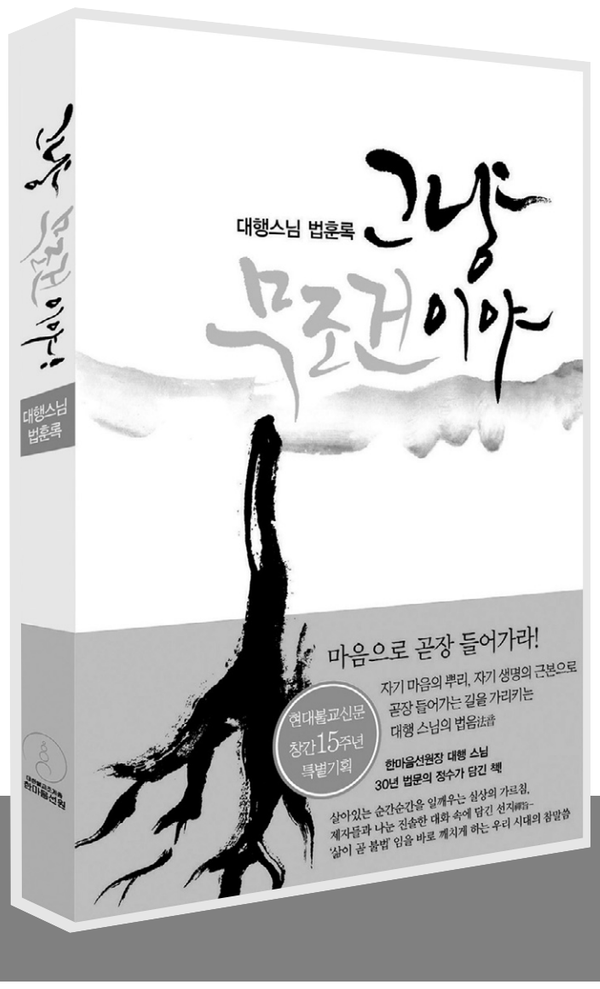
그런데 지금 방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노는 고기들을 잡아다가 잡는 데 죽이고, 잡아다 놓는 데 죽이고, 또 방생해서 물에 갖다 넣는 데 죽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마는 8 · 15 해방 되기 전의 얘깁니다. 탄광으로 붙들려가고, 모두 징용으로 붙들려가고, 정신대로 붙들려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붙들려갔습니다. 붙들려가서 8 · 15 해방이 되니까 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네 집들을 찾으러 산지사방으로 흐트러져서 그냥 그 차 꼭대기에도 타고 오고, 위도 타고 또 어디 타지 못하고 걸어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수히 죽어갔습니다.

그와 같이 고기도 자기 놀던 집이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대로 진흙물이 자기 집이요 또는 어떠한 고기라도 물에 넣어주면 몇 십 리라도 자기 놀던 데로 갑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집 찾아가듯. 그러다가 중간쯤 가서 죽고, 중간도 못 가서 죽고 이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거는 놀부짓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방생은 그래서 지금 고기들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생은 폐지해야 됩니다.

셋째 천도재, 제사 이런 걸 말하겠습니다. 천도라는 것은 우리가 육의 부모의 조상이나, 법의 부모의 조상이나 조상은 크고 작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으냐? 자식이 물에 빠지면은 부모는 자기가 물에 빠져죽더라도 그 자식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지 않는 마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건 부정 못하죠?

그런데 한 가정에서만이 그런 것이고, 이 법의 부모는 전체의 부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적든 크든 그 아리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조건 없는 마음, 이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상은 다 한자립니다. 여러분이 "한자리가 아니야!" 하면은 한자리가 아니게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아주 기구하고 운명적이고 묘한 것이고 광대한 것입니다, 이 생각 하나가. 생각 하나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냥 부도가 나게 하고 생각 하나가 모두 망하게 하느냐, 회사를 일으키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참다운 한 생각이 삼만 번 절하는 것보다 낫다

☞ 29면에서 계속

생각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찰떡을 뚱그렇게 하나 해서 놓고 초, 향, 물 이렇게 놓고 지내는 것에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지내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공양' 이라고 하죠. '떡 공양' 합니다. 떡 공양 하면은 그 떡 하나로 인해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먹고도 남음이 있다 이겁니다. 되남는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수박을 죄 먹고 그 씨를 되심어서 또 수박이 나면, 수박을 되먹고 또 씨가 남고 이러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의 떡 공양입니다, 그래서. 공양,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다. 원자가 입자가 되고 분자가 돼서 수효가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도, 다 통신이 되고 전달이 되고 이렇게 같이같이 어울려서 돌아가면서 원자가 됐다 입자가 됐다 분자가 됐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리가 그렇게 많아도 다 통신이 돼서 내려먹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이 마음들도 부처님 공양한 그릇 하면 공양, 이 공양 한 그릇 할 때에 벌써 공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향! 누구가 덜 먹고 더 먹고 이런 게 없이 이 전부 허공이 다,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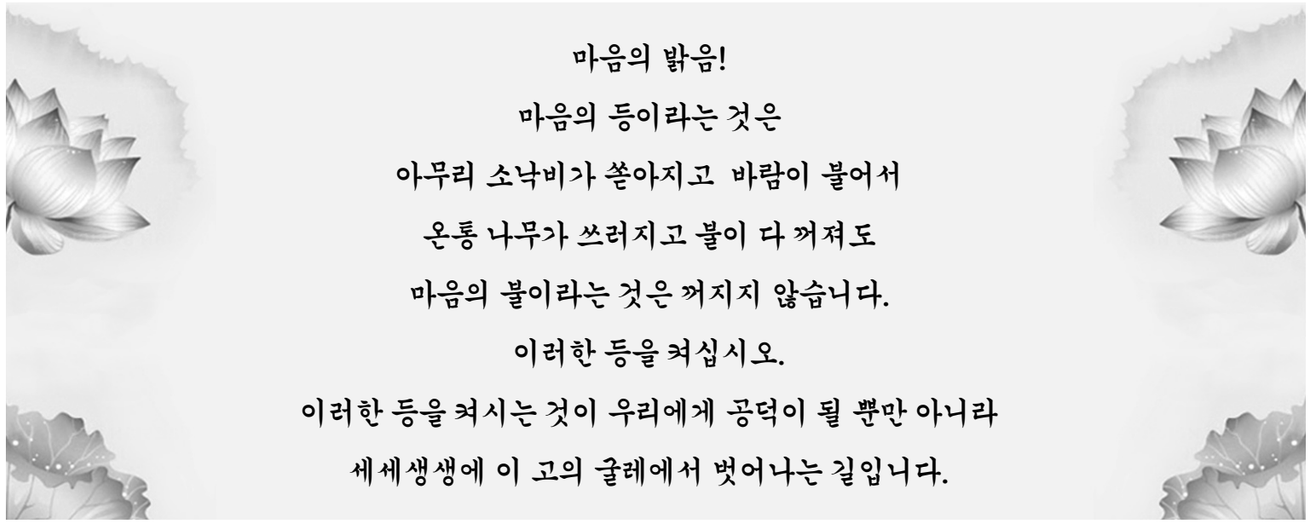
그런데 나물, 국 뭐, 이런 거는 사람이 살던 습관에 의해서 부모를 위한다고 그렇게 전부 차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차려놓은 것만 영령(英靈)이 보지 그 외의 것은 보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식들이 차려놓은 요거를 요렇게 차리고 요렇게 차렸다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차린 거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을 본다 이겁니다, 조상이. 그 마음을 보고 그 차려놓은 것이 얼마만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공 전체가 내 것 아님이 없이 그 떡 하나로써 해놓는다면, 떡 공양을 해놓는다면 이 전체 돌아가는 그 광대무변한 법을 조상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없어집니다, 내 것 아님이 없기 때문에.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것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아픔 아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 의리, 도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역력하게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려놓고선 오히려 여러분의 적은 마음에서 정성을 한다고 또 때로는 니가 더 댔느니 내가 더 댔느니 또는 너는 마음에도 없는 거 했느니 말았느니 하고 서로 말다툼을 해가면서, 그 음식도 돈을 더 댔느니 덜 댔느니 하면서 차립니다, 그거나마도.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길러준 은혜, 낳아준 은혜 또는 모든 은혜를 생각해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 향을 올려라. 이 마음은 밝은 마음으로서 지혜롭게 마음을 아주 선명하고 광대하게 내어서, 그것은 향입니다. 마음을 내어서 이 떡 공양을 올릴 때 모두가 부처님 한 자리로 올려질 때에 모두가 통신이 되고 하달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내 거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생각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모두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무명이 저절로 벗겨진다 이 소립니다. 돌아가신 부모들도 무명이 저절로, 얽히고설키고 묶여있던 무명이 그냥 벗겨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한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마디를 마저 해야죠. 사람이 죽으면 인과로 인해서 뭉쳐져 있는 그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사이에 그 공덕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그 무명이, 묶였던 무명이 바로 무너지면서 풀어지면서 이것은 자유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이거 지내고 또 저거 지내고…, 이것이 목탁으로 두들기고 염불만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많이 차려놓는다고 해서 영령(英靈)들이 다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생전에 살아오던 습 때문에, 그 습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떠나질 못하고 그냥 뱅뱅 돌고 돌면서 아는 집으로 돌고 떠나질 못하고, 반찬이나 국이나 이런 거 해놓는 것만 그 냄새나 맡으려고 하고, 이렇게 오히려 자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이 개선해야 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천도재도 그렇지마는 제사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둘이 아니기에 항상 제사도 집에서 지낼 때에 그렇게 향, 초, 다기, 물, 물은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밝게, 초는 밝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써 아주 발전적인 마음을 내는 게 향입니다. 마음의 향! 그런데다가 바로 떡 공양을 하면서 제사를 올리면서, 세 번 절하고 네 번째 가서 '이 모든 일체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놓으면은 그대로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부모님이 승천을 했다고 해서 안 지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기리는 마음이니깐 말입니다. "천도재를 지냈는데 왜 제사는 지내?" 이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언제든지, 부모한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에도 그 감사한 은혜가 있고, 국민의 은혜, 일체 만물의 은혜, 하다못해 이 돌의 은혜, 모든 식물의 은혜, 이 은혜가 아니 되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포함해서 모두 한마음에 그저 둥글리는 마음으로써 한 생각으로 둥글려 놓고 참, 참다운 생각을 한 번 한다면, 그거는 삼만 번을 절하는 거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착하게 개선해나가고 마음으로써 발전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없이 타개할 수 있고 물리가 터지게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모두 좋은 일이며, 스님네들이나 여러분이 다 그러합니다. 스님네들은 부처님의 대리로서, 여러분이 볼 때는 방편으로 대리 역할이요, 진실로서는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그 이치를, 진리를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넷째, 예수재 등을 하고들 있습니다. 예수재를 얼른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요다음에 목돈을 쓰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치를 한 돈을 은행원들이 예치를 해서 통장에다가 딱 넣어주고 그러면 됐지, 그 돈을 부숴뜨려서 음식을 만들고 닷새 엿새 이레까지 두들기고 온통 해봤자 오히려 그 예치한 사람들의 손해란 말입니다. 예치를 한 돈에서 부숴으니까, 그러니까 예금을 찾아갈 때에 외려 예금한 돈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냉철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외려 줄어든다 이겁니다. 줄어도 아주 많이 줄어들죠. 왜냐?

그렇게 부숴뜨리죠, '인제는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 거다.' 이러고 쓰죠? 아, 이러니 공덕이 하나나 될 게 뭐 있습니까? 요다음에 나올 때에 예금통장커녕 아무것도 가져 나올 게 없어져. 부숴뜨려놓은 뒤에도 그 돈이 바로 내 절에 들어온 거니까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 쓸 데다가 써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덕이 안된다 이겁니다. 해주는 사람과 해달라는 사람과 같이 맞아야 불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재를 올릴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은행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상부에까지 지시가 갑니다, 이 돈 문제가. 즉 자재천(自在天)에까지. 그래서 경리과에서, 경리과에까지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경리과에서 이 사람이 아무 때 연분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 때 연분에 나갈 때는 이 통장을 찾아가지고 나간다는 기록까지도 다 예치가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것을 우리가 전부 알고, 이 세상에 만물만생이 전부 우주간 법계에 다 전달이 돼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가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돈대로 물건 사지 내가 물건 사고 싶다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철직입니다. 그러니 예수재라는 게 두들겨서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씨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스님네들 피곤하지 또 예금한 거 부숴지지 또는 아무렇게나 써서 온통 공덕이 되질 않아서 남이 정작 찾아가지고 나갈 땐 맨손 들고 나가게 한다면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구렁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수없이 모습을 갈아서 바꿔서 무명을 쓰고 나오는데 말입니다. 허! 이 도리를 안다면은 참 무서운 도리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그대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아주 좋습니다.

다섯번째, 초파일 등(燈)입니다. 하하하. 이 초파일 등, 전자에 보면 말입니다, 갖은 사찰에 돈 많이 내는 사람은 큰 등, 돈 적게 내는 사람은 작은 등, 얼마짜리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다 똑같듯이, 이것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등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달아야 합니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불을 켜는 사람에 의해서 이거는 철두철명하고 에누리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백만 원을 했으면 백만 원의 물건을 가져갈 거고 만 원을 냈으면 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갈 거고, 그건 자기네들 자유지, 자기네들이 어떠한 애고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자유스럽게 할 뿐이지, 왜 스님네들이 걱정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스님네들은 남이 얼마만큼 아픈지 얼마나 어떠한 용도인지 그것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은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애고가 이런 것이 있다, 병고에 이렇게 휘달린다, 내가 취직을 못하고 놀아서 가정이 아주 살기가 어렵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자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 거짓이 없이, 자기가 쓰레기가 많아 치울 것이 몇 트럭이라면은 몇 트럭 값을 있으면 내야 하고, 몇 트럭 치울 거라도 내가 몇 트럭 치울 금액을 줄 수가 없을 때, 어려워서 줄 수가 없을 때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등을 켜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얼마라도 내고 말입니다.

그러니만큼 이거는 등도 똑같아야 하고, 정성은 정성대로 여러분의 차원대로 정성을 지극하게 해서 하시는 게 바로 사월초파일날 등입니다. 마음의 밝음! 그래서 마음의 등이라는 것은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지지 않아 천하 없어도, 바람이 불어서 온통 나무가 쓰러지고 불이 다 꺼져도 마음의 불이라는 것은 꺼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등을 켜십시오. 이러한 등을 켜시는 것이, 우리에게 공덕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갖게 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되고, 세세생생에 이 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사숙고하고 잘 들어서 그대로 행하시면 이 시대에서 아주 빠지지 않는 삶을 누릴 거고, 빠지지 않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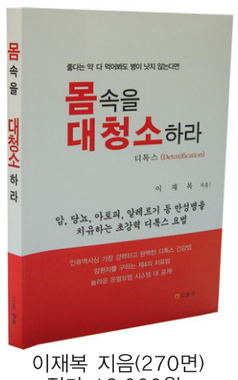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3년 5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불자 세상보기

서민들 '봉' 된 저축은행 사태



우승택
現ST생테크연구소 대표
겸 숭실대 겸임교수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역사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72년 사금융이 만연해 신용질서가 혼란하고 자금난을 겪던 기업들이 사채에 의존하다 파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저축은행 전신인 상호신용금고 제도를 도입했다.

총 대출금의 50% 이상을 해당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지역과 서민금융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서민 금융회사로 설립된 저축은행은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최근 1년여 사이에 20여 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업계 1위인 솔로몬 저축은행 포함해 10위내 대형 저축은행 6곳이 쓰러졌다.

2010년 말 87조원에 달했던 전체 자산 규모는 1,2차 구조조정으로 60조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자산을 제외하면 이제 55조원대로 급락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 전략 없이 몸집불리기를 유도하여 사금고처럼 전횡을 행사한 대주주들과 함께 정책 잘못은 물론 감독도 허술했던 금융당국이 빚어낸 결과다.

IMF 외환위기 당시 시중은행 대부분이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IMF 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등은 서민들의 금융기관이었지만 현재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용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은행의 수수료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쟁체제가 심화되며 은행들이 이익을 내는데 혈안이 돼 있다.

한 은행을 예로 들어보자. 기업은행은 원래 중소기업은행이었다. 슬그머니 중소란 명칭을 떼버렸다. 크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 세상이 금융권에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은행 금리가 묶이며 신용이 낮은 사람은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사람들의 수요를 외면하니 고금리라도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저축은행이 운영정지되면 이를 통해 생활을 지탱하던 이들은 어떻게 될까? 배가 굶주려 죽게 생긴 이들에게 화전이 생태를 파괴하니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 아래는 제3 금융권인 사채다.

〈장자〉에는 한 바보의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장자가 식량이 떨어져 친구 집에 식량을 빌리러 갔다. 길을 가다가 보니 수레바퀴 자국이 깊게 패인 곳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줄어가는 물 속에

저축은행 최근 1년새 20곳 문닫아
관리감독 허술이 빚어낸 결과
부도덕한 비리 은행장 엄벌해야

서 숨을 퍼덕이고 있었다. 장자는 이를 보고 말했다.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장강물을 길어다가 네가 물 부족으로 퍼덕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마!"

물고기는 죽어가며 화를 냈다.

"여보시오! 내게 필요한 것은 한 수레의 장강물이 아니라, 당장 숨 쉴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물이면 되오. 당신이 한 수레의 물을 가지러 장강으로 가는 순간 나는 죽을 것이오"

불법서민금융의 피해자들은 정부가 OECD가입, IMF극복, 위대한 한국, 한국경제 747 그리고 국민소득 4만 불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바퀴자국에 남은 물고기들이다. 서민금융 개혁이란 '장강의 물' 을 뜨러간 사이에, 이들은 물이 없어 죽어간다.

그동안 정부는 앞만 보고 달리며 관리감독에 소홀했다. 성과 위주인 금융기관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런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 위험한 곳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 위험한 돈 놀이를 한다.

또한 저축은행 경영진의 부도덕한 비리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미래 저축은행 소유자인 김찬경 회장이 수천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잡힌 걸 보면 직원들에게만 특별한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이같은 경영진에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최소화의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일지 모른다. 도둑에게 곳간의 열쇠를 통째로 내 준 꼴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엄중 처단해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연등은 천년 밝히는 자비의 빛



법현 스님
열린선원 원장
자운암 주지

내 부모, 내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들이 살았던 땅이 있다. 내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이 끝없이 이어지며 살아야 할 땅이, 하늘이, 바다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빼앗겼다. 그 때의 심정과 그 때의 몸이 겪은 고통과 상실감은 어떻게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꿈조차 빼앗기겠네"라 피를 토하며 썼던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의 일부처럼 모든 것을 앗긴 슬픔을 노래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다.

우리말로 내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남의 말로 남의 이름 같은 내 이름을 불렀던 시절, 그 혹독한 존재의 겨울을 지나고 만해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주검으로 변하고 난 뒤에야 우리는 우리 글로 내 이름을 적을 수 있었다. 그 때의 기쁨은 '환희용약', '뛸 듯이 기뻤다' 그 이상의 표현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도 젊은이들의 좋지 않은 모습이나 위정자들과 관련한 갖가지 좋지 않은 것들과 무너져버린 교육현실, 국방현실, 이웃현실 등을 보면 '차라리 그 시절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노인들이 있다.

그 시절이 다른 것들은 다 무너졌어도 기강만은 살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게다. 아마도 그것은 윤흥길의 소설에서 '완장' 찬 녀석이 완장 준 녀석에게만 고개 숙이면 나머지가 고개 숙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우리 이와 같은 어리석은 느낌의 만족 착각 현상을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

'모든 것들은 절대자가 만들었으니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이 기쁨이요 평화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는 가르침에 익숙한 이들이 있다. 그 안에서 평화로움을 맛보기도 한다. 그 나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의 평화도 평화라고 할 수 있다. 한 곳에 이름을 붙여야만 그들 소속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문제는 이어짐(持續)이다. 그것이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문제는 그들도 느낌의 만족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은 변해가고, (변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괴로우며,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니 나(我)라고 할 만한 알갱이도 고갱이도 없다' 는 가르침을 들어보았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면 평화로운 고요(涅槃)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도 들어보았는가? 그것을 스스로의 실천으로 맛보고 누리고 나눌 수 있다는 가르침을 아는가? 내가 싫으면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보았는가? 지금까지 약 120만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가르침은 처음으로 나타나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 더 나아가 만물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마치 그것은 천년동안 어두웠던 동굴에 탐험가가 들어가면서 들고 갔던 횃불이 비치면서 천년의 어둠이 사라진 것과도 같은 일이다.

빼앗긴 들에서 억눌린 고요를 맛보았음을 참된 평화라고 착각하는 이에게 자유로운 평화와 질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완장 찬 기쁨을 참 기쁨이라고 오해하는 천년 어둠의 동굴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찬란한 빛나는 태양을 만나게 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바로 붓다 석가모니가 전생에 만났던 연등불(Dipamkara Buddha)로부터 뒤에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리라는 예언 즉 수기(授記)를 받는 것과 꼭 같은 일이다. 어둠의 세상에 밝은 빛, 진리의 빛을 밝히는 것이다.

바로 '등을 밝히는 것(燃燈. dipamkara)' 이다. 물론, 십 년을 가물었던 사막에도 하룻밤 비가 오면 기화요초가 피어나고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지혜의 밝은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해 주는 자비의 나눔이 꼭 필요하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밝히는 등은 바로 천 년의 어둠을 밝히는 한줄기 빛이다. 그 안에 자비 가득 담긴. 모두 자비 담은 지혜의 등 밝히소서!

社說

부처님 오신 뜻 아나 모르나

한국불교 전체가 국민과 불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참회했다. 백양사에서 벌어진 승려 8명의 도박 사태 때문이다.

폐쇄회로TV에 찍힌 스님들은 수행납자가 아닌 술 · 담배를 하는 속인의 모습이었다.

이중에는 한국불교 1번지라고 불리우는 견지동 일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스님도 보였다.

그간 간간히 비위 승려에 대한 소식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린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이런 후학들의 모습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도 큰 충격을 받은 듯 하다. 진제 스님은 소식을 전해 듣고 "시주밥도 먹을 자격도, 먹물옷을 입을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경책하며 당신부터 참회한다고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국민과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종단 책임자로서 부처님 전에 엎드려 참회한다"고 밝혔다. 백양사 문중도 참회문을 발표했다.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들은 일괄 사퇴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처님오신날 봉축분위기가 예년보다 못해질 것을 벌써부터 걱정한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하는 것은 봉축 분위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오신 뜻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우려해야 한다. 출가 정신의 기본은 자신을 한 없이 낮추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수행과 교화를 하고 무소유와 책임을 배운다.

이제 출가자든 재가자든 한국불교의 현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불교계가 너무 방만하지 않았는지 몸을 낮춰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참회들이 더 이상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여수 '불교 홍보' 전초기지로

전 세계 105개국이 참가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5월 11일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석 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수세계박람회는 불자들에게도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박람회 기간인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여주 일원에서 제26회 세계불교도우의회(WFB)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불교계도 여수세계박람회를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회로 보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여수 흥국사, 향일암, 순천 송광사 등 인근 지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들은 대회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 활발히 운영된다는 후문이다. 주최 측도 부족한 숙박시설 대신 템플스테이를 이용해 주길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5월 10일에는 엑스포타운 내 43m²(13평) 규모의 불교관을 개관했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는 이곳에서 박람회 기간동안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해 각종 포교행사 및 정기법회를 봉행하게 된다. 6월 12일에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대회 식전행사를 겸해 1천여 명의 불자가 참가하는 '전국불교합창제' 도 열린다.

말 그대로 '다채로운' 불교계 행사가 여수 일원에서 석 달 동안 펼쳐지는 것이다. 많은 준비를 한 만큼 차질 없이 한국불교문화를 국민과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데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대표 전통문화 관광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세계의 관광 자원으로 그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여기에 함께 열리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 대회는 한국불교를 세계불교의 중심으로 발돋움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교계는 이번 여수세계박람회를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해야 한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토종참옻으로 헐은 위, 지친 간 다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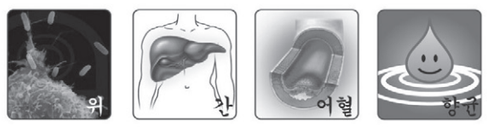


대한민국 신지식인대상과 산림청신지식인에 선정된
옻안타는 토종참옻 국내최초 개발자 池龍禹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利小將(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피부 질환, 아토피
瘰呟櫥(로해수) : 가래, 기침병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九服俾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 골을 채워줌, 골다공증 치료.

어혈을 파하면 저절로

消瘀血痺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어혈을 풀어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削年深堅結之積(삭년심견결적체) : 몸안에 오래묵은 병덩어리를 없애줌.
破日久凝結之瘀血(파일구응지어혈) : 오래묵은 어혈, 응혈을 파하여 피를 맑게함.

50대 전후에 많이 생긴다하여 이름붙여진 오십견은 어깨가 굳고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힘든 질환이다. 통증은 낮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밤에 특히 잠을 청할 때 나타난다.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증거이다. 오십견 통증은 양상이 대부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데 이것 역시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어깨 힘줄에 쌓이고 굳어진 어혈을 파하여 어깨 주위의 힘줄을 부드럽게 하면된다.

관절의 염증을 삭히는 토종참옻

風寒濕痺(풍한습비) : 뼈가 저리고 수시고 쓰림.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리골속을 채워줌.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다. 한방에서는 관절내 어혈이 쌓여 염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는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하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십니까?

혈액순환장애의 원인

혈액순환장애의 원인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1)과잉 영양섭취로 혈액내에 지방과 탄수화물의 과다로 인해 혈액이 탁해진 상태 2) 혈관이 나빠져 막혀있거나 좁아진 상태 3) 몸이 허약해 심장기능이 떨어져 심장박동이 약한 상태 등 여러가지 원인이나, 병균이 몸안에 들어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모든 병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생리통 효과없다면 100% 환불!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한달에 1번 그날이 오면 진통제 5~6정 복용하던 분들도 최소 1~2정이면 지나가고, 월경때 피가 잘 나오지 않고 배꼽노리가 차면서 몹시 아픈것과 몸푼뒤에 혈기가 고르지 않아 배에 징가가 생긴것을 풀어준다.

옻가네 참옻대보를 이용한 옻닭요리

우리의 전통식품인 옻닭은 모든 세대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옻닭이 몸에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옻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참옻의 원조 옻가네참옻진액은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참옻진액입니다.

※옻닭은 이런분께 특히 좋습니다.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나, 시장이나, 건설현장,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감기몸살 없는 건강한 겨울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옻닭)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사례공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있는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근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을 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위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을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 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하였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 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들어보시라고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주는 맘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신것은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잠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되어 정말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1) 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 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 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 복부비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은상 수상
ISO 9001 인증서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KFDA
미국식품안전청 FDA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과정등록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16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고급형구입시 선착순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 800원

토종참옻환은 온 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상담전화 : 080-838-25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